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340 호

금주법구

그대의 모든 생각은 다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같아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곧 사라지리니,
그대 마땅히 이 같이 보아라.

-금강경-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5-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흥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우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총무원장의 자격요건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체계를 갖춘 교단이었던 조선불교조계종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불교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방한암 스님이 초대 종무총장(지금의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친필 사본(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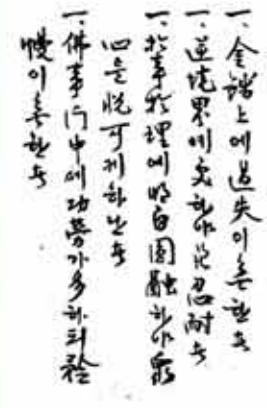
〈현대 한국불교사료〉(1941년)에서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씨가 발견한 이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일제하 종교관련 문서철에 있던 것을 동국대에서 복사해 놓은 자료의 일부다.

〈총본산 조계종 산현중원(방한암)의 종무총장 전형에 관한 희망조건〉이라는 친필 문서에서 한암 스님은 "신력(信力)이 견실하여 사업에 유시유종해야 하며, 금전상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역경에 처해도 능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리에 명백 원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사에 공로가 많되 겸손해야 한다"고 종무총장의 자격 요건을 못박았다.

한 마디로 "대중화합을 잘하면서도 불교중흥을 이끌 청정비구"가 종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은 이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암 스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한국불교계는 그 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는 25개 교구본사 임명권을 통해 2천여 공찰과 1만여 스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동시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암 스님이 제시한 총무원장 자격 요건은 당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불교계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소임에 임해야 하는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청정치 못한 파계의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한암 스님이 제시한 자격요건은 수행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가르치는 경책같기도 하다.



권형진(취재2부 기자)

장 군 죽 비

◇조계사 인근 지상 24층 높이 90m 빌딩 건축, 세수 확대만을 노리는 지자체에 압살되는 전통문화. (2면)

◇한국의 어른들. 외국인의 눈에는 '어글리 코리언', 청소년의 눈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어른'. (8면)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먹, 몽둥이, 총구에서? 아니다. 인간 내면의 악이 선을 압도할 때 온다. (15면)

◇맹신적 일부 기독교도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봉안 저지, 예수도 한국에 오면 '못난 어른'이 되는가 보다. (23면)



◇암석의 표면을 잠식하고 있는 면가과의 다년초인 털고사리가 다보탑 사면 상부 덮개 곳곳에 뿌리를 내려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래 사진은 털고사리를 확대한 모습.

국보 석탑 3기 '식물 훼손'

다보탑-현화식물 관찰… 균열·풍화도
석가탑-다양한 식물군 섞여 자라
감은사 서탑-부재 부식 기단부 파괴

국보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과 감은사지 서탑이 식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어 보존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 17일까지 경주시가 (주)고려구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 이들 탑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16일 보고된 것이다. (주)고려구조엔지니어링에 의하면 3기 모두 식물로 인한 훼손 외에도 침하나 갈라짐 등 구조변형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보탑(국보 20호)은 식물로 인한 훼손의 최종단계에 출현하는 현화식물이 사면에서 관찰되었고 남쪽 사면의 상부 덮개에는 어린 소나무, 콩이밥, 털고사리 등이 암석 표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또한 다보탑은 1층 옥개석의 옥석받침과 2층 8각 난간의 간대 및 난간석이 심한 균열과 풍화로 인해 손만 대도 부스러지는 것과 북북서 방향으로 약 0.6도 기울어진 사실도 밝혀져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석가탑(국보 21호)은 국지적인 식물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다양한 생물군이 섞여 자라고 있어 처리방안이 간단치 않는 상황이다. 또 지반 약화로 기단부 중앙이 내려앉고 양끝은 솟아올라 각 면과 모서리 탑신의 면이나 모서리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은사지 서탑(국보 112호)은 19종이나 되는 뿌리식물이 전체 면에 착생해 탑 표면과 부재(각 부분재료)가 상당부분 깎여 나갔고 동남부 기단부와 각 층 옥개석에 박락과 멸실 등이 '심각한 상태. 또한 바다와 가까운 이 탑은 염분으로 인한 박리 현상이 심각해 풍화가 가장 심한 경우로 지적됐다. 감은사 서탑을 조사한 한 문화재 자문위원은 "서탑의 경우 석탑을 받치고 있는 부재들의 부식으로 인해 기단부의 파괴확률이 99%로 나타나 해체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0개월 여 동안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된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2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생물학적 보존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탑 보존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pa.com

4급 승가고시 154명 합격

조계종 25일 수계산림

조계종 제4급 승가고시가 19일 오후 송광사에서 실시돼 바구니 스님 158명의 응시자 중 154명이 합격, 25일 구족계를 받는다.

이날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은 신체검사 등의 감마를 거쳐 7일간의 구족계 수계산림 일정에 들어갔으며, 구족계 수계산림은 계본강의 및 독송, 백팔참회, 습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비구니계 수계식이 봉행된다.

올해부터 비구 비구니를 구분해 실시된 이날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한 비구니 스님들은 율학, 사집, 사교, 화엄, 불교학개론, 치문, 조계종사, 불교사, 선학 등의 시험을 치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선학원 28일 분원장 회의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26일 오후 2시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전국분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 조계종 종회에서 안건 처리된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합의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또 재단 현안에 대한 경과보고, 분과토론, 전체토의가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총인 혜일종사 추대

19일 종의회·인의회



불교진각종 제 9대 총인에 혜일 종사(전 통리원장 · 사진)가 추대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9일 오후 총인원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종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인의회(진각종 원로들의 모임)에서 혜일 종사를 제9대 총인으로 추대했다.

새 총인으로 추대된 혜일 종사는 1934년 生으로 지난 65년 학교법인 위덕학사 감사, 총연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종의회 의원을 지냈고, 79년과 83년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80년 종의회 의장, 탑주 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삼매야계단 갈마아사리에 위촉되어 있다.

한편 진각종 종의회는 20일에도 회의를 열고 2002년도 예산과 2001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효암통리원장 취임 후 궤도수정에 들어갔던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한·중·일 우호대회 中 베이징 26~30일

한 중 일 3국 불교계가 21세기 세계평화, 환경보존, 문화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제 4차 한중일 우호교류대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천룡왕조호텔에서 세나라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평화, 환경,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대회는 2002년도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세계평화기원법회와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국제학술강연회, 중국불교협회장 초청만찬, 주요사찰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한중일불교교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 5차 교류위원회 개최국 확정 △주요분야 상설분과위 설치운영 및 방안모색 △한국대표단 일본방문 △일본수행단 한국초청 △한국수행단 중국방문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한일 불교계 역할 등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천룡왕조호텔에서 '불교와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강연회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김원우 기자 awkwon@buddhapa.com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통고 은행에 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월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신, 우체국 ·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2.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禪 속의 묵향

석주·석정 큰스님 禪서화전

불교TV 에서는
새로운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석주·석정큰스님 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선향으로 "禪 속의 묵향"전을
마련 했습니다.



• 석주스님(불보사 조실)



•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 일 시 : 2001.11.14(수)~11.20(화)
■ 주 최 :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
■ 후 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원문화재단,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
■ 장 소: 경평아트센터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구입문의(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사 설

종교지도자들의 침묵

9월 11일 미 테러 참사, 그리고 10월 10일의 아프간 폭격.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의 콘크리트 잔해, 그리고 폐허가 된 아프간의 카담 마을. 21세기 인류 문명의 극사실적인 초상이다.

이번 테러와 전쟁 원인의 하나로 종교를 든다. 직접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가? 세계의 수많은 종교지도자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전 인격을 건 종교 지도자다운 무게가 실린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메신저라는 달라이 라마조차도, 9월 16일 비폭력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발언 후로는 아무 말이 없다. 바티칸의 교황도 침묵중이다. 우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해 UN본부에 모여 '세계평화선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을 불러 모으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분들도 여전히 말이 없다. 불교 종단의 큰 스님들도 이런 때는 꼭 산속에 계신다.

물론 여러 종교 단체에서 테러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흔히 보듯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은 현실적으로 공허하다.

한편으론, 아직도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될 만큼의 영향력이라도 있기는 한가? 하는 참담한 회의가 들기도 한다. 철저히 파편화된 개인의 안심과 안식에만 관심을 두는 상업화된 종교가 어떻게 공동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포스트 모던'한 문명은 '탈산업' '탈권위' '탈중심'만이 아니라 '탈종교'까지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대문명의 유일신은 '자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 세계에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 유령은, 살상 목적의 탄저균이 되기도 하고 핵 폭탄이 될 가능성도 다분한 놈이다. 그 유령의 이름은 폭력이다.

물리력을 기초로 한 '항구적 자유'는 말장난이다. 테러 또한 '성전(지하드)'일 수 없다.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된다. 21세기가 살육과 광기의 세기로 기록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분노에 찬 영혼에 평화의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손과 발을 '선'한 일에 쓰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흡수하는 진정 ·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허공(虛空) 즉 종교만이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부터 부처님 품으로

불교신자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한다. 최근 한국사회사회학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은기수 교수의 '한국의 가족과 종교-부모 세대와 자식세대의 종교적 동질성'이라는 논문은 가정 내의 종교간 갈등이 불교 신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불교계가 함께 주목해야 할 일임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를 불교의 종교적 관용성이 낳은 결과라고 자위하면서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관용성 때문에 일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믿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박을 받는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불법을 가족에게 전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의식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가족이 함께 위없는 진리에 귀의하는 일이야말로 단순히 가족 화합 차원이 아니라 원만한 신앙생활의 토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 외에 불교계가 가족간의 종교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영역이 있다. 우선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행의 자리를 늘려야 한다. 사찰마다 청소년과 아동, 나아가 유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 자식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근본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임을 바로 보고, 불자끼리 부부로 만날 수 있도록 연을 맺어주는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다.

전법을 불자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미래불교를 일구려는 범 불교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중심지 조계사 인근 90m 고층 빌딩 건축

종로일대 전통문화 훼손위기

서울시 우정총국 공원 조성계획과 배치

조계종 총무원-조계사 대책위 구성

조계사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수송동 구 삼양식품 자리에 24층의 고층빌딩 건립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한국불교 중심인 조계사의 수행 · 문화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특히 고층빌딩 건립은 이 지역 일대를 경복궁-우정총국-조계사-인사동-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과 조계사(주지 지홍)는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종로 일대의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조계사의 수행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홍스님은 "빌딩이 들어설 자리는 서울시와 조계사가 협의해 추진 중인 우정총국 공원화 계획은 물론 조계사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의 전통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조계사 신도 20여명은 19일 종로구청앞에서 조계사 인근 구 삼양식품 자리에 들어서는 빌딩의 신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축물 부지 반경 1km 내외에는 조계사를 포함해 경복궁, 인사동, 탑골공원, 우정총국 등의 공원 및 여가 시설과 원각사지 10층 석탑(국보2호), 탑골공원 팔각정(유형문화재 73호) 보신각지(기념물 10호) 등의 문화재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조계사 대웅전, 목석가좌불상, 후불탱화 등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등도 소재하고 있어, 24층(높이 90m)빌딩이 들어설 경우 고통혼잡, 상업시설 및 고층건축 본격화 등으로 전통문화환경이 크게 침해받게 된다.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97년 공동주택 77세대를 포함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삼양식품이 지난해 공동주택 331세대로 1차 설계변경을 한데 이어, 이달초 520세대로 2차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가 1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설계 변경 심의를 반려했고, 삼양식품은 17일 2차 설계변경 신청을 취소했다. 삼양식품은 2차 설계변경을 신청한 직후 대지를 '넥스트 이미지(주)'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 시공업체인 한라건설 배영한 이사는 "시행사인 넥스트 이미지도 조계사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대만평

박 구 원



이런 억지가…

북한산 관통로 저지 시위

불교대책위 24일 의정부서…서명운동도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저지를 위해 불교계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와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대책위,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불교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지섭 스님)는 15일 불교종단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제1차 결의대회를 갖는 등 도봉산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섭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로 인근 사찰 30여 곳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환경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5곳의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맥 차단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031)848-6114

김재경 기자

태고종 '해동율맥' 복원

11월10일 수진스님에 전수

통합종단 때 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하고 태고종이 창종된 이후 태고종 종정을 또 두 차례 역임한 대율사 국묵담 스님(1896~1981)의 해동율맥이 손상좌인 수진스님(용화사 주지)에게 전수된다.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담양 용화사에서 그동안 거의 끊기다시피한 '해동율맥 전수식'과 더불어 '구족계 보살계 수계산림'도 봉행한다. 법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입재하여 10일 오전 9시부터 구족계와 보살계를 설하고, 오전 11시 해동율맥 전수식이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봉행될 예정이다.

율맥 전수를 위해 제10대 율사인 법흥 스님(원효종 종정)은 이미 대전 보문사에서 1백일 묵언정진을 마쳤으며 수진 스님도 현재 용화사에서 1백일 기도정진에 들어가 전수식 일정에 맞춰 회향한다.

이경숙 기자

日 고려사 휴전선에 평화센터 세운다

28일 평화의 종 봉안 · 천도재도

일본 고려사가 휴전선에 일본 징용 희생자 유골이 안치되는 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재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주지 태연)는 28일 평화의 종 봉안식과 2차 세계대전 일본징용 희생자 천도재를 갖고, 휴전선에 평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와 UN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고려사가 추진 중인 휴전선 평화센터는 일본 강제징용 한인 희생자 유골을 봉안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이 합동으로 추모재를 지내는 공간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비용은 일본정부가, 관리는 남북한과 UN이 맡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현재 70여 만기에 이르는 한인 희생자 유골은 일본 각지의 신사와 후생성 지하창고에 방치된 상태다.

김원우기자

국제포교사 한국체험 30명 해인사등 방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행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30여명의 국제포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3박4일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부석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 경주 남산 석굴암 불국사 순례, 도자기 만들기,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와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포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관련인터뷰 4면>

김원우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거 31일~11월3일 후보등록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임 회장 후보 등록기간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로 결정하고 153명의 대의원을 확정하는 등 제3대 회장 선거에 따른 일정을 23일 공고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할 153명의 대의원은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4개 광역지역 신도회, 종단 등록 13개 신행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한명우 기자



목어

과학분야 노벨상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지닌 우리이기에 당연히 과학 관련 노벨상 수상을 기대 할 만하다. 지능으로만 따진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I.Q는 120정도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 정도 IQ라면 우리나라 웬만한 초등학교에는 한 교실에 수명씩 있다. 과연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필자는 적어도 외국 대학에서가 아닌 순 한국산의 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혁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획기적인 학문적 업적에 요구되는 것은 강한 지적 호기심, 상상력, 집중력 그리고 스스로 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않는 실험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억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얽매어 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학문이 주로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주로 중국 고전을 암기하는 일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예나 다름없이 시험 중심의 교육이며 머리 좋다는 사람은 어김없이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만을 지목한다. 시험문제에는 반드시 모범답안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창의성은 이전에 없던 것들을 찾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면에서 조선왕조말 진정한 창의적 학문을 할수 있다고 믿으며 오히려 과거응시기회가 상실됐음을 기뻐했던 박지원 등 실학파들을 주목한다.

한국에서의 대학입시는 학생이 지닌 지적 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술자를 양산하는 큰 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수많은 영재들은 시험의 틀에 매어 안타깝게도 그 지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은 지식의 양이 아닌 창조성과 그 깊이에 대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백년하청(百年河淸) 순 한국산 과학관련 노벨상을 배출하기는 요원할 것 같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성북동 전등사 28일 불사회향식 '은사 스님 추모법회로'

'세상의 등불' 유지 잇는다

해안 스님 탄신 100년
전등회 3백여 회원
녹음법문 들으며 추모
'해안집' 3권 · CD 발간



◇28일 완공되는 전등사는 참선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의 수행처이다. 사진은 전등사 전경.

서울 성북동 전등사(주지 동명)가 28일 개최하는 불사 회향식을 해안스님 탄신 1백주기 추모법회로 대신한다.

4년간의 불사 끝에 이날 완공되는 전등사는 대지 420평의 작은 사찰이지만 69년 창건당시 재가불자 수행도량 탄생의 신호탄이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금강경〉 강해의 독보적 위치도 점하고 있는 해안스님은 1969년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재가불자 수행도량을 열고 헌신적으로 지도했다. 스님의 재가불자 수행처 마련은 본격적인 재가불교수행의 시작이 됐다.

스님은 또 1972년 개원한 재가불교운동의 중심도량인 남산의 대원정사 조실로 추대돼 주석하며 대원선원 특별정진법회를 수시로 열어 "수행정진을 미루지 말고 단번에 깨쳐야 한다"는 '단기간 수행체험'을 재가불자들에게 강조하며 참선지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안스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음예찬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원각경〉 보안장을 암송한 다음 선정에 든 뒤 아침공양을 했다. 오전에는 좌담설법을 한 뒤 정진과 을력을 하고 저녁예불 후에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한결같은 정진을 통해 대중들의 귀감이 됐다.

그 당시 전등회 초대회장을 맡은 서돈각 박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들은 해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32년간 일주일에 한번씩 용맹정진과 매년 분기마다 일주일씩 안거정진을 해왔다. 전등회는 이제 전국에 300여명의 정예회원을 둔 수행단체로 변모했으며, 활동회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재가수행을 추동하는 힘이 됐다.

이런 스님의 유지가 스며있는 만큼 동명스님은 전등회원들과 불사를 진행하며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누구라도 와서 언제나 참선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불교학교 공간마련이었다.

또 선방 옆에 건립된 해안 추모당은 생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참선수행과 계명학원을 세워 문맹퇴치운동을 벌여온 해안스님의 유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날 불사 회향식은 27년 전 해안스님의 육성법문을 전 대중이 들으며 스님을 추모하고,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해안스님은 1974년 전등회 5주년 창립식 기념 7일정진법회 회향식에서 많은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법상에 올라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정진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정법을 수호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온 누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는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다음날 새벽 열반에 들었다.



해안스님은? 학교설립 문명퇴치운동…재가불자 육성

서래선원에 주석하며 몇 년간 선방을 나오지 않는 등 36하안거를 성만하여 제방에서 존경을 받았던 해안 스님(사진)은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백양사 지방학림, 중앙불교학림을 졸업했다. 1932년 내소사 앞에 계명학원을 설립하여 무 취학 무학 성년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벌인 스님은 1945년 김제 금산사 주지로 임명됐으나 토굴에 들어가 3년간 은거하며 두문불출했다. 스님은 1969년 참선에 뜻을 둔 재가불자들을 규합하여 불교 전등회를 창립하고 1974년 서래선원에서 입적할 때까지 전등사에 재가자 선방과 불교학교를 만들어 재가불자를 육성했다.

전등사는 이날 2년 전부터 준비해온 해안스님 CD와 〈해안집(海眼集)〉을 발간, 강원, 선원, 도서관, 불교대학과 일반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스님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스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3권으로 발간하는 〈해안집〉에는 해안스님이 언제나 설한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는 방법인 무유정법(無有定法), 금강경 원각경 수심결 선시 전등록 해설, 역대조사스님들의 선어록과 전법게송 등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생전에 절친했던 도반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은 "해안스님은 철저한 수행과 대 원력을 바탕으로 중생구제에 앞장서신 분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선불교 조계종' 위상 높아질듯

조계사 '조계종 정체성 연구' 24일 세미나

창건 91주년을 맞은 조계사는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24일 오후 1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씨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박희승 기획과장이 '조선불교 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친일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그간의 평가에 메스를 들여댔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 발표자는 "친일 행위와는 별개로 한국불교의 전통과 위상을 지켜 나가려는 자주적 · 주체적 노력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사료 발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발표 준비과정에서 초대 종정 방한암 스님이 종두총장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친필 사본을 발견한 김 씨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는 초대종정 한암 스님이 종무행정에 깊숙이 관여치 않았다는 그간의 인식과 평가를 재고케 한다"며 "종정 스님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일제하 불교 자주적 노력 제기
이종욱 스님 친일시비도 재연

더 큰 논란점은 친일 시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초대 종무총장 이종욱 스님에 대한 인식이다. 즉 일제 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한암 스님이 종무총장과 3부장, 고문 인선에 개입했다면, 이종욱 스님은 한암 스님이 제시한 종무총장의 자격을 구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박희승 씨 역시 종단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선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종정과 종무총장은 종단을 대표해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제 협력 문제를 개인적 친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태고사법이 제정되고 조선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종명과 종조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당시 기록을 토대로 김 씨는 태고보우 스님을 종조로 조계종을 종명으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조선 불교의 승려는 태고법손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태고법손 7천 승려의 종단이기에 태고보우 스님을 종조로, 태고가 조계종 승려이기에 종명도 조계종으로 하였다"는 김포광의 견해가 반영돼 종명과 종조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의 국사를 종조로 추대하자는 권상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별것이 아닌" "도의 국사로부터 태고보우 국사에 이르는 전법계통이 실전(失傳)되고 없는 까닭이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과정은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것은 곧 정체성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학술세미나를 기획한 조계사 측의 설명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15일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제 :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 2001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천태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관음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태고탄신 7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 일 시 : 11월 4일(음 9월 19일) 13시 ■ 장소 :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고개홀
■ 주 최 : 태고종, 조계종, (재)일붕선교종, 한국불교승가회, 태고법(문)손
■ 주 관 : 한 국 불 교 태 고 학 회 ■ 후원 : 불교계 신문사 및 방송국

한국불교 태고학회 발기 취지문

태고는 일찌기 불조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깨달아 자각한 선각자요, 불심인법인 불조 정통 임제 법맥을 계승해 온 동방의 초조요, 중흥조이다.

원융홍통사상의 실천을 통한 일불승과 선교겸수의 대법 실현은 실로 한국불교 법맥 확립과 함께 수행 체계를 확립해 놓은 위대한 행적으로 불조와 다름없는 각행원만한 대도사라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도는 현실 수행상으로 보나 종파, 종책상으로 보나 모두가 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계승한 문손들 뿐이다. 한국불교 1600년의 역사상 가장 심한 종파 불교로 큰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과 이기 및 개인주의, 물질 및 과학 만능주의, 인간성 상실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생명 본성 자각과 함께 실로 원효의 화쟁, 화합사상과 태고의 원융홍통사상 실현은 오늘의 한국불교계 및 전 국민의 과제요, 세계 불교계 및 전 인류의 요망이다.

이에 우리 태고 문도들은 원융불교사상을 오늘에 실현해 보고자 한다. 95년 덕암 대종사는 태고 탄신 7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륜불교 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태고에 대한 2회의 학술발표회와 2575쪽의 태고보우국사 전서 1,2,3권을 편찬, 발간하여 세상에 내 놓았다. 실로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법맥 수행 자료를 총정리한 사서다. 금년은 태고보우국사 탄신 700주년 기념의 해이다. 우리 태고 문도들은 불조의 큰 뜻을 받들어 2001년 1월 5일 삼각산 무량사에서 태고학회를 조직하고 전 태고문도를 중심으로 태고의 그 보편적이고도 위대한 사상인 원융불교사상과 수행가풍을 모든 인류의 사상 및 생활수행법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오늘의 한국불교도 및 국민은 물론 모든 인류와 함께 이 큰 뜻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며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불기 2545년 1월 5일

발기인 3사(덕암,서암,숭산) 7증(혜초,정대,월주,일우,남파,일공,법장) 고문(서돈각,손회정,송석구,운곡,무찰)
자문위원(성광,도기,청송,성각,현광,인공,동광,도정,원성,정각,대운,월운,운산,한정섭,김철회)
회장(무공) 상임부회장(대은) 부회장(도운,동봉,범청,지즉,혜광,지공) 심사위원장(서윤길)

회원(연구위원)(권기종,김상현,법산,성본,종호,이봉춘,정태혁,오형근,김영태,종범,허홍식,김방룡,진월,주명철) 총무이사(법현) 교무이사(성덕) 재무이사(법련) 사회이사(도봉) 연구이사(도각) 홍보이사(석환) 국제이사(철안) 이사(혜성,최인순,덕봉,통영,우종곤,삼현,법운,대선,화엄,봉월,정수,임법성,송덕,복정,성오,법우,월단,정법성,대현,동우,정담,혜천,용암,월해,태일,경담) 감사(명종,청봉)

주 제 :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1)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 사상과 그 위상	동국대	권기종교수
(2) 근세로 이어진 원융불교의 법통과 태고보우국사의 자타 수용의 무애 자락한 삶	동국대	정태혁명예교수
(3) 태고보우국사와 보조지눌국사의 사상과 수행교화법 비교 연구	영산원불교대학교	김방룡교수
(4) 태고보우국사의 중심 사상과 원융(선,교)불교 수행법	동국대	종호스님교수
(5) 현대사회에 있어서 태고보우국사의 대승교화법	동국대	오형근명예교수
(6) 원대 선종의 법맥에 대한 소고 (태고보우선사를 중심으로)	중국남경대	洪水平교수
(7)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 (태고화상과 편조(신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	허홍식교수

■ 토론 참가자 : 서윤길(동대불교대학장) 법산(동대정각원장) 종범(승가대총장) 이봉춘(동국대 교수)
※ 12월 8일 중 한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함 (장소 : 중국) ※ 당일 창석자 전원 "태고사상"지 증정함

한국불교태고학회 회장 무공무상

사무처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4.12호(무량사내) TEL. 02)904-0081 FAX. 02)904-0083 HP. 011-750-0016

일주문



효일사지 국태민안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스님은 11월 4일 오전 10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지에서 개최되는 국태민안 법회에서 법문한다.



1029일 천도재서 설법

숭산 화계사 조실은 29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1029일 천도재, 여섯 번째 49재'에서 설법한다.



녹색대학 창립 준비위원

도법 실상사 주지는 2003년 개교예정인 환경 시민 전문가 양성 대안학교 '녹색대학' 창립 준비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일본불교도 대회 참석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은 9일 일본 장강시에서 개최된 전일본불교도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고 12일 귀국했다.



봉은사 삼천배 정진법회

원혜 봉은사 주지는 27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삼천배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지역노인 경로잔치 열어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27일 연흥사와 11월 3일 법연사에서 각각 지역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지관 스님 은관 문화훈장



◇지관 스님



◇김천흥



◇윤형두



◇박찬수

인간문화재 1호인 불자 국악인 김천흥옹이 금관문화훈장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과 신경림 시인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불자들인 독실한 연출가 강유정씨와 출판인 윤형두씨는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불자가수 송대관씨와 하춘화씨는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받았다.

이외에도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은 제 33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나희덕 시인은 젊은예술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문화관광부가 문화의 날을 맞아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 열렸다.

김주일 기자

"염불삼매 들면 부처님 바로 곁에 계시죠"

27년 5개월 1만일 염불수행 회향 설산 스님

"염불(念佛)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장엄한 상호를 연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생각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염불삼매에 빠져 있는 시간만큼은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1만일(27년5개월) 염불수행을 회향하는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유명한 염불도량인 건봉사 창건 이후 여섯 번째인 만일염불결사를 회향하는 스님은 "염불이야 말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암 스님을 모시고 월정사 강원에서 경전공부를 하며 10안거를 성만하고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으로 있으며 경론을 강의하는 등 선승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염불도량인 건봉사에서 출가하고 생활한 탓인지, 염불수행을 하고 싶다는 원력이 항상 있었다.

"출가 후 건봉사에서 공부하는 동안 원효



스님을 비롯해 효봉 청담 동산 스님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길 원하옵니다'라는 송주 誦呪)를 외우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스님은 "6·25사변 이후 폐허가 된 건봉사를 보고, 염불수행의 맥을 잇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때가 74년 5월. 건봉사에서 '만일염불'을 입재한 스님은 삼각산 정토사를 지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구제하겠나이다'라는 발원과 함께 "만일동안 염불 수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수행을 계속해 왔다.

"염불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염불수행을 권유하는 설산 스님은 "입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집중해야 공덕이 쌓인다"고 염불수행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며 "회향법회는 대중들에게 염불수행의 공덕을 알리는 자리일 뿐, 죽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로써 염불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향법회는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와 건봉사 금강갑계(회장 이영선), 그리고 스님이 주석 중인 정토사 신도회 등에 의해 마련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외국인 체험실수 프로그램 절실"

한국문화체험 해외거주 포교사 종매 스님



"서양인중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에 참가한 종매스님(LA보광사 주지, USC교수)은 "서양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은 접근하기 쉽고, 흥미를 배가시키는 불교체험 프로그램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포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불교학을 강의할 때도 지식위주의 전달보다는 한국 중국 인도사찰을 순례하며 직접 피부에 와 닿은 현장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0년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한 뒤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23년간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각지에 포교당을 운영하며 해외 현지인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불립문자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참선수행법을 외국인들도 쉽게 실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세계 지팡이의 날' 장관상

송암사 법진 스님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법진 스님.

"장애인에 용기주고 싶어"

"저와 같은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부처님의 법음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10여년동안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15일 창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세계 지팡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법진 스님(의령 송암사 주지).

한사코 상받을 일이 아니라며 부끄럽다는 말만 반복하는 법진 스님도 앞을 전혀 못보는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스님은 93년부터 매년 8백만원 가량의 쌀과 라면을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보시했는가 하면, 97년 5월부터 시각장애에 다 당뇨까지 앓던 마산의 한 거사를 올해 3월까지 손수 뒷바라지 하기도 했다. 법진 스님은 "송암사 법당 아래에 부지를 새로 구입해 빠르면 내년말까지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양노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가르침 교포들에 큰 위안"

포교원장 표창 김자원 보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되니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욕의 교민 방송인 '라디오 서울'에서 불교 프로그램인 '물같이 바람같이'를 진행하고 있는 김자원 보살(53)이 활발한 포교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자원 보살은 미국 뉴욕의 '불교방송'으로 불리는 '물같이 바람같이' 프로그램을 6년간 진행해 오면서 방송 후원단체인 '선재동우회'를 97년 설립하고, 매년 스님 초청법회와 한국 성지순례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로 지난 98년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한명우 기자



천태종 관문사 창건 3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가 14일 창건 3주년 기념 및 인류화합 기원 관문사 창건공덕비 제막식(사진) 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정산 감사원장, 춘광 관문사 주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등 3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운덕 총무원장은 "모두 한마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과 사회 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화종 종도 3백명 연수교육

총화종은 12~14일 총본산 남양주 수진사에서 3백여 스님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2545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종정 동광 스님의 법어, 전 총화종 종정 야옹스님의 불교강의, 총무원장 남정스님의 지장경 강설 등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문곡(영진사) 혜성(청룡사) 스님에게 종사 법계가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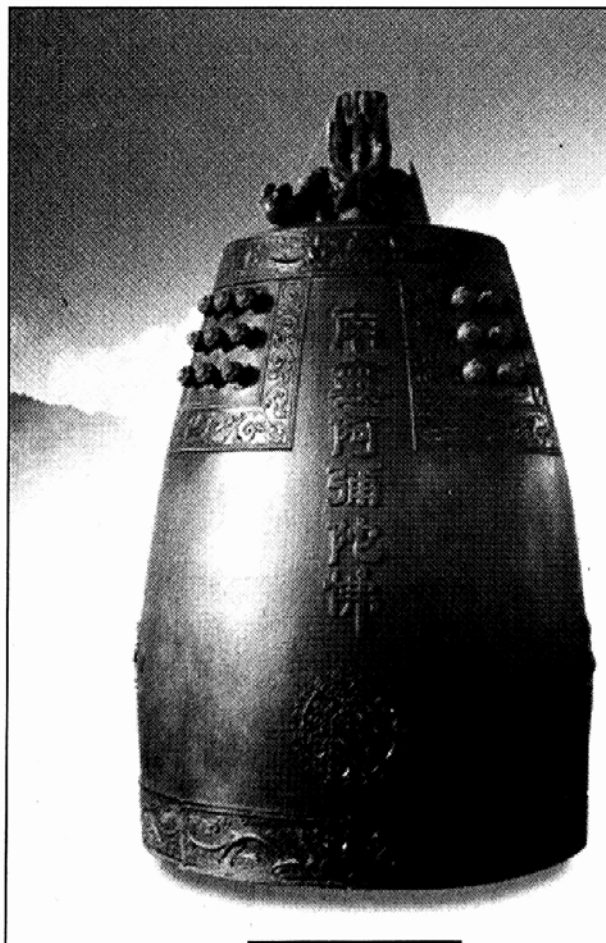
흥천사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충주 흥천사(주지 동봉)는 14일 대웅전에서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및 만등법회'를 봉행했다. 함종한 한나라당 특보단장, 김문배 괴산군수 등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동봉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3년전 나라가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시작한 천일기도가 원만한 회향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 교리반 상견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14일 범어사 금강암에서 '제18기 주 야간 교리반 상견례법회를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이욱태 법사의 '바른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법문에 이어 사찰예절과 찬불가 배우기, 예불의식, 불교입문 동기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전국경불회 고불식…"호법신장" 다짐

조직력 탄탄 산하 18개 불자회 창립

경전공부·사찰순례등 신행도 왕성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전국경불회)가 경찰의 날인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4월 창립 이후 탄탄한 조직력과 활발한 신행활동으로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모범으로 급부상한 전국경불회가 뒤늦게 부처님께 창립을 고하는 고불식을 가진 것이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전국경불회의 활동은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중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불자야 말로 불법을 알리는 포교사,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불회는 창립 이후 6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 활동을 보여줘 교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전남 및 부산 지방경찰청과 15개 경찰서, 1개 전투경찰대에서 경불회를 결성하는 등 각 지역에서 경찰관 불자 모임을 조직하면서 전국 조직을 체계화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불자들은 "김중겸 회장(청와대 치안비서관)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정인식 회장, 부산지방청 고행섭 회장, 경남청 김문수 총무 등 전국경불회 지도부의 원력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경불회가 임원들의 모임을 활성화 하면서 아직 경불회를 결성하지 못한 경찰서 현황 파악과 지원에 주력해 왔다. 또한 기초교리와 예절교육은 물론 경전공부, 사찰순례 등의 신행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경찰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유대를 강화해 전국경불회의 소속감을 높였다. 특히 회원 자격을 현직 경찰관 뿐 아니라 전직 경찰관, 전경, 의경과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불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하는 등 경불회 회원을 배가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여왔다. 전국경불회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창립 기념법회를 10월로 연기하면서 세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초단위 경불회를 먼저 결성하겠다"는 서원을 지킨 것이다.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불자들이 스님이나 재가법사 등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경불회 창립을 준비하고 법회를 봉행한 것은, 전국경불회의 탄탄한 내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날 법회 진행은 전국경불회 포교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홍 고문이 맡았다.



◇18일 용산경찰서 경승실에서 봉행된 경불회 창립법회 모습. 경승이 없는 상황에서 경불회가 결성된 것은 전국경찰불교회의 조직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국경불회 김중겸 회장은 "기념법회 이후에 강원, 울산, 인천, 해양경찰청 등 경불회가 창립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경찰기구인 경찰청과 14개 지방경찰청, 전국 240여 개 경찰서 모든 곳에 경불회를 창립해, 시민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자타불이'를 실천하며 삶의 현장에서 포교하는 경찰불자상을 세우겠다는 서원인 셈이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정각회 무허스님 초청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22일 국회에 마련된 정각선원에서 '국태민안기원'을 주제로 경남 산청 불타사 조실 무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신도회는 11월 3~4일 전북 무안 월명암 및 김제 금산사 사찰 순례를 실시한다.

금융단불교회 봉정암 순례

전국금융단불교회는 13~14일 설악산 일대에서 2001년 추계 정기산행 및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여 금융인 불자들은 무박 2일 동안 봉정암, 영시암, 백담사 등을 순례하며 신심을 다졌다.

은평구청 월례법회



은평구청불심회는 17일 송천사에서 30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월례법회를 봉행했다. 오후 7시 예불과 독경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송천사 주지 지원 스님의 '올바른 공무원 상'이라는 주제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KBS 불교㈜ 대화의 시간

KBS불교연구회는 14일 40여 회원들이 동참해 예천 수덕사를 참배했다. 이날 회원들은 수덕사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서로 격려하며 신행정보를 교류했다.

경남 공무원불자회 잇달아 결성

의령군 20일 · 고성군 27일 창립법회

경남 의령군과 고성군의 공무원 불자들이 연이어 신행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임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포괄하는 '군 단위' 불자회라는 점이 주목된다.

의령군공무원불자회는 20일 유화사(주지 원담)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7월 최호영 씨 등 6명의 공무원 불자들이 불자회 결성을 논의한 후 4개월만에 30여명의 의령군 공무원들이 모여 불자회를 결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씨 등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인트라넷을 이용해 불자회 결성을 알리고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지난 6, 7일 해인사에서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의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창립에 절차를 협의했고, 수완스님(경남 산청군 정취암 주지)을 지도법사로 초빙했다.

고성군공무원불자회도 27일 오후 3시 경남 고성군 옥천사(주지 능륜)에서 50여 회원이 동참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8월 송정욱 씨 등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를 다니는 공무원 5명이 '불자회를 결성하자'는 서원을 모아, 이번 성과를 낳았다.

송정욱 씨는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행활동에 더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온라인 불자 보현행 발원

나우누리 8돌 기념 수련회

하이텔·유니텔 운영진 개편

상용통신망에서 활동하는 불교동호회들이 창립 기념법회를 준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한창이다.

나우누리 불교동호회는 27~28일 경기도 가평군 향락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를 계기로 신행의 영역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참선정진, 새벽예불, 올력 등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 부심하고 있다.

정재평 대표시숍은 "회원들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이텔과 유니텔 불교동호회는 대표시숍과 감사 등 운영진을 새로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는 16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6대 대표시숍에 이현동(ID 법륜), 감사에 오기석(ID 무심지공) 씨를 선출하고, 21일 강원도 인제군 봉정암에서 인수인계식을 개최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는 9월 27일 12대 대표시숍에 홍향희(ID 유보현화) 씨를 새로 선출했다.

두 대표시숍은 "전 회원을 수행정진의 장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하고, △지역법회 △봉사소모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종욱 기자

"사찰환경·문화재 수호 다짐"

산악인련 창립 4돌 법회…법인화 추진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대행 정인악)는 11월 4일 오후 1시 경남 양산 통도사 대설법전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사찰환경 및 불교문화재 지킴이 운동전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법회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40여개 지역 불교산악회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법회는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의 법문과 감사패 증정식, 통도사 합창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정인악 총재대행은 "4주년을 기점으로 연합회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청정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011)9739-9505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안과신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진료를 실시한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삼성동 미래안과에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일반인은 50%감면 혜택을 준다. (02)2280-1100

모집

▲무의탁 노인 보호=안양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 단기 보호 희망자를 모집한다. 동작훈련, 취미생활 지도 등의 프로그램과 간식이 제공된다.(031)455-0551

▲장애아 주간보호 도우미=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발달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매주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051)363-2067

▲한글 교육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 한글 교육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한글교실이 열리는 매주 화, 목요일 실시된다. (02)852-0525

▲장애인 정보교육 희망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체장애인 및 구화 가능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OS 과정반, 고급OA반을 운영한다. (02)989-4215

▲도배 용품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 도배서비스를 위한 후원품을 모집한다. 후원품은 도배지, 풀, 도배용구 등. (02)2203-3677

▲어린이 발레교실 수강생=본동사회복지관은 방과후 어린이 학습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과제물 지도. (02)817-8052

화촉

▲법보신문사 심정섭 기자는 28일 오후 1시 청담웨딩프라자 1층에서 조성희 씨와 화촉을 밝힌다. 전화 (02)725-701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벽지주민에 자비인술

병원불자련 강화서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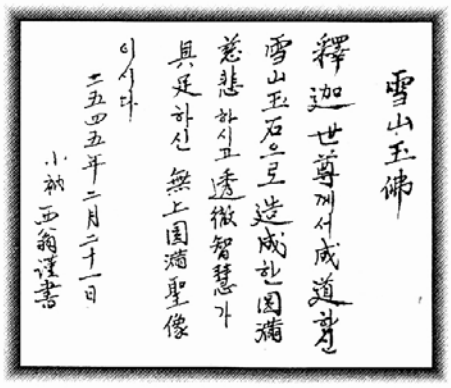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는 28일 오전 9시 30분 강화도민체육관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김영재(경희의료원 안과 전문의) 씨를 비롯해 내과, 치과, 한의과 의사와 간호사 등 40여 의료봉사단을 구성했다. 또한 무료진료소를 찾을 환자들에게 선물할 합장주도 마련했다.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중들에게 자비인술을 펼치고, 포교 효과도 거두겠다는 복안에서다. (011)317-5727 오종욱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봐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www.sayavatar.com 한서리버파크 911호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주천서



■ 고불송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염불염습 장례봉사 앞장

신행현장

백련선우회 이화수 부회장

17일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조리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2000여명분의 점심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잿빛 법복을 입은 한 보살이 눈에 띈다. 무우 껍질을 벗기고, 파를 다듬고, 국그릇을 옮기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화수 보살. 언뜻 50대 중반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노보살이다.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이 보살은 자신도 노인이면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즐겁게 하고 있다. 손이 떨려 식판을 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 준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자원봉사는 다른 보시행 가운데 하나, 즉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보살은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군법당,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어려운 사찰과 복지시설들, 소년소녀 가장의 집 등 소외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특히 이 보살이 주력하는 봉사활동은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과 일원동 삼성의료원, 인연닿는 상가집에서 펼쳐진다. 무연고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 돈이 없는 환자나 고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케어, 염불기도, 장례봉사 등이 그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마친 이 보살은 함께 온 이경순, 김옥연, 임순덕, 김민숙, 배경민 보살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충동 백련선우회 사무실로 향했다. 보다 어려운 보시행인 장례봉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임종에서 다비까지 진행되는 불교장례식은 죽은 시신을 염할 때 나오는 악취와 분비물 등 전문적인 훈련과 웬만한 신심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자원봉사이기 때문이다.



◇백련선우회 강의실에서 염습실습을 하고있는 이화수 보살(맨 오른쪽).

군법당으로 영안실로 6년동안 매일 봉사활동 "염습서 무상도리 배워요"

장례봉사 교육은 임종기도로부터 시작됐다. 가족의 평안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염불기도, 고인의 몸을 반듯하게 모시는 수시(收屍), 법사의 염불염습에 맞춰 정성껏 몸을 닦아 수의를 입혀주는 염습(殮襲), 목관에 고인을 모시는 입관(入棺), 상가에서 장지로 출발하는 발인(發靷), 화장장에서의 다비(茶毘) 또는 매장, 납골안치 및 위패봉안까지 불교식 장례의 모든 것을 차례차례 습득시켰다.

"장례봉사에서 영가와 상주와 한 마음이 되어 시신 한번 거두어 보면 절에 몇 년 다닌 것과 같은 공부 효과가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산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보살은 장례봉사를 통해 불자들이 불교의 생사관(生死觀)과 무상관(無常觀)을 저절로 깨닫게 되어 불교 공부가 일취월장하게 된다고 체험담을 이야기 했다. 처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젊은 영가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의 생생한 환희심, 영안실에서 장의사로 취급받고 수모를 당했을 때의 하심공부,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가 원래 없는 것임을 관할 때의 마음자리, 영가가 눈에 보일 때 법성계를 외우며 보이지 않게 하던 일 등 무궁무진한 공부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보살이 장례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7년전. 조계사의 독실한 신도였던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임종하자 장례의식이 철저하게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어 충격을 받은 것. 이 때부터 이 보살은 장례의식을 직접 배워 96년 6월 백련선우회(회장 성태용)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웃 종교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교가 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지 못한다"는 이화수 보살은 여생을 불교 장례문화 보급을 위해 바치겠다는 원력을 내비쳤다. (011)9035-7166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역경계'를 스승 삼으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내가 수억겁 전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알고 보면 모든 경계는 거짓 자기 때문이다. '나' '나의 것' 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펄펄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라. 어차피 닥친 것, 의연히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애써 마음 속에 담아놓고 괴로워할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역경계에 부딪쳤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가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그것이 곧 중생심이다. 반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면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고로 순경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더라도 껄껄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연히 흘려 보낸다. 닥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에 응대함은 어찌 이리도 다른가. 실로 수행자의 경지는 경계에 닥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신기루처럼 일어난 것이다. 흰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인과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중생은 부처 될 수 있어요"



법현스님 천중사 주지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성북경찰서 불자회원 여러분들이 이곳 천중사에 찾아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항상 민생치안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합니다.

꿈을 먹고 자라나는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 애벌레는 늘 일어나서 먹고 놀다가 자고… 하는 단조로움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고, 먹고, 자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외문을 해결하지 못하자 남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르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풀무닉 애벌레를 만났는데 묘하게도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모퉁이로 가서 보금자리를 틀고

서로가 이롭게 하며 깨달음의 길 가도록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에게 집착하게 되어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 했겠죠 그래서 서로 헤어져 애벌레는 잊었던 목표점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딘지 본 듯한 얼굴이여서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온 거예요. 그 나비가 이끄는 대로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실을 뽑아 자신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고 무섭고 캄캄한 나날들을 견디었지요.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쬐던 어느 날, 그도 껍질을 벗고 손발을 움직이니 예쁜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힘차게 웃음 짓고 있는 벌판으로 날아가 이 꽃 저 꽃 사이를 다니며 맛있게 꿀을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답니다. 애벌레가 길을 가는 것도 애벌레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요?

트리나 포올러스 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예요. 애벌레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은 이를테면 인생을 살아가거나 출가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길을 가면서 다른 이에게 물어도 정답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삶의 의미라거나 깨달음은 누가 알려주어서는 알 수는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가 만나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싫어졌다는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채웠을 뿐이라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인생을 달관한 목표를 이룩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을 주는 일이예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 불교말로 중생이라 할 수 있는 꽃들에게. 무슨 희망이냐고요? 그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 즉 씨앗들은 열매를 맺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 깨달은 사람(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요. 또 중요한 것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 중에 뒷다리에 달린 털로는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의 대궁이에 묻혀주는 수분까지 해준다는 사실이예요. 나비가 꿀만 빨아먹고 수분은 안 한다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죠.

나비가 수분만 해주고 꿀을 먹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비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고 남도 부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행 캘린더

10월 25일 (목)

■만일염불 회향법회=강원도 고성 건봉사는 오전 10시 설산 스님의 만일염불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15

■통도사 개산대재=통도사는 오전 10시 창건 1356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182

10월 26일 (금)

■한탑스님 초청 특별법회=보현불교회관은 오후 7시 보현불교대학 법당에서 문사수법회 회주 한탑 스님(정토사 주지)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한방요법 교육=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3일까지 한방요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화 금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손에서 인체 따주기' '오행으로 본 인체 따주기' 등으로 진행된다. (02)723-5101

■티베트 영화 무료상영=티베트 후원 모임 후리 티베트(FREE TIBET)는 오후 3시 30분 신촌 문화카페 민들레 영토 신관 4층에서 티베트 관련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02)363-6339

10월 27일 (토)

■미황사 산사음악회=전남 해남 미황사는 오후 5시 대웅전 앞에서 진유림(법고), 김세화(섹스폰) 김광복(태평소)등 지역출신 음악인들 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61)533-3521

10월 28일 (일)

■마애사 범종타종 법회=경남 함양 마애사는 오전 11시 범종타종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이어 '가을맞이 산사 열린 음악회' 도 열린다. (055)584-5114

■아제아제 하루찻집=불교문화답사 모임 아제아제는 광주 금남로 전통찻집 솟대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찻집을 연다. (062)226-3868

10월 30일 (화)

■5백나한 봉안법회=제주도 서귀포 약천사는 31일까지 '나한전 5백 나한 봉안법회와 국제가사불사' 를 봉행한다. (064)738-5000

10월 31일 (수)

■불로사 어린이합창단 공연=경남 구미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합창단은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을 위한 비천의 소리' 를 주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054)453-7424

탈 종 공 고

흥덕사	자운	천수암	관음행
연실사	성진	삼보약수암	정현
자연암	자연	약사암	나숙자
보운정사	도우	갑성사	법륜
화엄선원	혜공	견성암	종안
용두사	혜성	영신암	의연
불광정사	선우	보현사	법선(홍순자)
		견성암	대공(채성아)

귀 종단의 종풍 종지가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24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가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7. 마니교와 대승비불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치열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구원을 모색했던 마니교는 소멸되어버린 고대 종교다. 마니케우스(215~276)에 의해 창시된 마니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모태로 성립된 종교로서 서방에서는 기독교, 동방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차용하여 10세기 이후까지 존속했다.

유명한 교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354~430)도 이 마니교의 신자였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독교의 경쟁상대였으나 4, 5세기경 기독교 측의 냉혹한 박해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통해 전해진 동방의 마니교는, -불교의 옷을 입고 불교를 가장하긴 했지만- 중세말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불교의 옷을 입은 이 고대종교의 전모는 1900년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해서 밝혀진다. 즉 영국의 스타인이 수집한 문서 2659a번 〈마니교하부찬(摩尼敎下部讚)〉과 3969번 〈마니광불교법의략(摩尼光佛敎法儀略)〉 등이 불교화된 마니교의 실

마니불계통 佛名 등
불교화된 흔적 '곳곳'

체를 잘 보여준다. 특히 731년 당 현종의 명으로 마니교의 경전, 교리, 사원과 출가제도에 관해서 기록된 〈마니광불교법의략〉은 만약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들이 읽으면 마치 불교경전을 읽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교화되어 있다. 마니교도들은 이미 토착화된 중국불교의 옷을 빌려 입고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옷을 입고 불교를 가장한 마니교는 마침내 불교교단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통전(通典)〉 732년 7월에 조에 실린 한 조칙에서는 "본래 사견(邪見)인 마니교가 불교를 사칭하여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므로 마땅히 엄하게 금단시켜야 한다. 만약 서쪽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죄를 묻지 말라"고 적고 있다. 이후 마니교는 755~763년간 폭발한 당대 중국의 대반란, 안사(安史)의 난(亂) 이후 위구루 군대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한 당 왕실의 지지에 힘입어 중국 각지에 마니교의 사원, 즉 마니사가 세워진다. 그러나 당 무종에 의한 회창연간(842~845)의 불교탄압 때 마니교 또한 외래종교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소멸되기에 이른다.

불교화된 마니교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마니교 문서들이 현재 불교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수대장경〉의 제54권 외교부(外敎部)에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문서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불교가 아우르는 영역은 큰 것임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또 한 가지는 불교화된 마니교의 흔적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현재 지역과 절에 따라서는 〈천수경〉의 "환희장마니보적불, 제보당마니승광불…"과 같은 일련의 마니불계통의 불명은 독송하지 않는다. 옛부터 스님들은 이미 마니불 계통의 불명이 바로 불교화된 마니교의 흔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니교의 전적은 대부분 산실되어 버렸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마니 자신이 쓴 글과 마니교 성전이 발견되었다. 마니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23세경 인도를 여행하며 가르침을 설했고 후에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불교를 알고 있었으며 붓다, 예수, 조로아스터를 자신의 선구자로 여겼다. 마니는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니는 기독교도를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도를 비난한다. 즉 "불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다.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의 일부를 문자로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마니는 자신의 생존 기간 동안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가르침의 일부만을 전하여 제멋대로 해석할 것을 염려하여 유서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마니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에는 대승불교가 흥기하여 대승불교도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석존의 진정한 가르침이며 소승불교는 석존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승불교도들은 대승불교를 비불설(非佛說)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니는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비불설이라는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경학회 회주

열린 마음의 불교 토론문화

참불자의 길 — 대중공사(大衆公事)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할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그렇고, 가족간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또 친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때에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섣불리 자기 주장에만 집착해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또 함부로 말하거나 아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에서 행하는 방법이 바로 '대중공사(大衆公事)'다.

대중공사는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스스로 드러내 고백하는 참회의 절차인 포살(布薩)과 대중 앞에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어 지적하는 자자(自恣)를 그 근원으로 한다.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의식인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자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승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이같은 자자와 포살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것이 바로 대중공사다. 포살의식이 우기, 즉 안거를 제외한 기간동안에 행해졌다면, 자자의식은 우기, 즉 안거와 때를 맞춰 행해졌다. 반면 대중공사는 이같은 시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대중의 뜻을 모아 열 수 있다.

모든 대중이 큰 방에 모여 산중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중공사는 불교적 토론 문화의 한 형태라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대중이 한데 모인 까닭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거쳐, 명확한 논리로 전개되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대중공사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행했던 교화방법에 근거한다. 억지나 강요없이 비유와 설득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에게 중도의 길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화법이 오늘에 응용되어 정착된 것이다.

대중공사의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원의 교육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강원에서 사교 이상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경율론 삼장의 해석과

布薩-허물 스스로 고백
自恣-상대 허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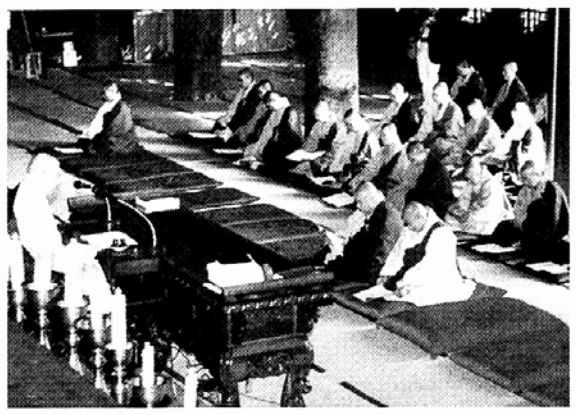
의미를 정립해 내가는 과정인 논강에서 주입식이 아닌, 토론을 통한 이해와 연구의 방법을 취한 것이다. 오늘의 대학원 수업과 비슷한 형태라 이해할 수 있는데, 스승과 제자, 도반과 도반 사이에 때로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부처님의 정법을 올곧게 이어나가려는 토론과정이다.

또한 본사의 주지 선출에서도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주지를 선출하는 대중공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대부분 산중 총회에서 경선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몇몇 사찰에서 이 대중공사의 전통을 이어 불교적 합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사찰의 갖가지 문제들을 결정할 때 사중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대중공사가 행해진다.

특히 공개재정을 실천하는 사찰의 신도회나 운영회에서 대중공사를 통해 절 살림을 공동으로 꾸려나가고 있으며, 산사 수련회나 불교단체등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중공사를 통해 여법한 결론을 끌어낸다.

이은자 기자



◇대중공사는 불교적 토론 문화의 한 형태로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공의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편이다.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㉞

종직각(宗直閣)에 대한 답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현사(玄沙)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가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사용하고 말하고 웃고 함에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요즈음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道理)를 깨닫지 못하고, 망녕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번뇌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며 만나는 물건마다에 묶여 버린다. 깨달음을 내버려 두니 티끌 경계에 어지럽게 뒤섞이며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에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들이며 색(色)을 끌어 잡아서 공(空)으로 돌리려 한다.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감추고는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이리 저리 부수어 제거하며,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막아서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空無)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다. 캄캄하고 막막하여 느낌도 없고, 알음알이도 없는 것이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과 같아서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에 하는 말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병이며, 묵조(默照)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망상(妄想)을 놓는 것이라고 여긴다. 망상을 놓으면 진성(眞性)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긴장하여 한 순간이라도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그 생각을 눌러버리는 일에 몰두한다. 생각이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게 마련이니,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한 순간도 쉼이 없다. 그리하여 항상 캄캄하고 막막하여 아무 알음알이나 느낌도 없는 것을 공부가 잘 된다고 여기고, 이러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색(色)을 버리고 공(空)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행위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이른바 취사간택(取捨揀擇)일 뿐이고, 공부라고는 할 수 없다. 버리고 취하는 일은 이미 사량분별의 일이기 때문이다.

바른 이치로 말하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므로, 색을 버리면 동시에 공도 버려진다. 따라서 색을 버리고 공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망상(妄想)을 버리고 진성(眞性)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삿됨을 버리고 바름을 드러낼 수도 없다. 실제로는 색을 통하여 공이 드러나니 색 속에서 공을 보며, 망상을 통하여 진성이 드러나니 망상 속에서 진성을 보며, 삿됨을 통하여 바름이 드러나니 삿됨 속에서 바름을 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색이니 공이니 망상이니 진성이니 삿됨이니 바름이니 하고 분별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색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망상도 만들고 진성도 만들고 삿됨도 만들고 바름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색도 '그것'의 작용이고, 공도 '그것'의 작용이고 망상도 '그것'의 작용이고, 진성도 '그것'의 작용이고, 삿됨도 '그것'의 작용이고 바름도 '그것'의 작용이다.

나아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걷고 앉고 눕고 잠자고 깨어 있는 것이 모두 '그것'의 작용이며,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고 비가 오고 나무가 자라고 물이 흐르고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나는 것이 모두 '그것'의 작용이다.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작용인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버린다는 생각도 '그것'의 작용이고, 취한다는 생각도 '그것'의 작용이며, 버리는 행위도 '그것'의 작용이고, 취하는 행위도 '그것'의 작용이다. 이 모든 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작용으로 드러나는 삼라만상의 세계를 '그것'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바로 망상(妄想)이 되고 망어(妄語)가 되니 지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면 다만 '그것'일 뿐, 생각으로나 말로 확인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생각과 말로 확인하려고 하면 바로 둘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http://www.mindfree.net/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3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가능
	4년	■통신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2.학교연혁

1987.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 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12명 취득
94. 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14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6. 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95% 자격취득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1년 11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02)511-2026~8
FAX.511-1080
· 일본동경분교 : 03-3200-1013
· 부산분교 : (051)322-32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10월 30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한의사 과정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9월 입학)
석사·박사 악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사진 5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71 팩스 : 25-679816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주요 연수 내용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기 간 : 11월 9일~15일(6박7일)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高級課程 結業 證明書)
■인 원 : 각 10명 선착순
■출발일 : 2001년11월19일 예정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

이렇게 들었다

방송의 종교왜곡

"화합 깨는 악행 말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자신의 일에 태만하며 편하게 살지 말라. 비록 고생을 할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다섯 가지 역죄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자신의 직무에 태만한 일이다. 이런 것을 오역이라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십륜경>

인천방송이 17일 방영한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는 시청자들이 체험한 불가사의한 일이나 영적 체험에 대한 수기를 극으로 꾸민 프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님과 불교를 왜곡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던 어느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아주머니의 딸이 귀신이 있다고 울먹이며 괴로워 하고 있었다. 놀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병원으로 옮기지만 병원에 들어서자, 그녀의 몸속에서 소리를 지르던 할머니의 혼령은 병원에서 나가면 그녀의 몸속에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녀의 몸속에 들어 있는 혼령을 본 스님과 무당이 겁을 내며 혼비백산해 도망갔다. 하지만 신부가 십자가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하자 편안히 잠드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제보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내용이다. 프로그램의 속성상 흥미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님을 귀신에 쫓겨 도망가는 성직자답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님이 도망가는 장면 뒤에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에게 평정을 되찾게 해주는 장면을 구성해, 마치 신부가 스님보다 훨씬 영적이고, 가톨릭이 불교보다 우월한 종교라는 인상마저 심어주었다. 명백한 불교 폄하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면, 중생심을 잊고 타락의 늪에 빠져 들게 된다"며 올바른 생각과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TV 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보는 대중매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작진의 작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다. TV뉴스시간마다 방영되는 테러전쟁을 인천방송 제작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시청하는지 묻고싶다.

김주일기자

땅에 떨어진 동방예의지국의 위신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조상 섬기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지만, 알고 보면 귀신 숭배다. 정녕 숭배해야 할 자기 조상과 역사 속의 어른들의 정신은 다가서기 어려운 산속으로 내몰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거니는 서울 거리에서 유관순을 볼 수 없다. 안중근 의사, 외솔 선생, 백범 선생도 우리 가까이에 없다.

처방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먼저 역사 속의 어른들의 정신을 존경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일(忌日)에 제사만 지내고 잊어버려도 좋은 그런 곳에 모시지 말자.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엄숙한 제단에 모시지 말자. 산 속에 유폐된 무수히 많은 저 어른들의 정신을 백화점 입구에, 지하철역에, 버스정거장 앞에 모시고 더불어 살자.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 어른 존경심
아·태지역 중 꼴찌
어른부터 모범보여야

우리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가 나왔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17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17%만이 어른을 존경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밀성의 공간이 협소해지고, 더욱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과 정보사회로 인한 개인의 파편화 분절화 등 다문화주의적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사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꼴찌가 아니라, 평균치 72%에 비교하면 너무나 심각한 꼴찌라는데 있다. 왜 그럴까? 선생님 말씀보다는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종교적 메시지보다는 생명공학 기술을 신뢰하며, 진지한 지식인의 자세보다는 신지식인의 코미디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존경 없음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 아닐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권위는 신분사회적 유물로 매도되고, 전통은 보스와 일맥상통하는 악이다. 현대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진보고 선이라는 야단적인 이분법이 별다른 저항없이 관철된다.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편싸움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어른들을 존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면 우리 사회의 이런 저런 청소년 단체는 충효사상·국가관 교육 등의 중요성을 외치며, 정신은 없고, 구호만 남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일 것이다. 색깔논쟁에 여념이 없던 신문은 '청소년 문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처방을 기사화할 것이고, 저녁마다, 주말 내내 웃기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멍청하게 만들기에 앞장서던 TV는 근엄한 자세로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이다(그것도 청소년들이 안보는 시간에).

서양어의 '리스펙트'는 '다시 본다'는 뜻이다. 어원에서 보듯이 존경심이란 타인의 개성을 주목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싫듯이, 존경은 신뢰에서 나온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만 하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깡패와도 손잡는 세상에 무슨 염치로 아이들에게 '리스펙트하라~!'고 말할 것인가?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조상들을 끌어안고 산다. 마을의 중심에는 동상이 있고, 후손들은 늘 동상과 함께 산다. 우리 민족은

열 린 마 당

원주경찰서 불상봉안 반대

원주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지난 14일 원주경찰서내 경승실에 봉안된 불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불교계는 원주시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상 봉안의 적법성을 이해시키고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묵빈대처(默擯對處)'식의 대응보다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두 입장을 들어본다.

"기독교계 자제 종교갈등 막자"



현각스님 〈종교화합 원주비대위 대변인〉

경찰서 내에 있는 경승실은 경찰불자들과 스님들이 신행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공간이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경승실내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자유롭게 법회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불상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독교계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승실내에서의 종교적인 자유는 엄연히 경찰 예규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찰청 예규 제267호 제5조(직무)에 따르면 '경승, 경목 등은 소속 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고,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불상철거는 이러한 경찰청 예규를 잘못 해석한데에 따른 것이다. 굳이 이런 예규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국 경승실중 54곳에 이미 불상이 봉안돼 있으며, 경목실 58곳에도 십자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기독교계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딪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강경대응은 자칫 종교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성철스님께서는 "교회에서 염불소리가 나고 법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 하셨다. 각자 종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상호존중의 미덕을 갖추는 것이 21세기를 화해의 시대로 이끄는 길이다. 원주 기독교계는 불상철거 주장이 경찰청 예규에 대한 종교의식간의 오해로 비롯된 문제임을 직시해 자칫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게 자제하기를 당부한다.

"불교 모독 행위…강력 대처를"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기독교계의 원주 경찰서 불상 철거 주장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불상 봉안이 기독교계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철거를 운운하는 것은 불교계를 모독하는 행위다. 또 경찰서 내에 경승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목실도 똑같이 마련돼 있는데 불상을 봉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종교 편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교계는 계속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현재 원주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가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후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포교원 등 교계의 여러 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강경한 논조의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원주비상대책위의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지침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향후 또 일어났을 때 빠르게 응집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런 결집은 불교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범종단 차원에서 종교편향문제만을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한두 사람의 힘 만으로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응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온건한 대처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교를 폄하하는 잘못된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고하게 대처해야 한다. 범 종단 차원에서 '불상 철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불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도 언론지상을 통해 진상을 알려 기족교계의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인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기고

"대학 도서관 시험공부방 전락 古典엔 먼지만"



김종철
동국대 도서관 과장

대학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다. 그래서인지 그 중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곳이 도서관이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도서관에 발걸음을 끊어 버린다.

도서관은 고전이나 심오한 학술서 뿐 아니라 최신 문학 작품,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읽을거리들을 모아둔 곳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은 드물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의 잘못 때문이다.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인 암기 실력만을 평가한다. 그러니 학생들은 벼락치기 시험공부로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다. 평소 수업 시간에 토론을 많이 하고, 평가도 그 학생의 발표력과 이해의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벼락치기 시험공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에 먼지가 뽀얗게 앉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해마다 가을 독서 주간에 다독자 2명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책들은 감각적이고 가벼운 읽을거리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N세대라고 해서 만화와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와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도 흥미위주의 것들이 많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오는 25일까지 '불교관련도서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한다. 작은 행사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여 어릴 때부터 좋은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책 읽지 않는 국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책 읽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봉 시흥 소래산 마애불상 보물지정 국태민안 시연 대법회 축



시흥 소래산 보물 제1324 호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 후 원 : 시흥시청, 시흥사암연합회, 삼각산도선사, 경인방송
■ 행사일시 : 2001년 11 월 4 일 (일요일.음 9월19일)
■ 행사문의 : (031) 313-2993, (031) 404-0707 ~ 9
■ 행사장소 : 시흥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지

국가문화재 보물 제1324호기념 영산대제! 님을초대합니다

법 어 서암(西庵) 前종정예하
추 진 위 한국 마사회 윤영호 회장
스위스관광호텔 윤상림 회장
김의계 교수(한양대학교)
정룡사 조실 진혜명 스님
삼각산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정룡사 주지 삼보스님
큰 스 님 차동광스님 혜덕스님 법공스님
인봉스님 보명스님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총 신도회
시흥시 사암 연합회
대한불교 연예인 자비회
정룡사 총 신도회
시흥시청

마애여래부처님의 유래

시흥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신라 무열왕 660년에 중국 산동성의 래주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여 소래산을 보니, 산의 氣道가 비범하여 서기 가득한 장군바위에 마애불을 모시고 그 옆터 북동쪽 300m 지점에 曉日寺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로부터 소래산이 소정방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학자 권상로박사의 한국사찰전서 효일사조에서 부기하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뒤받침 해주고 있다.

마애여래부처님의 영험담

소래산 마애보살은 영험하여 이곳에서 祈禱하여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近來 어떤 巫女는 이곳에서 기도하여 북한 김일성의 죽음을 미리 알았으며, 부도 직전의 사업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부도를 모면 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번창한 사람이 있으며, 노 보살님 한분은 이곳에서 기도하여 아들이 대령으로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6.25전란 당시 영국군 캘러부대가 이 앞의 방아다리에 주둔중 105mm 곡사포를 여섯 발을 쏘았으나, 신기하게도 마애보살님의 상호를 피해서 맞은 흔적으로 크나큰 위신력을 보이시니,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에 오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마애보살이 여기 소래산 장군바위에 마애보살님으로 세간에 출현하심이니, 이는 보고 경배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그 공덕이 항하사겁이 지나도록 다하여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서, 자식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니, 보고 들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우러러 예불하여 인간과 천상에 이익이 무량하게 합시다.

동참문(同參文)

천년 전부터 계시던 마애보살님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험하고 영험하신 마애보살님의 원력 가피력으로 국가보물제1324호로 지정 받아 기념 봉축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애보살님을 모시던 효일사의 "중창복원불사"는 여러 단체들의 개입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저희 "천년고찰 효일사 중창복원 위원회"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동참하겠다는 본인 의사와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등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2001년 10월 27일 까지 동참한 분들께는 행사 초청장과 2002년도 달력을 우송해 드리며,
2001년 11월 4일 행사이후 동참한 불자님들께는 마애보살님 보물지정 기념 2002년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9-84번지
② 팩 스 : 031-311-4717
③ 이메일 : bigsambo@hanmail.net

사·부·대·중

불교시민운동 10년



노귀남
경희대 겸임교수

1991년 경불련이 기수가 되어 대사회 참여를 호소하고, 기금마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썼다. 그런 성과들이 노인무료급식, 실직노숙자 자활 대책,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국제구호사업에까지 이어졌다. 10년동안 불교계 시민운동의 영역은 다양화 전문화 되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소속으로 50여개의 사회 시민단체가 있다. 지방의 군소 조직까지 셈하면 수백에 이를 것이다.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어떤 비전에서 오늘의 불교시민운동을 평가할 것이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지, 거기에 결합한 인적자원의 질과 미래는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해 생각하면 캄캄해진다. 이 질문은 내 모습이기도 하다. 10년의 발전이 무엇이고, 후대에 어떤 모범이 될지, 그동안의 인재불사를 재대로 못한 것에 뒤늦게 반성이 된다. 나는 후생에 떠밀려 거저 선생이 되었으니 배움이 없었고 가르칠 수 없다. 후생은 물어오지 않는다. 사람을 기르고, 관리하고, 아끼지 않았고 재목을 몰라보는 경우도 많아 함께 해도 억지가 많았다. 하는 일만 옳다고 생각했지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고 진두(陳頭)에서 조망한 나는 '하늘'을 못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내리보기만 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만이었다. 배운다고 했지만 배운 것이 없었다.

문득 하늘을 우러러 보며, 낮은 곳에서의 진리를 공부하지 못했음을 비로소 절감한다. 가난한 이웃에게 밥을 주고 북녘으로 쌀을 보내는 등 십시일반 거든 바는 있지만, 낮은 곳에서 우러러 본 적이 없었다. 이 문제를 철학으로, 교육정신으로 승화시켜 불교시민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선진 문명에 뒤지고 돈이 없어 고난이 되는 시대, 지식과 돈이 계층의 차별을 낳는 모순을 어떻게 벗어야 할까. 낮은 곳에서 일구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진짜를 얻는다.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본다.

목탁소리

큰 스님들의 '침묵'

한 명 우(취재1부 기자)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공습, 탄저균 공포 등 피의 악순환을 진정시킬 혜안을 구해보기 위해서 큰 스님들에게 전화질문을 드렸다. 질문 내용은, 해결 가능성은 바늘구멍만 해지고, 전쟁은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 4명이 동원돼 하루종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일부 스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님들이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답변을 일부 소개하면 이렇다.

'업이야. 스스로들 지은 업인데 내가 뭘 얘기해." "화합하라고 해서 되겠나, 대자연에 놔두고 보는 거지." "중생세계는 싸우는 세계야. 자기종교가 옳다고 고집하니까 싸우게 되지."

시자 스님으로부터 큰 스님과 통화 자체를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왜 묻느냐"는 항의 아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봄가에 '양구(良久)'라는 말이 있다. '잠시 아무말 없이 침묵한다'는 뜻으로, 보통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을 때 스승이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 스님들은 질문의 절반도 하기 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들의 '침묵'을 '양구'라고 여기기에는 무리였다. 백번 양보해 '양구일설(良口一舌:말은 다르나 의미는 같음)'이라고 여기고 싶어도 개운치 않다.

중생이 불타는 집에 갇혀 있는데, 갖은 방편을 써서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불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큰스님들을 사표(師表)로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슬람 기독교 불교인 모두가 길벗"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현각 스님 VS 오강남 교수

영주 천정사 주지 加 리자이나대 종교학과



◇세상 사람들은 현각스님과 오강남교수를 승려와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15일 현정사에서 다담(茶談)을 나눈 두사람은 그러한 분별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미국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된 현각 스님과,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비교종교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오강남 교수가 만났다. 지난 15일, 현각 스님이 바람소리를 벗삼고 있는 경북 영주 현정사에서. 30대 중반의 눈푸른 서양 납자와 25년간 종교를 연구해 온 60대 초반의 학자는, 첫 만남이었음에도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는 없다'고 말하는 오 교수와 '부처는 없다'는 현각 스님의 현실적인 입지는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가르침처럼 두 사람은 진정한 '도반'이었고, 진리를 향한 '길벗'이었다.



현각 스님

- 미국 예일대에서 서양철학과 문학 전공.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과 하버드대학원에서 종교철학 공부.
- 1990년 하버드대학원 종교학과 재학중 숭산스님의 강연 듣고 91년 출가.
- 98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만행〉 출간.
- 현재 경북 영주 현정사 주지.

언어 감옥에 갇히면 부처님의 마음 제대로 못 봐요

오강남:스님의 책 〈만행〉을 읽으면서 스님의 이야기야말로 기독교와 불교가 한 개인 속에서 조화롭게 녹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각:좋은 사람으로 잘 살려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현각'입니다. 지금 차 마시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강남: 저는 한국말로 예수님을 '울타리를 없애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나 넘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울타리를 만들곤 합니다. 서로를 분별하고, 나누고 하는 의식들이 문제인데 스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부디스트 크리스천', '크리스천 부디스트,'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종교학회 회장 윌리엄 스마트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좋아하고, 동시에 불교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스님의 책 〈만행〉을 영어로 출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각:그 책은 한국 사람을 위해 쓴 겁니다. 한국말 배워서 읽으면 더 좋겠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구 다하듯 편한 마음으로 〈만행〉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오강남: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를 보고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누님들조차 길잃은 막내 동생의 영혼이 어디로 갈 지 걱정이시지요. 하지만 또 한편에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도 많아요.

현각:한 8년 전에 해인사에서 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한문을 모르고,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스님들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스님, 부처님은 한 자 몇 개 알았습니까?"하고요. 그 스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나오신 생명이라고 말씀하더군요. 절집에서조차도 아직 이렇게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만약에 책을 더 내면 '부처는 없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교수님이 〈예수는 없다〉를 먼저 내셔서 제목을 다시 생각해봐야 겠습니다.(웃음)

오강남:선반 위에 진리가 놓여 있더라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이 제 것으로 삼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각:만약에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다면, 모든 강원에서 〈성경〉을 기초교육서로 읽도록 할 겁니다. 한국 스님들은 예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서로를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갈등은 없겠지요.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오강남:틱낫한 스님은 부처님 모시듯이 예수님도 모신다고 하더군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 전통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기독교 전통으로, 불교인을 만나면 불교 전통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각:미국에서 폭발 테러사건이 일어나던 날 나는, 뉴욕 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 놀랐고,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도, 이슬람인도, 불교인도 모두 다 한 생명입니다.

오강남:지금의 미국 테러 사건처럼 서로 싸우는 이런 상황들이 종교적인 문제라고만 보기는 힘들지만, 종교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몫을 다한다는 것은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저는 진리를 찾아 함께 나가는 '길벗'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길벗은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 종교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요. 무언가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미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다 길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각 스님도 길벗으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강남 교수

- 1970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76년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취득.
- 80년부터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
- 지난 5월 〈예수는 없다〉 출간.
- 11월 5일까지 한국의 서울대와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서 강의.

'나만 옳다' 주장말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다툼없는 세상 열려

현각:우리는 오늘 기독교인과 불교인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을 떠난, 생명 그 자체, 자연인 오강남과 현각으로 만난 겁니다. 생명 그 자체로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 지겠지요. 훌륭한 도반을 만나게 되어 저 또한 너무나 기쁩니다. 계다가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찾아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주=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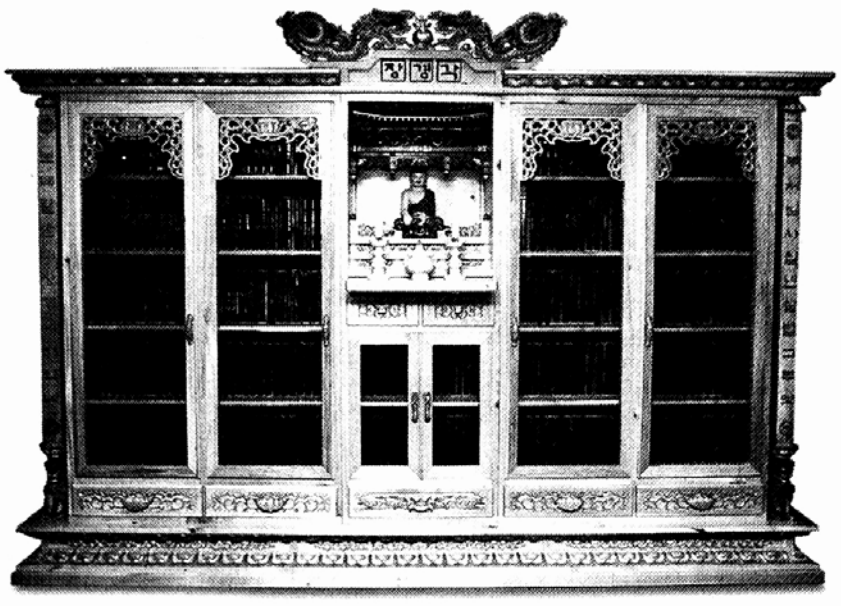
현대불교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㉙

선재 동자의 수행은 계속 이어져, 승열(勝熱) 바라문에게 찾아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投身火聚)'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수행을 거치는 등 54분의 선지식에게 각기 다른 해탈문 곧 '성불하는 수행법'을 배운다. 이런 방식은 첫 품인 세주묘엄품에서도 본 적이 있다. 세주품에서 모두 425개의 해탈문을 미리 보여 주었다면, 입법계품에서는 54가지 법문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살의 수행계위에 의거하여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수행을 쌓아 가서는 마지막에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 장엄 누각에서 미륵보살에게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彈指一彈之頃)에 앞에서 배운 여러 법문들을 모두 잊고 삼매에서 일어나니 누각의 장엄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도록 권하고 있다. '얻었다는 망상(有所得心)'을 없애야만 바른 수행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 내용으로 이해하자.

"그 때 선재 동자는 공경하여 미륵보살 마하살을 오른쪽으로 돌고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께서 이 누각 문을 열어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때 미륵보살이 누각에 나아가 손가락을 퉁겨 소리를 내니 문이 열리고, 선재에게 들어가라 하니 선재 동자는 기뻐서 들어갔으며, 문은 곧 닫혔다."

여기서 선재 동자는 세 세상(三世)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하는 창고의 해탈문(不忘念智莊嚴藏解脫)'을 얻는다. 미륵보살은, '보살들은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온다. 다니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온다(無來無去 如是而來 無行無住 如是而來)'고 말씀하였다.

법문을 듣고 선재 동자는 다시 미륵보살의 지시로 "점점 나아가 일백 일십 여성을 지나서 보문(普門)국의 소마나성에 이르러서는,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수사리를 생각하고 따라 관찰하고 두루 찾으며 뵈옵기를 희망하였다."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간 것이다. 이것은 수행에 나선 중생이 불법의 본원에 가까워진 것이니 곧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의 지위'에 오른 것을 뜻하며,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같아짐을 밝힌 것이리라.

이런 장면을, 〈서장(書狀)〉에서 대혜 선사(1089~1163)는, "보지 못했는가. 선재 동자가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 번 퉁기는 겨를에 문득 앞의 선지식에게 배운 모든 법문을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보살의 지시대로 문수보살을 뵈러 하였는데,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 팔을 뻗쳐 110유순을 지나 선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남자여, 만일 믿음의 뿌리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공(功) 닦는 행이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떨어져서 한 착한 뿌리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도 만족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했을 것이리라' (不見 善財童子 末後於彈指一彈指頃 …善哉善哉 善男子 若離信根 心劣憂悔 功行不具 退失精勤 於一善根 心生住著 於少功德 便以爲足 不能善巧發起行願 不爲善知識之所攝護)." (答曾開狀 참조)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강원 시절 필자가 눈병이 날 정도로 읽고 또 읽으며 초발심을 다지던 구절이다. 이처럼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맑은 신심과 용솟음치는 깨달음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양이다.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얻었다는 망상 버려야 참수행

믿음의 뿌리 튼튼해야 행원 일으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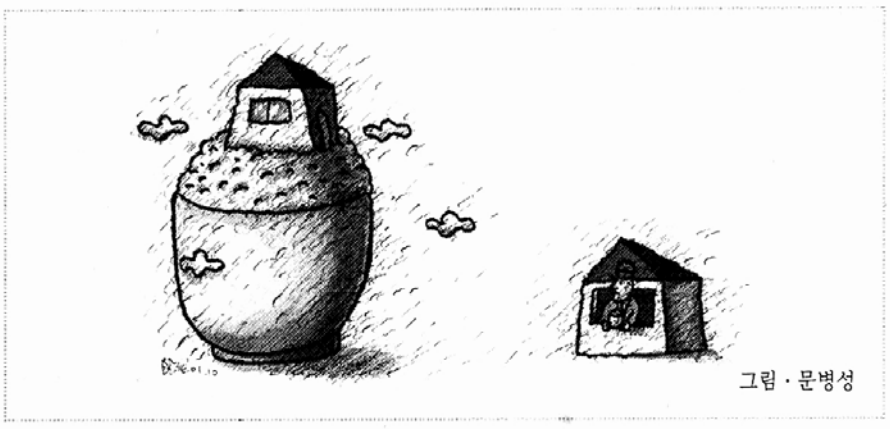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별의 일생은 무심·무념·무욕



이시우 박사가 쓰는

별과 우주 ❶

탄생과 양식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항상 경이로움을 느낀다. "저 별도 나와 같이 살아있을까?" "저 별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지며 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들이다. 만약 별들도 우리처럼 살아간다면 그들도 탄생의 시기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별이 탄생하고, 또 늙고 죽어간다.

별들과 별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 하고 이것의 큰 집단을 성운이라 한다. 성간 물질은 90%의 가스와 10%의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 티끌의 크기는 10만분의 1cm로 아주 작지만 전기적 성질을 띤다. 그것은 주위의 가스 분자들을 흡착시켜 티끌을 키우는 촉매역할을 한다. 티끌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서로 끌어당기고 결합하며 성장해 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운은 점차 중심 쪽으로 수축하는데 이를 '중력 수축'이라 한다.

삶이 곧 苦라지만
취함이 과하지 않으면
빛나는 삶의 길

성운의 중력 수축이 초기에는 천천히 진행하지만 성운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에 있는 물질에 미치는 인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중력 수축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성운물질이 중앙으로 모여들게 된다. 이러한 수축과정이 어느 시기에 이르면 마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 매우 빠른 속도로 수축하는 중력 붕괴가 일어난다. 이때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천만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되면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수소 핵 융합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핵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면서 별의 탄생을 알린다.

별은 태어날 때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나온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양식이 더 많으며 또 살아가면서 먹는 메뉴(핵 반응의 종류)도 더 많다. 때문에 별은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른 별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따위는 저지르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것만을 먹으면서(빛을 내면서) 일생을 무심, 무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 기원전 8~3세기에 쓰여진 우파니샤드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음식에서 생물이 생겨났다. 땅에서 사는 생물은 어떤 것이든 음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니 생이 끝날 때 다시 음식으로 들아가 잠기노라." "숨(息)은 음식에서 나온 즙(핵심)이요, 마음은 숨에서 나온 즙이며, 지혜는 마음에서 나온 즙이요, 환희는 지혜에서 나온 즙이로다." 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표현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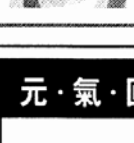
빈손으로 세상에 나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것을 찾는다. 인간뿐이랴 ! 동물 또한 인간처럼 빈손으로 태어나 외부로부터 양식을 구하고 또 이에 의존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러니 "음식을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고(苦)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다른 동물과 달리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무명에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혹(惑:무명, 취, 애), 업(業:행, 유), 고(苦:식, 명색, 6처, 촉, 수, 생, 로, 사)의 삼도(三道)를 통해 생사유전의 인과를 나타내는 12연기가 나오게 된다. 별은 자신의 양식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거나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양식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살림살이는 남에게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苦)의 과정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두고, 부모를 봉양하는 인연줄을 가진 입장에서는 양식의 획득에 따른 고(苦)의 과정이 홀로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 취함이 알맞고 과하지 않으며 가능한 적게 가질수록 남에게 돌아가는 양식의 몫이 많아지니, 지나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이야말로 참으로 빛나는 삶의 길일 것이다.

별과 마찬가지로 결국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갈 인간이지만 삶의 과정은 별과 달리 복잡하고 별나 보인다. 이것을 인간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이라고 부른다.

짐승들은 먹을 만큼의 양식을 취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아귀다툼을 벌이며 남을 해치고 적을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별'을 닮을 수 있을까. 나와 남 사이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고받음의 원리만이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참 삶의 도리가 아닐까.



이시우 박사는 1938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호주 국립대학교를 졸업(천문학 박사)했다. 경북대와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별과 인간의 일생〉 〈태양계 천문학〉 〈은하계의 형성과 진화〉 〈천문관측 및 분석〉 〈동막대기〉(시집)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참나' 찾는 아이들

지구촌 불교 / 美 산라파엘 현장학습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의 파타고니아(Patagonia) 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배우자'라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현장학습은, 아이들이 하루 동안 문명을 등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를 찾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학습은 한주동안 참가신청을 접수해 실시되는데, 일요일 새벽에 스쿨버스가 참가 신청을 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탑승이 완료되면, 스쿨버스는 애리조나 사막 인근에 있는 산 라파엘(San Rafael) 계곡으로 이동한다. 이때가 오전 10시 경.

파타고니아 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 라파엘 계곡은 메마른 땅에서 야생 배나무와 덤불식물, 선인장 등이 자라는 삭막한 곳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아이들 대부분은 월 1회나 2, 3회 정도 이 곳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G.그린리프 선생과 함께 덤불을 채취한 아이들.

해 · 달 · 동식물 관찰 둘 아닌 도리 체득
'불교' 내세우지 않은 불교교육의 장

현장학습은 질문과 관찰로 진행된다. 우선 아이들은 앞서 방문했던 때와 비교해 계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 온도를 측정하고 풍광을 스케치하며, 우량계의 눈금과 태양과 달의 위치를 살피고, 동물의 이동 흔적을 찾아 추적한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험하고 발견한 것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그룹 토론 시간에 발표한다.

3년 전 이 프로그램을 파타고니아 교육청에 제안해, 현재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레일 그린리프(Gail Greenleaf) 씨는 "아이들이 자신과 자연의 존재를 견주어 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자연은 서로 긴밀한 관계임을 깨닫고 '둘이 아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데 첫 의도가 있다"며 "아이들이 이 곳에서 배운 지혜를 현실 속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그린리프 씨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편성하는 학급의 이름을 집(Home), 이웃(Neighbor), 친구(Friend), 일상(Daily Life) 등으로 짓는다.

공립 초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으로 시작된 현장학습은, 처음에는 애리조나 초등학교와 같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사립학교 학생들도 참가 신청을 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트라이시클(Tricycle)〉지에 파타고니아 시의 초등학생 현장학습을 소개한 스티븐 그레이저(Steven Glazer) 씨는 게리 스나이더(G. Snyder)의 '함께 머물러, 꽃들에게 배우고, 더욱 밝아져라'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불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가장 불교적인 삶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j@buddhapia.com

정통 풍수 지리
(강 좌)

◆ 정통으로 연구 하실 분
◆ 명당(陽宅,陰宅)감정 및 안내
◆ 강좌 : 매주 화, 수요일
주간 – 오후 3~5시
야간 – 오후 7~9시

수시 등록 접수
02) 762-0077

한국 풍수지리 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아버지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같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기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본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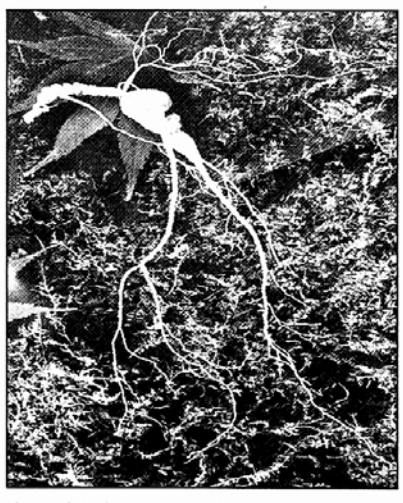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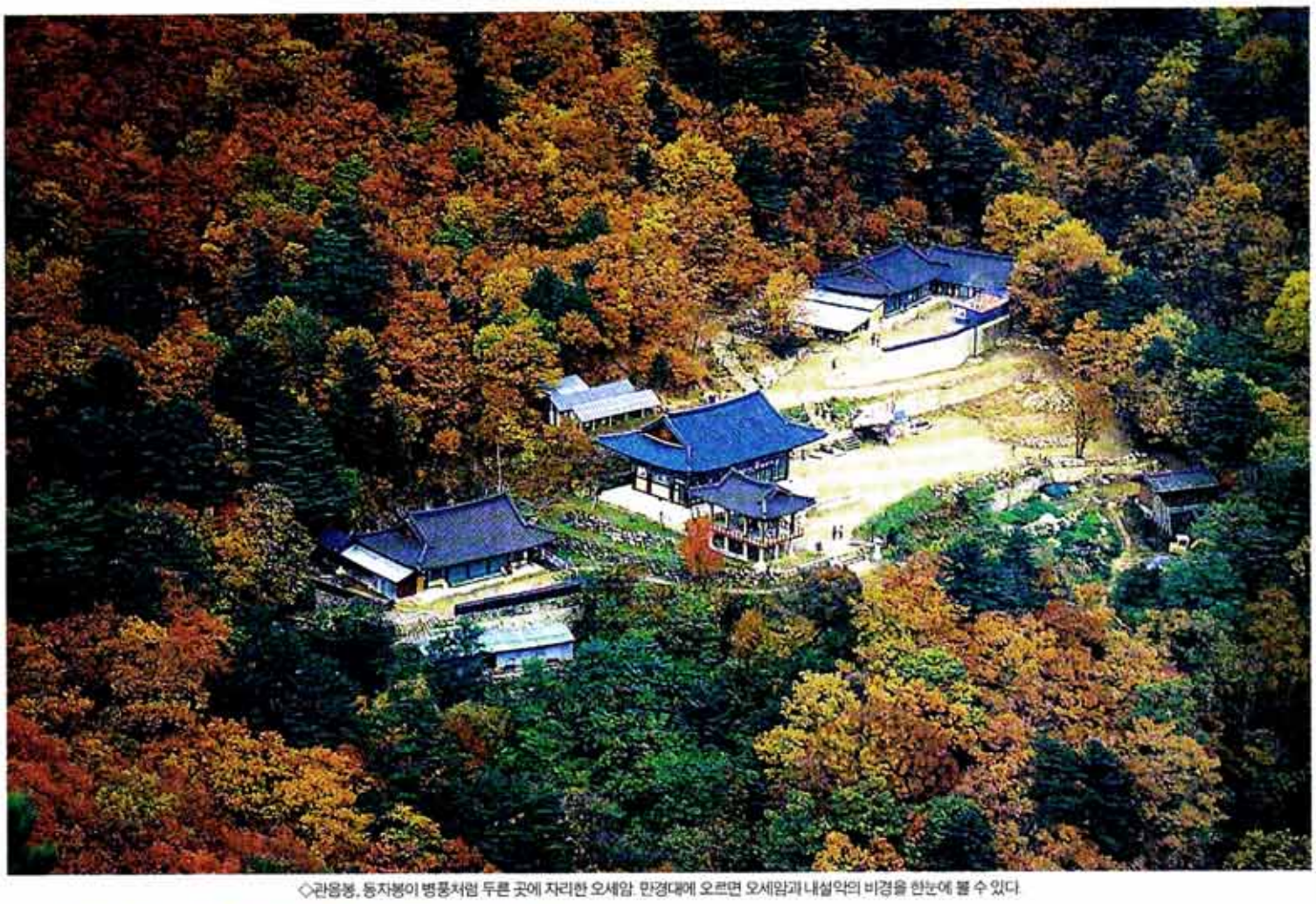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붉게 물든 가을산사…"번뇌도 탄다"



◇관음봉, 동자봉이 병풍처럼 두른 곳에 자리한 오세암. 만경대에 오르면 오세암과 내설악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설악산 백담계곡 '단풍세상'

설악산은 철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그중에서도 가을 단풍은 첫 손가락에 꼽힌다.

대청봉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지금, 중청 소청을 지나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백담계곡 코스를 즐겨 찾는다. 수렴동, 가야동, 용아장성릉의 화려함이 한눈에 들어오고 죽순처럼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기암, 수정처럼 맑은 물이 구름을 안고 흐르는 계곡도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자들이 이 코스를 즐겨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적멸보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15일 찾은 백담계곡은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온 탐방객들로 가득했다. 이들의 산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백담사나 영시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에 오르는 것과, 오세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에 오르는 것, 그리고 봉정암에서 1박을 하고 오세암과 영시암을 거쳐 백담사로 내려오는 것이다.

오세암 · 봉정암
철야정진 불자
매일 수백여명

누구를 만나든
"성불합시다"
웃는 얼굴 합장

기자는 오세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을 거쳐 백담사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다. 백담사에서 오세암에 이르는 길은 황홀했다. 3시간 여 동안 이르는 등산로 곳곳은 오색 단풍이 터널을 이루고, 떨어진 낙엽은 가을 융단을 흩뿌려 놓은 듯 색의 마술을 연출한다. 하지만 기도가 목적인 불자들에겐 단풍삼매에 빠져드는 것은 잠시, 영시암을 지나면서부터 고행길(?)이 이어진다. 땅이 가슴에 닿을 듯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오세암에 도착할 수 있다.

오세암 주지 일음 스님은 "3시간 여 동안 걷는 것만으로 기도는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 만큼 오세암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내려가지' '아니야, 조금 더 올라가자.' 자신과 수없이 싸우고, 그 싸움에서 단 한 순간도 물러서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지 스님은 이곳을 찾는 불자들로부터 오히려 신심을 배운다고 말한다. 며칠 전에는 92살의 노보살이 고무신 차림에 공양물(짐)까지 짊어지고 오세암을 찾아왔다고 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오세암 같은 절이니 가능한 일이리라.

극한의 육체적 괴로움을 극복하고 도착한 오세암은 선뜻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단풍의 계절인 요즘은 더욱 그렇다. 2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에 하루 평균 두 세배의 기도객들이 찾기 때문이다. 특히 2일부터 12일 사이는 1년 중 가장 많다.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때도 있다. 오세암은 보통 지원자에 한해 10시 30분부터 철야정진을 하는데, 이 때만큼은 잠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철야정진을 할 수밖에 없다.

잠자리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불자들은 물 한 모금 휴지 한 조각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오세암에서 봉정암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만나는 불자들은 모두 "성불합시다"며 합장 인사를 한다.

오세암 법당 앞에 서면 뒤로는 관음봉과 동자봉이, 오른쪽으로는 공룡능이 올려다 보인다. 특히 암자에서 영시암 쪽으로 5분을 가면 작은 언덕을 하나 넘게 되는데, 그 언덕 위에서 왼쪽의 능선 골으로 가면 내설악의 꽃이라 부르는 만경대에 닿는다. 이곳에 올라서면 대청봉을 중심으로 공룡능, 용아릉, 서북릉을 아우르는 전망이 빼어나다. 대청봉에서 인제 쪽으로 흘러내린 내설악의 비경과 오세암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만경대다.

밤새워 기도를 마친 불자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하산하지 않고 다시 봉정암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세암 뒤에서 봉정암으로 이어지는 길은 일명 '불자의 길'이다. 이곳은 오세암에서 기도를 마친 불자들과, 봉정암에서 기도를 마친 불자들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성불합시다"며 합장인사를 나눈다.

오세암은 25일 오세동자 점안식을 갖는 한편 11월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 동안 특별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이것이 올해 오세암의 마지막 기도법회다. 눈이 내리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4월까지는 출입이 통제될 뿐 아니라 눈으로 인해 고립되기 때문이다.

올 단풍은 유난히 곱다. 등산객들은 붉타는 가을 산이라며 단풍놀이만 즐기지만 불자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잎을 떨궈내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축적한다.

글=김중근 기자 gama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단풍길 따라 부처님 만나자

법주사 · 백양사 등 행사 풍성



설악에서 시작한 단풍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올 단풍은 지난해에 비해 3-4일 늦었지만 날이 맑고 일교차가 커 어느 해 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한다.

이 가을, 곱게 물들어 가는 단풍길 따라 부처님 만나러 떠나 보자. 특히 이번 가을에는 많은 사찰에서 법회와 문화제가 펼쳐진다.

10승지 가운데 하나이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야산은 24일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여러 산내 암자마다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해인사에서는 25일 마애불 현다식을 비롯하여 29일 영가천도, 30일과 31일 보살계, 31일 가사불사 회향식이 봉행된다. 또한 백련암은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철스님 8주기 3000배 참회법회를, 원당암은 25일과 11월3일 용맹정진 참선법회를 연다. 길상암은 28일부터 30일까지 가을기도에 들어가고, 희랑대는 15일부터 하루에 500배 씩하는 만배 기도 입제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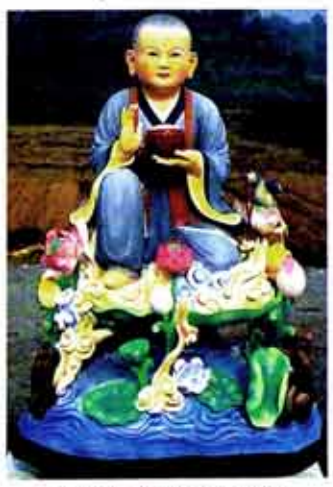
4계절의 변화에 따라 절경을 이루는 속리산에는 쌍사자석등(국보 5호), 팔상전(국보 55호)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법주사가 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28일을 전후로 축제가 열린다. 20일부터 21일까지 보은군 주관으로 속리축전이, 21일과 28일 그리고 11월 4일에는 속리산 자생 야생화 꽃씨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마련된다. 법주사는 보살계(21일)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가을=내장'이라 할 정도로 가을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다. 이곳은 11월5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단풍축제가 열린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백양사는 장성군과 공동으로 백양단풍축제를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단풍등산대회, 그린음악회, 노래자랑 등 20여 행사가 진행된다.

내장산과 같은 시기에 가장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계룡산의 사찰에서도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신원사에서는 산신재가 11월 1일 개최되며, 갑사는 창건 1581주년 개산대재(11월 3일), 괘불이운식 및 영산재(11월 4일)를 봉행한다.

지리산 화엄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보살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서울의 '녹색허파'로 2천만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은 11월 4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기에 도선사는 청담 스님 열반 30주기 철일지장기도(11월 6일 입제), 수능시험 100일 기도 회향(11월 7일)을 비롯해 여러 법회가 열린다.



◇25일 새로 봉안하는 오세동자상.

오세암과 오세동자

신라때 자장율사 창건
25일 동자상 봉안법회

오세암(五歲庵)은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관음암이라 불렀고, 조선 인조 21년(1643) 설정스님이 중건하면서부터 오세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고종 25년(1888) 백하 스님에 의해 중건되었으나 6 · 25전쟁 중 소실된 뒤 1990년대 들어 중창불사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설정 스님이 관음암을 중건하면서 이름을 오세암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설정 스님이 다섯 살된 조카와 함께 관음암에 머물다가 겨울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월동준비 관계로 양양 물치 장터로 떠나게 되었다. 이틀 동안 혼자 있을 어린 조카를 위해 며칠 밥을 지어 놓았지만 밤새 내린 폭설로 겨울이 끝날 때까지 관음암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듬해 봄 설정 스님이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감동한 스님은 다섯 살의 동자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살아난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관음암을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에는 이 암자에 머물렀던 매월당 김시습의 별호가 '오세신동'이었고, 그가 머문 후 150년이 지난 뒤부터 오세암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아 매월당 김시습의 별호 때문에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도 있다.

오세암은 15년 전에 봉안된 오세동자상의 법신이 상해 25일 새로 동자상을 봉안하는 법회를 가진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편양선사 '寤寐心'

선사의 법명은 언기(彦機), 법호는 편양(鞭羊), 속성은 장(張) 씨다. 조선 선조 14년(1581)에 죽주현(竹州縣:경기도 안성군 죽산)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2세에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계신 현빈인영(玄賓印英) 선사에게 삭발 염의하였다.

왜구가 강산을 짓밟던 8년 동안은 스승의 문하에서 경·율·론 삼장(三藏)을 공부하였다. 왜란이 가라앉자 사교입선하여 전국 제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선로(禪老)들을 찾았다. 19세 때 타파칠통(打破漆桶 : 무한겁 이전부터 무명 번뇌가 쌓여 갑춰진 불성을 깨닫는 것)하고 보임(保任)하면서 평안도 어느 목장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였다. 여기에서 선사는 편양당(鞭羊堂)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다. 22세 때 묘향산에 계신 청허(淸虛) 선사에게 입실하고 3년을 수참(修參) 시봉하여 스승의 불법을 체달하여 그 법계를 이어받았다. 선사는 평양성에서 보임하면서 모란봉에 움막소굴을 짓고 살았다. 선사는 문전걸식하면서도 수백명의 걸인들을 한곳에 모아 보살폈다. 이러한 생활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행을 놓치지 아니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비가 내리는데 비에 젖어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철대오 하였다.

오매심(寤寐心)

不學宣王敎(불학선왕교)
寤聞桂吏玄(영문계이현)
早入西山堂(조입서산당)
唯傳六祖禪(유전육조선)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배운 일 없으니,
어찌 노장(老莊)의 학설을 들었으랴.
일찍이 서산의 집으로 들어가,
오로지 육조의 선(禪)만을 참구했네.

금강산 백화암(白華庵)에서는 '오심(悟心)'을 읊었다

오심(悟心)

雲走天無動(운주천무동)
舟行岸不移(주행안불이)
本是無一物(본시무일물)
何處起歡悲(하처기환비)

구름이 달리지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 법,
배가 갈뿐 언덕은 가지 않는 것을,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기쁨 슬픔 있으리요.

선사는 납자를 제접함에 있어 교학을 이수해야 할 학인에게는 삼장(三藏)을 강설하고, 참선 대중에게는 선가 특유의 방법으로 조사선지(祖師禪旨)를 설하였는 데, 그것이 바로 심검선(尋劒禪)이였다. 선사는 선을 교보다 위에 두었으며 선을 경절문(徑截門 : 조사의 공안상에 때때로 들어 깨쳐서 의심 일으킴을 성성히 하되, 천천히도 빠르지도 않고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잊지 않기를 갖난애가 어머니 생각하듯 하면 마침내 묘를 발한다는 것)에 두었다.

선사는 여기서 간화선의 원돈문(圓頓門)을 주장, 그 깨치는 데에 있어 원돈문 수행은 일령심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원래 번뇌가 없음을 반조함이니 자기 심성을 반조하는 수행을 설파하고 있다.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을 향하여 그 분별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궁구해 가되, 일어난 곳을 뭇 찾아 마음 속이 답답할 것이지만 바로 그 경지가 깨침으로 가는 좋은 소식인 만큼 방사하지 말고 계속 추구해 나가라고 가르쳤다.

청허 선사의 문하에는 81인의 오도제자(悟道弟子)가 있었고 이중에는 한 산중의 조실이 된 분만도 50여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3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선사의 문손만이 이어져 현재 승려 가운데 95%이상이 선사의 문손이다. 사명, 소요, 정관 등 50여 문파는 대가 끊긴지 오래다. 그것을 보아 선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다. 인조 22년(1644)에 묘향산 내원사에서 세수 64세 법랍53세로 좌화(座化)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뵌 큰스님

무공스님

가평 청오사 주지

"마음 밝아야 눈 귀 정신 밝게 돼"

10월 14일 경기 가평의 모 사단 군법당인 호국 연호사.

부대 밖 경치 좋은 야산에 자리한 이 군법당은 넓은 부지에 아기자기한 성물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당은 아담해 보였다. 모처럼 휴일을 맞은 장병들이 법당 밖에서 잡담을 나누다 큰스님이 오신다는 말에 서둘러 군화를 벗는다. 법당안에는 100여명의 장병들과 10여명의 민간신도들이 법회를 봉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오늘의 초청법사인 무공 스님이 자비스런 미소를 띠고 법당에 들어오셨다.

무공스님은 법문에 앞서 장병들이 입정에 들 것을 지시했다.

"죽비 한번 칠 때 몸이 삼매에 들고, 죽비 두 번에 마음이 삼매에 들며, 죽비 세 번에 일체만물이 삼매에 듭니다. 불자들은 지금 좌선에 든 '이게 뭐꼬' 하는 의문을 내어보세요."

한 장병이 입정에 들지 않고 몸을 움직이자, 스님이 벼락같은 호통을 친다.

"저 법우는 왜 두리번 거리고 있어!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면 망상이 일어나 안 돼요!"

진리와 하나되는 공부

벽력같은 할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10여분의 시간이 흐른 후 죽비 소리가 들리자 게송과 함께 스님의 법문이 시작됐다.

"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인데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니라. 나무아미타불."

무공스님은 절에서 도량석 칠 때 부르는 종성게로 법문을 여셨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인간 마음 속의 주체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게송은 과거, 현재, 미래세의 부처님을 알려거든 응당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 만드는 법계를 관조하라는 뜻입니다."

이날 '무공 큰스님 초청법회'의 법문 주제는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내용이 주였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테러사태와 아프간에 대한 보복전쟁이 법문의 배경이 된 듯 스님은 특히 "불교는 마음의 평화 즉, 열반을 얻는 것이예요. 마음이 밝아야 눈도, 귀도, 정신도 밝게 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불교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반야(般若)'라고 하지요. 반야의 어원은 씨뿌려 경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마음 바탕을 갈고 닦아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감로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하나하나 장병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자상하게 설명하며 '반야바라밀'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대비시키며 풀이해 주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愛智)이 서양철학이라면 불교는 '바른 깨달음'(正覺)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양철학이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교는 진리와 하나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통해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물을 바로 그 때 분명히 직관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과 노력을 하도록 평소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마음과 사물이 일체가 될 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지혜가 생기므로 밖으로 깨달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도를 구하다 땅에 엎어진 사람은 '하늘'이 아니, '마음'에 의지해서 일어서야 한다. 이때 또다시 터져나온 스님의 일갈(一喝).

> 왜 두리번 거리는가
>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면
> 망상 일어나 안돼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법우, 고개 들어! 굉새끼처럼 졸거야? 스님 눈 뚫어지도록 쳐다봐. 안그러면 몽둥이로 30방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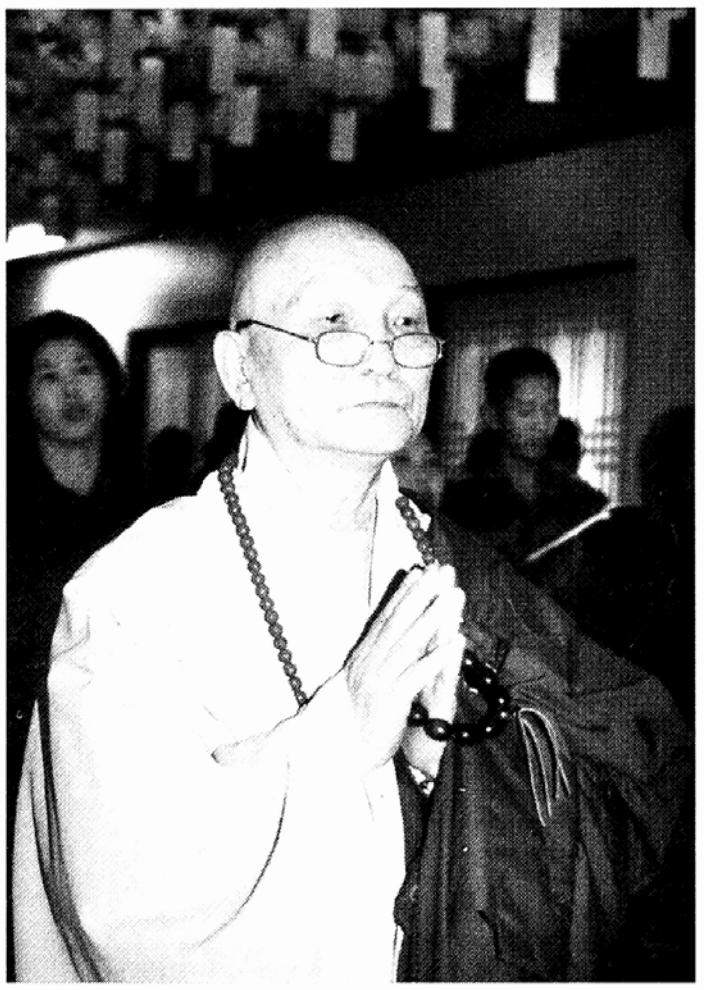
추상같은 질타에 모든 청중들이 허리를 곧추 세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절박한 구도심으로 수행하는 이가 오늘날 있습니까?"스님은 선종의 2조 혜가스님이 팔을 잘라 달마스님으로부터 법을 구한 것(斷臂求法)과 부처님께서 나찰에게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이란 법문을 얻기 위해 낭떠러지에 몸을 던진 일화를 들며 서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절한 구도심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계정혜 3학을 공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견고한 신심. 둘째는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하겠다는 원력. 셋째는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 지혜와 지비의 힘이다. 불자들의 원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번뇌가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세계평화에 헌신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스님은 세계가 소용돌이칠 때는 우리 민족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마음을 열고 세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 발밑부터 비추어 보는(照顧脚下) 자기반성과 화합, 격려, 용기를 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후 무공스님은 장병들과 함께 점심공양을 한 후 호국연호사 법당 증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7년 창건된 호국연호사는 법당이 좁고 낡아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0여명 남짓밖에 들어갈 수 없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많은 장병들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무공 스님은 늘 가슴아파 하셨다. 하지만 국방부의 군종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법당 신축 및 증축시 공사비의 3분의1 정도가 시주금 등으로 확보되어야만 불사가 가능하다.

무공 스님은 30여년간 군포교 일선에 서왔다. 77세인 지금도 어느 군법당에서건 법문을 요청하면 한번도 거절하지 않고 먼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한달음에 달려가 군



◇30여년 동안 군포교에 앞장서온 무공스님. 14일 군법당 호국 연호사에서 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한·맘·유·학·원

캐나다 미국 중국 조기 유학, 어학연수 전문

현지 유학 경험자와 오랜 경력의 현지 유학 상담원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유학정보와 수속으로 모든 유학업무를 책임지겠습니다.

취급업무
▶ 영어 · 중국어
▶ 대학생 및 일반, 회사단체의 장 · 단기 어학연수
▶ 정규유학(한, 석, 박사), 조기유학(중, 고생)
▶ 서류번역 · 항공 예약대행 유학생보험

Toronto branch
7Hayden St #203 Toronto ON M4Y-2p2
Tel.(416)929-0175
Vancouver branch
#804-121-10th St. Newwestminster, BC V3M-3X7
Tel.(604)777-0054
L.A branch
400 South Harvard BL, #312 L A CA 90020
Tel.(213)453-2679
Nan jing branch
Jiang-Su-Sheng, Nan-Jing city, Han-Zhoug-Men-Da-Jie
21 Hao, 5-2-204
Tel 00186-25-650-4368

수속절차 안내
유학국 선택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담 요망)
지역과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 결정(수속계약)
학교응시 (응시료 또는 학비준비)
- 출국시기를 예측하여 항공예약 -
입학허가서 취득
(필요시) 비자신청 및 취득
숙소결정 및 pick up 관련 결정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필요시 출국안내) 출국

"풍부한 경험과 현지 사무소로 부터의 정확한 정보로 상담부터 출국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한 맘 유 학 원
TEL : (031)388-8426 FAX : (031)388-842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1번지 트윈프라자 2층 205호
■ 지하철 : 4호선 평촌역 하차 ■ 위 치 : 귀인아울 먹거리 골목입구 조흥은행 2층
www.hanmamuhak.com
E-mail :hanmamuhak@yahoo.co.kr

무공스님은?

제방선원·토굴서 정진
30여년 군포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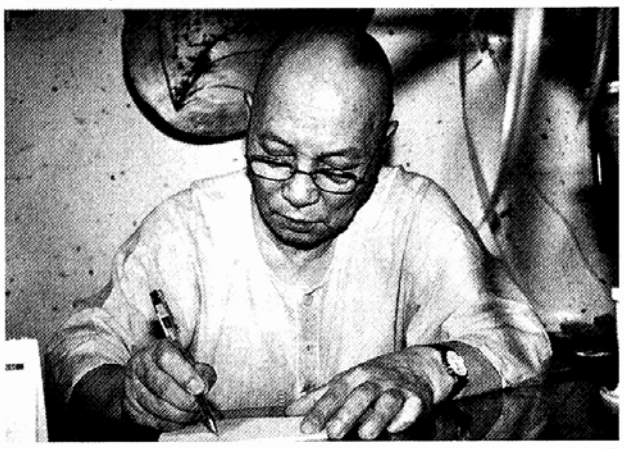


77세의 노구에도 군포교에 대한 정열이 식지 않고 있는 무공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출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동기생중에는 정호근 육군 대장 등 많은 장성이 배출될 정도로 군내 서열도 높다.

스님은 62년 범어사에서 前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6.25때 폐사가 된 청우산 청오사를 중건, 30여년간 불사에 매진하면서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맡는 등 군포교에 대한 원력을 늦추지 않아 왔다.

6.25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가했었기에 전쟁의 참혹상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겪은 스님은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불과 20년만에 남들이 200년 걸려 이룩한 경제재건을 이룩했어요. 세계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 우리 민족을 찬양하고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까지 선사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민족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부터 원융화합하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한 당나라 때 포대화상을 존경해 절 곳곳에 포대화상을 모시고 있다. 무공스님은 종교를 떠나 군내 마을회관을 돌며 연탄과 먹을거리를 보시하고 천주교 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에도 들러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



◇대중포교는 개개인의 신심과 수행의지를 북돋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무공스님.

불자들의 수행을 격려한다.

스님은 매주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군법당을 순회하며 군인들의 마음공부와 정서순화를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님이 이렇게 군포교에 애정을 보이는 것은 스님도 지난 6.25 전쟁때 학도병으로 징집돼 군에 있다가 전역하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에서 전쟁의 처참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폭력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고, 부처님의 비폭력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의 본원을 따라 정토세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열망은 더해만 갔다.

작은 욕심도 업 짓는법

스님은 지난 62년 범어사에서 전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했다. 바람 떠도는대로 운수납자의 길을 걷다가 충청도의 이름없는 깊은 산에서 8년간 토굴정진도 했다. 정부의 산림보호정책으로 나중에 산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었지만, 스님은 그 때 가장 치열하게 정진했었다고 말한다. 8년간의 토굴생활은 말로 하기 힘든 두타행의 기간이었다. 엄동설한에 길을 걸을 때면 눈썹까지 얼어 얼굴을 감고 다닐 정도였다. 찬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따가워지는데, 젊은 시절 무모한 고행은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토굴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단식을 하면서 '이 뭣고' 화두를 드는 것이었다. 1주일째가 힘들고, 2주일째가 더욱 힘이 들었다. 된장과 밥 냄새가 절로 나고, 이가 떨리고 배가 너무 고프면서 갈증이 났다.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는 욕망만이 간절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자 힘이 덜 들었다. 다음 단계부터는 물 마저도 끊고, 한달 보름의 단식을 이겨냈다. "단식을 하고 화두를 들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바로 무심에 들 수 있어요."

> "아무리 높은 진리도 실천 불가능하면 공론에 불과해요"

스님은 이때의 토굴수행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 외부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내부를 들여다보는 힘이 생긴다고 하신다. 수행자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망상이 들끓고 화두가 순일할 수 없다. 화두라는 하나의 의심 덩어리를 깨기위한 정신집중에 있어, 무(無)에 집착하는 것은 더 큰 병을 낳는다. 즐겁고 좋은 모든 생각과 망상을 끊는 방편에 단식보다 좋은 방편은 없다. 철야정진을 하다보면 어느 때는 스님도 모르게 저절로 졸게 되는데, 이때의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는 1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 온갖 유위법(有爲法)이 곧 망상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사가 두렵지 않다. 늑대 같은 산짐승이 나타나도 '내가 나쁜 짓을 않는데 네가 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믿음이 절로 생겨나고 이미 사람과 짐승이라는 구별도 안 생긴다. 그저 친근한 마음만 들 뿐이다. 새들이 좁쌀을 먹기위해 다가올 때는 동물의 예민한 영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신다. 오직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망상과 탐욕.

무공 스님은 1970년경, 가평 청우산으로 가 한국전쟁 때 폐사가 된 청오사를 중건, 30여년간 주석하며 중생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는 사람들이 마음의 도리를 깨닫도록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망념을 끊어 무심에 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사가 없는 마음 도리를 경험하면 진공(眞空)이 곧 마음이며, 묘유(妙有)가 대비심임을 깨달아요. 깨달음과 실천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스님은 포교활동도 결국은 불자 개개인에 대한 신심과 수행의지를 높이는데 귀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군법당을 비롯 각 법회에서 마음공부를 쉼없이 당부한다.

"불가설 불가득(不可說 不可得)의 이 마음은 조그마한 욕심도 업을 짓는 원인이 됩니다. 형태가 없는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한계를 넘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한한 이 능력을 써먹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근기에 맞도록 심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진리도 실천이 불가능하면 공론에 불과하다. 배고픈 이가 밥부터 먹어야 하듯이 이론과 실천이 합일되어야만 힘을 얻는다고 강조하시는 스님은 불자들부터 사회문제를 잘 알고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해 불교의 진리로 귀의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경제나 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오로지 돈 돈 만을 부르짖으며 돈 벌기만을 바라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른 마음을 견지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

"옛날 시장에 5명의 떡장사가 나란히 떡을 팔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모든 떡을 일찍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를 보고 다른 떡장사들이 이곳저곳 장소를 바꿔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떡장사는 마음이 항상 밝았습니다. 파는 떡도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별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단골에게 친절하고 정직하며, 큰 이익 생각지 않고 떡을 판 것이 비결아닌 비결이었던 거죠. 결국 남이 벌어다 주는 돈은 즉 마음 씀씀이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 안돼

옛날 개성상인의 고사를 또 들려주셨다.

"어느날 한 상인은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돈을 벌고 싶거든 목돈이 아닌 푼돈을 벌어라. 돈을 쓸 때는 푼돈을 쓰지 말고 목돈을 써라' 고 했어요. 돈의 효율성을 말한 이 유언은 분수밖의 돈으로 과잉투자하지 말것과 남을 도울 때는 고기 보다는 그물을 사줄 것 즉, 소비재 보다는 생산재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물건이기에 젊을 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가는 수행이나 공부할 때를 놓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마음공부는 무시무처(無時無處)에서 평생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는 계(戒), 정(定), 혜(慧) 3학을 닦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간살이 역시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는 칠불통계의 가르침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보고 동정심을 내고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겠다 새로 마음을 추스리면 악인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자를 보고 존경심과 함께 더욱 선행을 해야겠다는 분발심을 내어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흥선 스님

몇 해전 나는 유홍준 교수의 한국미술사 강좌를 들으러 열심히 다녔다. 그 강좌가 종강된 후에도 전국의 문화유산들을 찾아 답사를 다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절집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오랫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다. 아마 그 무렵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곳이 어딘지 기억도 아스라하지만 어느 고찰이었던 것 같다. 안내가 끝나고 고목 그루터기에 앉아 쉬고 있던 내 귀에 가을바람에 실려 나지막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함께 답사온 비구스님이 사찰 입구 한 쪽에 서있는 비석의 비문을 능숙하게 읽어 내려가며 회원들에게 옛 스님의 행장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었다. 젊은 비구스님이 다 깎여 흐릿해진 비문을 외다시피 술술 읽는 것에 깜짝 놀랐다. 사실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영향 탓으로 능숙한 번역솜씨를 지닌 스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스님의 학문적 식견은 감탄할 만했다. 그 스님이 흥선(興善) 스님이었다.

내가 다가가 인사를 하며 놀랐다고 하자 스님은 멋적어 하시며 글 읽는 중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흥선 스님은 그후에도 오랫동안 답사회에 나오면서 불교유적, 특히 비문과 사찰연혁기들을 그 해박한 지식을 통해 알기 쉽게

불교문화재 해박한 지식
직지사 박물관장 소임

설명하곤 했다. 스님의 비문강의를 들으려는 이들은 답사행렬에서 슬쩍 빠져 나와 스님뒤만 따라 다녔고 난 한발짝 뒤로 물러나 경청했다.

적멸보궁이 있는 태백의 정암사에 머물던 스님은 내게 기도하러 오라고 했지만 나는 내 사는 것이 바빠서 정암사로 스님을 뵈러 가지 못했다. 소식이 궁금해 질 때쯤 스님이 그곳을 떠나 직지사 박물관장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스님만큼 불교문화재와 우리문화 유산에 대해 해박한 이도 드문지라 아주 적합한 소임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근처에 살고 있었으므로 스님을 만나러 갔다.

박물관은 기존에 있던 당우를 적절하게 수리하여 막 개관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작지만 탱화와 불교미술품들이 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 기품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해있었다. 박물관장 소임 맡으신 것 축하드린다고 하자 차 한잔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들에게 탱화나 불상은 당연히 존귀한 예배의 대상이지만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문화재 전문 도둑들에 의해 수난을 겪는 세상이 되었지요.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도난되거나 훼손되기 일쑤이니 종단에서 큰 맘을 먹고 각 본사별로 해당말사에서 자체적 경비를 할 수 없는 문화재급 성보들을 모아 박물관을 개설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사의 귀중한 성보를 모아 놓고 보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직지사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귀의처가 되도록 해야만 종단의 뜻에 따라 성보를 보내준 말사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요. 수장고에 가득한 유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하건만 박물관 전용건물이 아니라 습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관전시를 마치고 나면 성보를 분류하여 박물관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중에서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계신지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통도사 박물관에 갔는데 아주 감동했습니다. 사찰 박물관들의 본보기가 되어도 손색이 없더군요. 그렇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스님을 따라 박물관 수장고를 들여다보았는데 아주 작은 방에 빼곡이 들어 있는 성보들이 하나같이 귀한 것들인지라 마음까지 경건해졌다. 스님은 아마 이 아름다운 성보들을 하나하나 빛나는 보석처럼 박물관 내에 잘 보존하고 전시하실 것이리라.

그 뒤 직지사 박물관에서 고승진영특별전시가



있었다. 그 옛날, 이름을 떨치셨던 큰스님들의 초상화가 진영각을 떠나 흥선 스님의 남다른 꼼꼼함과 뛰어난 안목을 거쳐 직지사 박물관을 무언의 설법장으로 만들었다. 그 뒤 서울로 스님과 동행할 일이 있었는데 뭔지 보자기에 싼 조그만 물건을 애지중지하며 손에서 놓지를 않기에 뭐냐고 물어봤다.

"오래된 경전입니다. 직지사 박물관에서 구입하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되돌려 주러 가는 길이지요. 제 마음엔 제가 이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인연이 되는 유물은 가급적이면 구입하고 싶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유물구입에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불자들이 불사에 시주하는 것도 좋지만 박물관에 시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스님, 그 경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아이고오! 내가 괜한 소리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답답한 마음에 그만…"

나는 부득불 스님을 졸라 그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스님의 착잡한 얼굴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우리들의 암울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계속〉

▨ 반야사 주지

대입수능시험생을 위한, 청소년 불자를 위한

3333배 특별기도 정진

와서 보라! 참수행 기도 현장을,

3333배 특별기도 정진의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는 기적보다 더 백천만배 강력한 대긍정의 확신의 자신감의 기도 성취의 영험이 있습니다.

<수행내용>

(1) 매 시간 마다 소참법문으로 마음을 밝히고
(2) 4~5분간 죽비소리와 호흡에 맞춰 일괄적으로 절하며 몸을 닦고
(3) 5분동안 부처님전 감사기도 올리고 축원기도로 가피를 받고
(4) 10분동안 휴식하며 환기 시키고 10회를 합니다

마지막 5분동안 대뇌를 각성시켜 졸림, 피곤함, 힘듦, 짜증,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아만, 교만, 게으름, 나약함, 비판적, 비관적, 부정적인 상념체를 피로물질을 배버리는 것이 중요한 테크닉 입니다

▶일 시 :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9시까지
철수행 교육 9시~일요일 아침 7시 까지

▶준비물 : 두꺼운 기도포수건, 두꺼운 면양말, 세면도구, 면 T2매, 공양미, 절을 氣차게 말하는 법 책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서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대명비발디파크스키장 이정표) → 대명 스키장 입구 → 소리산 참선 캠프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다음넷 카페 : 소리산 참선 캠프 클릭)

폐암으로 고통받은 네팔인 선재 구릉에 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노동자 선재 구릉이 부처님의 가피와 여러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도움으로 폐암을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폐암을 이기고 힘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 구릉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백암응화사, 회암사, 대성스님, 대휴스님, 보현스님, 정하스님, 홍현스님, (주)세콩커뮤니케이션(김섭희 대표), 강문주, 강수옥, 고순진, 관세음보살, 김부화, 김원희, 김월숙, 김정애, 김주자, 노귀남, 무여심, 문정애, 민대홍, 박일배, 배경숙, 봉경희, 성옥경, 숙희 건강을, 손영희, 신성옥, 안성은, 우선자, 이기수, 이경희, 이대훈, 이경말, 정영숙, 정윤경, 정현기, 조성은, 조축연, 주영상, 진범중, 진현종

※ 동장에 실린 이름을 그대로 싣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선재 구릉에게 직접 전달하신 분들

삼성의료원, 삼성의료원 법당 정을스님 외 자원봉사자 여러분, 익명의 노보살님, 네팔불자모임(Nepal Budchist Family)

위와 같이 선재 구릉을 위해 후원된 금액은 총 16,674,480원(삼성의료원 8,752,880원, 네팔불자모임 3,950,000원 포함)입니다. 이중 병원비로 14,397,390원(본인 부담 194,510원 포함)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후원금 2,471,600원 전액을 귀국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선재 구릉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제때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회장 영도스님) 합장
서울 중구 명동 15-5 명동빌딩 별관 5층 전화. 3147-2600
후원계좌 : 조흥은행 877-06-008223 (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 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大 히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효과가 없을시 100% 환불 보장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굳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

통도사 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10월 25일~12월 17일

200여 고승 친필 - 선묵 '한자리에'

근대 한국불교의 기둥이었던 근대 고승들의 가르침과 정신 세계를 글과 그림을 통해 되새겨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25일~12월 17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고승 선묵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고승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수집한 고승 선묵 200여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이뤄졌다. 기증품 중에는 석정 스님의 스승인 석두 선사를 비롯하여, 경허, 백학명, 이동인, 만공, 석전, 효봉, 향봉, 화봉, 황곡, 구하, 한암, 경봉 선사 등 20여 고승들의 친필 선묵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직지사, 송광사, 선암사, 수덕사 등 사찰박물관과 동아대, 고려대 등 대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위해 빌린 서산 휴정, 사명 유정 스님의 친필을 비롯해 영파, 금파, 용봉 스님 등 조선 중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고승들의 선묵 50여점도 전시된다.(055)382-1001

■ 서산 휴정(1520~1604) 〈지본묵서〉(조선중기): 선교일치 · 선교통합 사상을 전개해 선교양종을 통합시킨 서산 스님의 친필 유묵 3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배꽃이 흩날려 청허원에 날아드네. 목동의 피리소리 앞산을 지나건만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네.'(청허당집, 권 1) 선적 사유의 깊이를 느끼게 해 주는 서산 스님의 시는 선시의 전형으로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유정, 편양, 소요, 초의 스님 등이 바로 그들이다.

■ 영파 성규(1728~1812) 〈간찰첩〉(조선후기): 영파 스님은 30년간 〈화엄경〉을 공부하여 화엄종지와 선(禪)과 교(敎)의 요체를 얻었다고 전하는데, 법회를 열 때마다 수많은 신도와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스님이 직접 쓴 〈간찰첩(簡札帖)〉은 스님의 정신세계를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직지사성보박물관의 배려로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 경허 성우(1849~1912) 〈지본묵서〉(조선말):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우는 경허 스님은 일찍이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천장암으로 출가 용맹정진 끝에 홀연히 깨닫고 선풍을 드날렸다. 거침없는 무애행으로 유명한 스님은 문장과 필법에 모두 특출하였는데, 이번 전시에는 〈심우도 육곡병풍〉과 〈시고〉 등 유묵 5점이 전시된다.

■ 경운 원기(1852~1936) 〈머루도〉(근대): 근대의 대표적 불교학자인 경운 스님은 선암사를 당대 강학의 중심지로 만든 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님의 수묵화 〈머루도〉는 평소 접하기 힘든 작품으로, 산 속의 머루처럼 머리 깎은 승려라는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선암사성보박물관 소장품이다.

■ 용악 혜견(1830~1908) 〈통도사 황화각 상량문〉(1900년): 용악 스님은 통도사 강원의 대교반이 수학하는 요사채 〈황화각 상량문(皇華閣 上樑文)〉을 직접 지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스님의 〈황화각 상량문〉 내용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서산 스님의 '유묵'.


◇퇴경 권상로 스님의 '고승탄금도'.

석정 스님 수집품 200여점
영파 스님 '간찰첩' 첫 공개

2002년 불교달력
한장한장 신심 오롯
북한사찰 · 금강산 등 담아



불기 2546년(2002년) 임오년 달력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사찰 사진에서부터 스님들의 그림과 서예, 꽃꽂이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재 조계사 인근 불구점에는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보덕암 등 북한의 사찰과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달력이 여러 종류 나와 있다. 또 스님들의 그림과 해외 불교성지 등을 소재로 한 달력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불교 달력의 단골 소재였던 사찰도 전경위주에서 벗어나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담고 있다.

가을맞이 茶행사



가을을 맞아 차를 주제로 한 행사들이 잇달아 열린다.

통도사는 24일 오후 1시 제3회 부도헌다제를 봉행한다. 통도사 창건 이래 가람을 수호하고 전법에 진력해 온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헌다제는 통도사 말사에 소속되어 있는 6개팀의 다회를 중심으로 차와 다식을 즐기며 전통사찰의 헌다공양을 재현할 예정이다.(055)382-1001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한 다악(茶樂) 공연 '2001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놓기-차 마시기 좋을 때 풍정'은 26일-2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다악〉음반 제5집 출반 기념 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국창작음악회의 창작 다악 연주와 어우러진 설치미술, 행다 퍼포먼스 등이 선보인다.(02)2272-2152

제10회 초의문화제는 11월 3일 오전 9시 대둔사 초의관에서 개막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부도전과 초의선사 동상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 의식을 비롯해 행다시연, 부산 동래학춤,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또 초의상 시상식도 열리며, 1년생 차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열린다.(061)534-5502 이은자 기자

불교방송 가을프로 개편
'무상을 넘어서'
'오늘을 이끄는 불교'
청취자에 첫선

불교방송이 가을을 맞아 15일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했다.

우선 이번 개편으로 첫 전파를 타게 된 프로그램은 '무상을 넘어서'(매일 밤 9시25분~밤 9시40분)와 '오늘을 이끄는 불교'(일요일 오전 8시20분~오전 9시)다. '무상을 넘어서'는 음악과 불교문화이 어우러진 명상과 사색의 시간. 경전의 주옥같은 경구들과 불교시, 잠언들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소개된다.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역사를 비롯해 과학,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의 학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지금은 불교 시대'에서 이름을 바꾼 '무명을 밝히고'(오후 5시10분~오후 6시)는 불교 영어 한마디, 세계의 불교 등 새 코너로 단장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로, 번잡한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광막한 우주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사회라는 밀림에서 탈출하여 산곡대기의 대웅봉(大雄峰)에 올라 고독한 단독자가 되어 창공을 대면할 때, 무생물처럼 보이던 우주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인간이 우주의 '말없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우주는 마음(心)과 얼(靈)로 꽉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한(無限)의 바람이 가슴 속으로 불어올 때, 인간은 우주의 입이 되어 노래하고 또 손이 되어 그 노래를 받아 적기 시작한다.

문학의 주제도 이 두 가지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온갖 시시콜콜한 사연들을 능숙한 솜씨로 펼쳐가는 타고난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무한한 시공간 앞에 선 인간의 외경(畏敬)을 절제되고 응축된 언어의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있다. 20세기 문학사에서 현저히 후자의 역할에 전념한 사람이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라는 작가이다. 그는 '사랑' 대신 '꿈'을 택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하는 대신, 정신의 오지(奧地) 탐험을 더 즐긴 것이다.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1)
서구사상의 한계
동양서 발견
"불교는 보물창고"

예리한 지성과 민첩한 상상력으로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을 탐색하던 그는 인간정신의 모든 가능성을 간직한 불교라는 거대한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게 된다.

넓디넓은 현묘한 정신세계를 맘껏 유영해본 그는 서구의 전통적인 사유체계가 너무도 편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있는 것(存在)'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이성이라는 능력에만 매달린 결과, '있음'을 가능케 해주는 '없이 있음(眞空妙有)'의 광대한 세계를 놓치고 말았다고 본 것이다. 말하자면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 태양 빛에 눈이 멀어 그 뒤에 가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구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인식의 틀 속에 갇혀있는가를 깨우치게 하는 글을 썼다. 방안에 갇혀 태양이라는 촛불(燭光)만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과감하게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별빛(星光)이 쏟아지는 들판의 시원한 바람을 쏘이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20세기 서구 지성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조타수의 역할을 한 선구자가 되었고, 그 결과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움베르토 에코 등 현대를 풍미한 사상가 가운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창조자'라고 부른 것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多元主義), 상호텍스트성, 독자수용미학 등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참신한 인문학적 사고방식들이 '아이디어의 보석상자' 혹은 '사상의 디자인집(集)'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발상이 보르헤스가 불교에 심취한 결과 얻은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문학평론가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불어나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록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펭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년도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평화위한 종교간 책읽기

내 삶의 정점이었던 30대 후반은,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와의 처절한 갈등의 시기였다. 그 때, 가슴 가득 끓어오르는 문학에 대한 향수마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것은 더 할 나위 없는 내 영혼의 타는 목마름이었다. 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말 없는 대화와, 밤하늘을 지키는 영롱한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



박홍선 교무가 읽은 '도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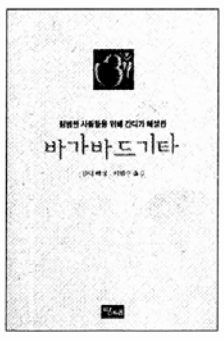
별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로 다가 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것은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타고르의 대표 시집 〈기탄잘리〉와의 만남이었다. 모두 103편의 서정적 산문시로 이루어진 〈기탄잘리〉는 나의 타는 목마름을 거두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신께 노래로 바치는 제물' 이란 이 책을 만난 후 삶의 신비로움에, 진리의 하얀 속삭임에 눈을 뜨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절대자에게 눈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탄잘리〉의 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님이었다. 〈기탄잘리〉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사랑이요, 〈기탄잘리〉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요, 기도의 성터였다. 또 하나의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났다. 〈기탄잘리〉에서 보여진 숭고한 꿈에서 깨어나 성직자로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너무도 필요한 때였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와의 만남이었다. 지은이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로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유니온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했다. 그는 인간 개인은 양심과 도덕률, 명예, 체면이라는 굴레 때문에 도덕적으로 승화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이 속한 집단이라는 사회는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사회 구조를 통하여 집단적 이기주의로 표출되기에, 사회악은 개인악의 위선적인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때론 개인보다 사회라는 집단이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1세기에서 도덕과 이성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존재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도덕과 이성의 자리 매김을 개인과 사회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 책은 독자에게 무한히 개방되어 있다. 성직자가 보는 세계, 정치가, 기업가가 보는 또 다른 세계, 무한히 열려진 상상력의 세계에서의 가르침과 암시는 하나의 세계로 다가서려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 을 가질 수 있었기에 성직의 길에서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흙탕물에도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너무나 소중한 책이기에 언제나 가까이 하고픈 내 마음의 연서다.

사회가 주는 고통·해악 도덕과 이성이 처방전

박홍선 교무는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했다. 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으로 등단했다. 현재 원불교 제주 성산교당 교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창작동화집 〈파랑새와 허수아비〉, 〈소망 도깨비 뿌뿌〉 등이 있다.

"폭력은 환(幻)에서 온다"

'바가바드 기타' 이현주 옮김



마하트마 간디가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읽었다는 책 <바가바드기타>. 과연 이 책의 어떤 점이 간디로 하여금 평생에 걸친 자신의 의지처로 삼게 했을까?

간디, 하면 우리는 '비폭력' 을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도 한때 무장봉기를 꿈꾸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간디는 "우리가 영국과 싸우려면 싸움에 알맞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서, 아주 부끄럽게도, 두 명의 영국인으로부터 함께 이 책을 읽자는 권유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빨려 들어가듯이 책을 읽었고, 비폭력의 씨앗을 움틔운다.

힌두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바그바드기타〉는 약칭하여 〈기타〉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지고자(至高者(神))의 노래' 라는 뜻이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가운데 제6권 〈비스마파르바〉 제23~40장에 나오는 700구의 시를 말한다. 본래 〈기타〉는 브라만교도가 아니었던 바가바타파의 경전이었으나 브라만교에 섞여 들어가면서 종교적 시로 변모했다. 그러다 보니 〈기타〉에 대한 해석도 관점과 개성에 따라 다양해졌고 많은 주석서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말로 옮겨진 이 책은 '간디' 가 해설한 것이다.

〈기타〉를 '무아행(無我行)' 을 일깨우는 경전으로 여긴 간디는, 1926년 2월 25일~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매일 새벽,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강의하고 토론했다. 〈기타〉는, 제1장에서 전쟁터를 묘사하고 2장~18장까지는 크리슈나와 그의 친척이자 제자인 전사(戰士) 아르주나가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간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타〉가 묘사하고 있는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인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폭력에 대해 간디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맹목의 사랑이나 증오에 휘둘리지 않으면, 폭력은 생길 수 없다"며, 〈기타〉에서 비폭력의 정신을 찾는다. "〈기타〉는 우리가 분노에 무력해지기를 바란다. 세 가지 구나(guna, 성질 또는 존재 양태)에 영향 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은 분노를 아예 느낄 수가 없다." 굳이 불교식으로 부연하자면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는 말이겠다. 그는 또 전쟁터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며, 몸 자체가 폭력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누구든지 남을 두려워 하고, 재산을 쌓아 두거나 육체의 쾌락에 빠져든 사람은 틀림없이 폭력을 휘두르며 싸울 것이다."

간디가 해설한 힌두 경전 미망 빠진 인간내면 해부 간디의 '비폭력' 모태

폭력의 원인에 대한 간디의 통찰은 불교 사상에도 닿아 있다. 그는 현자(賢者)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폭력은 환(幻)에서 온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양 가진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임을 일깨우는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현상은 허공 꽃임을 일깨우는 〈원각경〉의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폭력은 환에서 온다."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 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그들은 종교, 자존심 그리고 문명이라는 환(幻)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다.

〈기타〉가 힌두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는 미망에 사로잡힌 인간 내면의 실상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크샤(mosksha. 해탈)의 길이 밝혀져 있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만화에 불법과 슬기가 들어있네"

월간 여성불교 '만화로 보는…' '이야기…'





우리는 어렸을 적에 만화로 조상과 역사를 만나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만화와 친숙해지면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월간 여성불교가 내놓은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와 〈이야기 사랑방〉은 불법과 선조들의 지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는 '현장 삼장이 〈반야심경〉을 전수 받은 비화' 를 시작으로 '가슴 속에 든 불법', '수행자를 박해하는 죄' 등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25편의 불교설화가 실려 있다. 값 3천2백원.

반면 〈이야기 사랑방〉은 해학 속에 숨어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상인과 보석', '돈과 정의' 등 모두 19편을 수록했다. 지은이는 〈보물섬〉 〈학생과학〉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강병호 씨. 값 2천4백원.

김중근 기자

일본 선불교 똑바로 이해하기



'일본선의 역사' 보광 지음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이 내놓은 〈일본선의 역사〉(여래장)는 일본 불교에 대한 몰이해의 벽을 슬쩍 허문다.

보광 스님이 일본선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일본선불교사를 강의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일본은 종파불교여서 일본선에 대한 연구서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5년 12월부터 3개월간 일본불교대학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주제는 '일본선에 대한 연구'. 이 책은 바로 이 연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일본선의 개관을 비롯해 중국선의 전래기, 일본선의 형성기, 선사상의 재편기, 명치 이후의 선 등 일본선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한국의 전통 조경'
홍광표·이상윤 지음

종교·사상이 있는 우리 조경



◇해남 대둔사 무염지.

'조경박사' 홍광표·이상윤(동국대) 교수가 〈한국의 전통 조경〉(동국대 출판부)을 펴냈다. 사찰, 궁궐, 주택, 별서, 서원 조경을 한데 묶어 알기 쉬운 교양서로 펴낸 것이다.

두 지은이는 한국의 전통조경이 과연 어떠한 종교적,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조영자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골몰한다. "조경이 특정시대와 장소의 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는 물리적 표현의 결과이고 문화현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성을 통해서 구체화한 것인 만큼 조경작품에는 당연히 종교, 철학, 사상적 인자가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못한 조경작품은 그 자체가 이미 조경이 추구하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경을 살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사찰, 궁궐, 주택, 서원 등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각각의 대상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선정, 직접 답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는 전공자들을 위한 책을 있었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많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100여 개의 도면과 50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한 이 책은, 조경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국 조경의 실체로 다가가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궁궐조경, 사찰조경, 서원조경 등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작품은 조영의 역사와 배경, 입지성, 배치형식 및 공간구성, 경관요소로 세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어 답사의 길잡이로도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선림승보전	원 철	장 경 각
5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6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7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정신세계사
8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9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10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



정태혁 강해
신국판/247쪽/값9,500원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삶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고 귀의 할 수 있는 아미타불의 대구제력이 절실히 요청되는시대입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라' 는 대승불교사상의 꽃인 정토신앙을 세친보살이 '왕생론' 이라는 게송으로 쓴 것을 중국의 담란대사께서 정토왕생을 길을 밝히기 위해 쓴것입니다. 오랫동안 한문원전속에만 있는 이 왕생론을 정태혁 교수님이 현대인들이 읽고, 삶의 원천이 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 할 수 있도록 강해 하신 것입니다.

도서출판 동산법문
☎ 02-732-1206-8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남산스님의 수족온욕법

- 간편한 수족온욕법으로 과학을 앞서는 치료효과를 경험-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282쪽/값 10,000원

이 책은 남산스님이 15년간 연구, 임상실험한 민간치유요법을 근거로 수족온욕법의 효과를 100% 증대시켜주는 핵심 파스요법 및 테이핑 요법 145가지 및 각종 질병에 알맞는 수족온욕법의 시간과 물온도를 상세하게 수록 하고 있다.
평생동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이 요법을 시행하면 성인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족온욕법은 운동법이고 치료법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수족온욕법은 15년간 손수 임상실험을 거쳐 얻은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온욕법을 경험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 남산스님이 말하는 수족온욕법-

하남출판사
☎ 02-720-3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와 타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기고 / 2001 중국기행 1
장장 40여 일 동안 광활한 대륙의 여정이 현장감 넘치게 펼쳐지는 일지
스님의 중국 여행기
제1화 - 실크로드의 관문, 장안(長安)에서 현장과 의정을 만나다

해외불교 법문 - 일본 禪불교를 미국에 포교한 스즈키 순류 선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

연암 박지원의 불교이야기
「선귤당기(蟬橘堂記)」 - 사람의 이름은 매미의 허물이나 귤의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화보특집 - 밀교의식이 강한 일본의 불교 의식구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람이 그리워질 때…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풀잎의 승천(昇天)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춘회 고자화 거사, 불국생 김미희 보살

▶ 그동안 연재된 7개 분야 총 26명의 불자들
· 학술 - 김잉석, 김영수, 황의돈, 박봉석
· 재가불교운동 - 장경호, 조인화, 윤주일, 여동명
· 언론/출판 - 장상문, 이한상, 이희익
· 문화/예술 - 고유섭, 한영숙, 서창업
·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순, 양건식
· 사회운동 - 유대치, 김기추, 김성숙, 천진한
· 보시/신행 - 백선행, 김부전, 고자화, 김미희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충북 충주시 숭선사터에서 국내 최초로 출토된 금동연봉 장식.

금동연봉장식 국내 첫 출토

충주 숭선사터…명문기와도

고려 태조 왕건의 둘째 부인(충주 유씨)이 죽은 뒤 아들 광종이 창건한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숭선사터에서 금동 연봉 장식이 국내 최초로 출토됐다. 지금까지 전하는 연봉 장식은 대부분 조선시대 백자 와정이며, 지붕에 금동 연봉 장식을 썼다는 기록도 전하는 게 없어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충청대학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17일 현장 설명회를 갖고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숭선사터 2차 발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다량의 금동연봉 장식과 사찰 이름이 새겨진 기와, 분청 철화 당초무늬병, 음각 연화문 접시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국내 최초로 발굴된 금동연봉장식은 길이 33cm, 연봉 폭 3~4cm, 철정 지름 약 1cm의 마름모 모양으로 4개의 연꽃잎을 겹꽃으로 표현했다. 장준식 관장은 "금당의 지붕 윗면 가장자리에 박았던 와정을 금빛 찬란한 연봉 장식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볼 때 당시 화려했을 건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며 "국가 주도로 창건된 숭선사의 사격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춘 창숭선사 추복선비(春 創崇善寺 追福先妣)', '□국사(國寺)', '성화십오년(成化十五年, 조선 성종 10년 · 1479년)'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의 출토로 창건 이후 3차례에 걸쳐 중창이 이뤄졌으며, 사역의 변화가 심했던 '만력(萬曆, 조선 선조 12년 · 1579년)'에 절 이름이 '□국사'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조사 때 발굴돼 큰 관심을 끌었던 분청사기 장군 안의 액체는 알데히드계와 케톤계의 화합물이 주성분이며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봐 꿀이나 꿀을 함유한 한약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물관은 덧붙였다. 아직 정확한 성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권형진 기자

뇌허 김동화 박사 탄생 100주년

세미나·전집출간 '뜻 기린다'

근대 한국불교학 초석 다져
'불교학 개론' 후학 필독서

근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 1902~1980)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학문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뜨겁다. 생애와 학문세계를 더듬는 학술 세미나에 이어 〈뇌허 김동화 전집(전 15권)〉도 다음달 출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25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원효관에서 '뇌허 김동화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애와 사상, 신행불교운동 제창과 전개, 뇌허의 학문세계의 비전과 그 계승, 김동화 선생과 입정대학 등의 분야로 나눠 '뇌허 김동화 박사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조명한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이봉춘 교수(동국대)는 "지금 불교학을 접하는 이들 가운데 김동화 박사의 학문과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현대 한국불교학은 김동화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김동화 박사의 생애와 학문을 통해 한국불교학의 태동과 현실,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화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여 한국불교학 연구의 체계를 세운 대표적 학자다. 평생 22권의 저서와 20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논설을 남긴 그의 학문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소승 · 대승 불교, 중국 불교 및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대의 관심사는 불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였다. 불교사, 선사상사에서부터 구사학, 유식학 등 불교 교리 전반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대 불교학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54년 지은 〈불교학 개론〉은 근대적 의미의 우리 나라 첫 불교 개론서로 강원 교재 외에는 불교관련 저서가 전무한 당시 상황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였다.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

김 박사의 연구업적은 뇌허학술원(원장 관응)과 공동으로 간행위원회를 구성, 전집으로 출간한다. 〈불교학 개론〉 〈불교교리 발달사〉 〈원시불교사상〉 등 저서와 논문, 논설, 잡문을 모두 담았다. 11월 16일 오후 5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054)770-2506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화엄석경 복원 2009년까지 컴퓨터그래픽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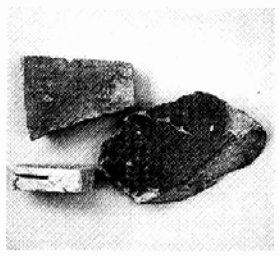
파편 1만6천여장 발견 … 화엄사 26일 세미나

전남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의 보존과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화엄사 화엄석경은 돌 경전으로,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문무왕 10년(670년) 화엄사 중창시 장육전(지금의 각황전)을 세우면서 네 벽을 흙 대신 화엄경을 새긴 돌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장육전이 불타면서 석경도 깨어져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만6천여 장에 달하는 파편들. 1961년 발굴조사 때 발견된 1만4천여 장은 1990년 보물로 지정됐다. 1999년 화엄사 동탑 수리 과정에서 380여 장이 발견된 이후 2천여 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존 석경은 그대로 보관하고 대웅전 뒤에 건립중인 보장전에 신라 당시의 화엄석경을 복원하는 작업은 지난해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맡아 하고 있다. 현재 판독 가능한 1만4천여 장에 대한 탁본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탁본과 정밀사진촬영을 토대로 2009년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깨진 조각을 맞춰 석경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원작업의 초점은 60화엄경과 80화엄경, 40화엄경 중 어느 것을 저본으로 석경을 만들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3~4가지로 추정되는 서체와 돌의 종류 역시 복원을 위해선 빠뜨려서 안 될 요소다. 최근에는 중국의 측천무후(690년 즉위)가 만든 글자체가 석경에서 확인돼 제작 연대 추정의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보물 제1040호 화엄석경.

불교미술사가, 서예가, 석질학자, 금석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나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복원을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061)782-7600

권형진 기자

"석옥청공과 태고보우 선사상 사자상승 속단 이르다"

차차석 박사 주장

조계종 중흥조이자 태고종 등 10여 개 종단에서 종조로 모시고 있는 태고보우 스님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주제의 학술 세미나가 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태고보우 스님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와 양평 사나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차차석(동국대 강사 · 사진)씨의 '석옥청공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비교'였다. 태고보우 스님이 법을 인정받았다고 알려진 증국 임제종의 제18대 법손 석옥청공 스님과의 사상적 비교를 통해 태고보우 스님의 선사상의 본바탕을 직접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였다.



두 스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심성관과 수행관, 교학관과 사회의식을 살펴본 차 씨는 "둘 다 마음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했으며 승단의 문란을 비판했다는 점 등에서 사상적 상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도 "사상적 사자상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차이점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옥청공 스님의 어록에는 화두와 정토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비해 태고보우 스님은 화두와 유심정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석옥청공보다는 고봉원묘의 직계인 명본이나 천여의 사상적 경향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두 스님 모두 마음의 편재성이나 초월성에 입각해 사회현상을 보면서도 정치와 무관하게 청빈낙도를 즐긴 석옥청공과 달리 태고보우 스님은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차 씨는 이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사제지간의 영향인지 동일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당시 이미 우리 나라에도 임제선이 전래되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묘청 스님과 팔성당

일반인들에게 묘청(妙淸, ?~1135) 스님은 풍수도참술을 부리는 술승으로, '묘청의 난'을 일으킨 요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궁예나 신돈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기록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술승이나 요승이 아닌, 긍정적 시각에서 스님을 다룬 것은 단재 신채호가 처음이었다. 단재는 '묘청의 난'을 고려 이후 천년의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역시 고승으로서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스님에 대한 기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에 의해 철저히 누락 · 왜곡되었고, 조선 초 성리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김부식의 사관을 따라 〈고려사〉 열전의 반역전에 올려 놓았다.

스님은 평양출신으로 속성과 본관은 알 수 없고 뒤에 이름을 정심(淨心)으로 바꿨다고 한다. 왕의 총애를 받고 조정의 근신으로부터 성인으로 추대되었으며 당대 문인 정지상이 추종할 정도의 고승이었다.

스님은 궁궐에서 관정도량 · 반야경도량 · 무능승도량을 수십일 간 베풀도록 하였고 평양을 대화세(大花勢)의 명당이라고 하여 새로운 도읍터로 지정하였다. 그곳 임원궁성 곁에 팔성당(八聖堂)을 지었다. 이 팔성당에 여러 부처를 본지(本地, 본체)로 하고 모든 선인(仙人)을 수적(垂迹, 묘용)으로 하여

풍수도참술의 요승 '잘못 평가'
보수세력 맞서 불교혁신 시도

국내의 선인(仙人)을 각기 배당하였다. 이것은 바로 고유의 산악숭배사상과 외래의 선불(仙佛)사상을 혼합한 것으로 일종의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이란 것이다. 이 본지수적설은 오대산 오만진신(五萬眞身) 신앙과 같이 고대 이래 널리 행해졌던 것이며 〈삼국유사〉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백성의 복리(福利)와 왕조의 기업(基業)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며, 이 모두가 스님의 정토구현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런데 스님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다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흔히 스님의 반대편에 섰던 김부식을 유가적인 사대주의자로 보지만, 그의 동생은 유가종의 승려였고 그 자신도 의천 스님의 비문을 지을 정도로 불교계와 가까웠다. 종국에 난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군대 가운데에는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종의 총애를 받았고 민중들이 추앙했던 스님을 추종했던 승려들에 대한 흔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지만 아마도 스님은 당시 왕실과 밀착된 화엄종과 이자겸 등 문벌귀족과 연계된 유가종의 보수적인 성향에 맞서 불교계와 나라에 새로운 혁신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기에 스님은 민중들을 구하고자 풍수도참을 방편으로 삼고 고려의 숨통을 쥐고자 하는 금 나라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맞서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황인규/동국대 강사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혹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자기가 불통이면 남도 불통으로 보이는 것"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52

(51) 폐허의 천성사(千聖寺)

소림사를 떠난 달마 조사는 우문(愚門)의 천성사(千聖寺)를 찾았다. 천성사는 대자산(大慈山)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듯싶었다. 돌이 깔린 오솔길엔 이끼가 퍼렇게 덮여 있었다. 달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무성한 숲과 절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 밭이 특히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지만 뇌리에선 범음(梵音)과 절의 모습들이 중첩되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순간 달마는 이 곳이 천성사인 줄 알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터전임을 느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성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아서 찾지 않았을 뿐이었다.

"천성, 천성. 노납이 찾아왔소이다."

달마는 혼잣말을 되뇌며 천성사 정전에 눈길을 꽂았다. 웅장하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절에서 들려 오는 듯싶었다. 달마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오직 산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향내로 가득한 본당 안

천성사의 산문에 들어선 달마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폐허로 변해 버린 절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만사가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벗어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천성사의 옛모습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달마는 한참동안 그 자리에 선 채 눈을 감고 숨을 고루었다. 그의 망막엔 휘황찬란하던 옛 천성사의 환영이 떠올랐다. 하지만 눈을 뜬 그의 앞에 나타난 실체는 퇴락한 모습일 뿐이었다. 산문을 뒤로 하고 잡초가 우거진 뜰을 가로질러 본당으로 갔다. 오랜 풍상을 겪기는 했지만 대웅보전(大雄寶殿)이란 현판만은 뚜렷했다.

본당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전 앞 향로에서는 세 줄기의 향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방안에 가득 찬 향내로 미뤄 분명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달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과 함께 궁금증이 일었다. 본당 옆 요사채 쪽을 바라보니 도인풍의 사람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게 누구요? 보아 하니 화상(和尙)이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진승(眞僧)같기도 하오만…. 진승인지 가승(假僧)인지 한 번 보십시다."

압도하려는 듯 말을 걸어왔지만 달마는 웃으면서 목례(目禮)로 대신했다.

"허허…, 그렇소이까. 그대가 진(眞)이면 전체가 진(眞)이요, 그대가 가(假)이면 전부가 가(假)가 아니겠소이까."

달마의 응수에 도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도인의 기세는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았다.

"화상은 어디에서 오셨소?"

"진공사(眞空寺)에서 왔소이다."

"진공사라구요? 그런 절 이름은 내 생전 들지도 못했소이다. 솔직하게 말하시오. 화상은 어디서 왔소?"

> "바다에 풍파가 이니
> 사공이 배 띄우지 않네
> 자연 그대로 맡길뿐"

도인은 언성을 높였다. 달마는 그것을 누그러뜨리기나 하려는 듯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오는 곳에서 와서 가는 곳으로 갈 뿐이외다."

도인은 또 다시 다그쳤다.

"여보시오. 태어나서 머물고 있던 곳이 있을 게 아니오?"

"나의 고향을 물으시는 겁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 곧 내 고향이올시다."

"여보, 그렇게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소? 화상이 이 곳에 오기 전에 머물던 곳이 어딘지 묻는 것이오."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중이 어찌 정한 곳이 있겠습니까. 구름 타고 온 세상을 노니는 날더러 돌아가는 곳까지 묻는다면 쌍림수(雙林樹) 아래 적멸(寂滅)을 닦는 곳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소이다."

"그래요? 화상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또 무엇이오?"

달마는 대답 대신 도인에게 되물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도인께서는 고명(高名)하신 분 같은데 존함부터 들려 주시기 바라오."

도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답했다.

"나는 도가(道家)의 종지(宗旨)를 받드는 종횡(宗橫)이라는 사람이오. 그대는 누구요?"

"빈승의 성은 성(性)이라고 하고 이름은 왕(王), 자(字)는 공명(空明)이라 하오."

달마의 대답에 종횡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 일찍이 온갖 성씨를 다 보아 왔지만 '성' 이라는 성씨는 보도 듣도 못했소."

달마가 응수했다.

道家의 종지 받드는 종횡

"도인께서는 온갖 성씨를 다 알면서 자기 성(性)은 모르시는구려. 천지개벽할 때는 오직 일점(一點)의 진성(眞性)만이 있을 뿐이었소. 사람은 누구나 이 한 점 진성을 지니고 있소이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에도 진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외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행(五行) 속에 들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성명 곧 이름도 달라지는 것이외다. 이름만 찾는 것은 진(眞)을 인정하지 않고 가(假)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오다."

종횡은 달마의 대답에 어떤 회의를 느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다.

"화상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오."

"도인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솔직하게 대답하리다. 내가 온 길과 가는 길은 한 마디로 말후일착(末後一着)이외다."

종횡은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다.

"산에 오르려면 꼭대기까지 가야 하고 바다에 뛰어들면 밑바닥까지 보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달하는 마지막 낙착점, 그 한 곳이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을 이야기하리다. 실은 빈승은 남천축의 사람이외다. 도(道)의 근원지인 동녘 땅을 찾아 수행하고자 온 것이외다."



◇지운영(1852~1935) 作 달마도(종이에 담채, 140×65cm, 개인 소장).

"남천축이라니 그 곳은 머나 먼 이역 땅이 아니오.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말해 줄 수 있겠소?"

"10만 8천 리이외다."

"얼마나 걸려 이 땅에 왔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소이다."

"이 땅에 단기간에 왔다니 믿어지지 않소이다."

"빈승은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나의 고향에 달마 조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일시진(一時辰) 아니 반각(半刻)이면 10만 8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소이다."

종횡은 도(道)의 세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지닌 화상이 구태여 이 땅을 찾아 수행하고자 했다는 말에는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았다.

"화상께 묻겠소. 이 땅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오?"

"하나(一)의 진법의 발원지인 동녘 땅에 도가 끊겼다고 하기에 전도교화(傳道敎化)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외다. 한데 안타깝게도 나 같은 밝은 눈의 고사(高師)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소이다 그려."

종횡은 하나의 진법이란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도가(道家)에서는 일찍부터 하나(一)가 곧 진도(眞道)이며 그것은 천부경과 직결된 것이라고 일컬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상이 말하는 하나(一)의 진법은 무엇이고 어떤 수행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해 줄 수 있겠소?"

달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나는 산과 바다를 구름 따라 노닐 뿐 무슨 수행법이 있는 것은 아니외다."

"무엇이라고? 수행법도 없이 무엇으로 전법(傳法)한다는 말이오?"

달마는 짧은 게송으로 대답했다.

"한가하면 청정(淸淨)을 지키고, 피곤할 때는 누워서 자네. 배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네.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싶으면 신선이 되네. 바다에 풍파가 이니 사공이 배를 띄우지 않네. 만사 자연 그대로에 맡길 뿐이네. 이 땅에 온 지 1년반의 광음이 지났네. 아무도 나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네."

달마의 게송은 그야말로 대도(大道)의 현기오묘(玄機奧妙)를 축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횡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달마에게 핀잔을 주었다.

"여보시오. 화상처럼 수행법도 없이 일규불통(一竅不通)인 사람을 누가 스승으로 삼는단 말이오?"

달마는 주저하지 않고 반박했다.

"일규불통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 한 구멍을 통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도인이구려. 자기가 불통이면 남도 불통으로 보이는 법이 아니겠소. 진정으로 한 구멍을 깨달아 통하게 되면 초생료사(初生了死)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부처님을 증득하거나 진인(眞人)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 말에 종횡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는지 버럭 화를 냈다.

"당신 같은 화상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소. 어서 이 곳을 떠나시오."

그러나 달마는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도가의 법사를 볼문에 귀의시킬 심산이었다.

"내가 이 곳에 올 때는 오직 한 줄기 정로(正路)만 있더니 떠나고자 하는 지금 갈 길을 보니 천만 갈래인 것 같소. 부디 나에게 나갈 길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오. 그 가르침은 나의 천년 수행보다 윗길이 되리라고 믿소.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교시해 주소서."

그제야 종횡은 마음이 풀리는 듯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만약 내가 화상과 종교가 같다면 지도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도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 도인 그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소이다."

師弟의 예 갖추는 달마

"선천(先天)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의 구별이 없이 본래 일가(一家)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제각기 세 개의 종교를 만든 것일 뿐인데 근본이치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달마가 간곡하게 말하자 종횡은 갑자기 교만심이 가득해졌다.

"하긴 그렇소이다.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구해 줄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오. 나에게 우선 스승의 예를 올리도록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소?"

나이 많은 달마 조사에게 종횡은 고개를 쳐든 채 눈을 아래로 깔며 고자세를 취했다. 달마는 얼굴빛 하나 변함이 없이 차분히 대응했다. 기왕 종횡을 불문에 귀의시키기로 마음먹었거늘 그의 무례한 요구를 뿌리침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달마는 종횡이 시키는 대로 사제(師弟)의 예를 갖췄다.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램인접, 헤드폰, 사용책자집 / 미국 마이크로펌사)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 오라진동루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인경 (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메가플러스 명상기의 특징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청(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응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정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을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금강토굴 호경 김휘철 합장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 안되는 분
◆나쁜꿈에 시달리는 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황토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요"

◆수백과 전자파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 및 유해정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이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입니다
◆황토 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충족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수자령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어둠 속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한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생명들을 위해 나무 본존 지장 보살의 원력으로 천도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그 생명들이 지금 아빠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 우리들은 쉽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밖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들의 원인 모를 병환,
여기저기 무너져 가는 사업체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함부로 버린 생명들의 저항입니다.
쉽게 버렸던 생명들을 이제는 감싸안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생명들의 한을 믿어주시고 현재 우리의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좋은 세계(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발원합니다.
핏덩어리 채로 죽어간 모든 생명에 다같이 참회하여 광명을 찾아줍시다.

선망 부모 천도제 상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648-5호
전화 053)957-9551, 954-9129
팩스 053)957-9551 휴대폰 011)398-9807

천도제 비용은 한 명당 3만원(옷, 과자, 우유)입니다

성불사 법장 합장

종립학교를 가다 · <끝>

(17)은석초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은석초등학교는 1963년 현 서울대학병원 자리에서 개교해 65년 등국학원에 편입, 76년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했다. 38년간 배출한 졸업생은 8천여명. 이들은 정치,경제, 법조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은석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은석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보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을 실감케한다. 그만큼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갯벌 · 농장 찾아 생명의 소중함 배워요"



◇불교계 유일의 초등교육기관인 은석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잠재능력 개발이 교육 핵심"



이무열 교장

"21세기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덕적, 창의적, 자율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기초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선재동자들의 자상한 아버지 이무열 교장은 불심을 통한 심성교육이 기초학력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어린 아이들은 기본 예절과 질서 의식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그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자타이리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은석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은석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이 교장에게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 불교유일의 초등학교에서 병설 유치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 그래서 학교를 떠나기 전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는 또 불자들에게 어린이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하루 한가지씩 실천토록"

교법사실에서 김한기 교법사



매일 출근하자마자 법당에 들러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원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한기 교법사. 그는 학생들에게도 아침에 법당에 들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지씩 정해서 하루동안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라고 가르친다.

초등학생은 동적이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김 교법사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레 불교를 알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참선이나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백유경에 나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식의 설법을 한다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회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파라미타 연구위원이자 25년간 보이스카웃 활동을 하며 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김 교법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법회교재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탐방 체험학습 '백미'
63년 개교…8천여명 배출
'멀티클래스' 첨단 수업 실현
특기 살린 동아리 200여개

각 학급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공립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에어콘, 생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학습기자재로 43인치 대형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 등을 비치해 멀티클래스(Muti-Class)를 실현했다. 단순히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도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멀티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부진아가 없다. 그래서 기초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영어, 컴퓨터, 예체능 교육에 역점을 둔다. 은석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매주 2시간씩 생활영어, 2학년부터는 한자, 4학년 때부터는 컴퓨터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영어, 컴퓨터를 배우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음악은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등 특성화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방과후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해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있다. 특기적성 동아리만도 수학, 과학, 영어, 미술 등 교과 과목과 바이올린, 빙상, 수영, 서울시 답사반 등 20여개. 학생들은 저마다 재미를 느끼는 동아리에 가입해 전담 교사의 지도 하에 구슬땀을 흘린다. 특히 학교측에서 은석 예술제, 체육대회, 가족 테니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성을 높이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학교 공부는 대부분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아래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배우는 내용을 명확하기 이해하기 어렵고 쉬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은석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그야 말로 생생한 산공부를 시키고 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주제를 정해 문제해결방법을 찾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및 학년별, 도농간 교류 학습 등으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문화탐방이나 집안 일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또 학년별 체험학습은 충북 증원 문화권 답사, 강화도 바닷가 체험 등의 테마로 실시, 학생들은 매년 전국을 돌며 현장체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 활동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들간의 우정을 쌓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종교를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없다. 대신 은석초등학교에서는 연화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이 왕성하다. 연화학생회는 회원만도 250명. 모두 모여서 법회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목 · 금 · 토 3일로 나누어 법회를 보고 있고 가족수련법회, 수계법회,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연화 어머니회와 교직원들도 매월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과거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 한 반에 25명정도가 경기중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로 명성을 떨쳤던 은석초등학교. 지금은 이사장 오녹원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708명의 어린 선재동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은석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은석의 자랑 도 · 농교류 체험학습

노량 · 마곡 초등교 결연 … 산교육 펼쳐



은석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인 체험학습. 그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기다리는 것은 도 · 농간 교류 체험학습이다. 은석초등학교는 경남 하동 노량초등학교와 충남 공주 마곡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다. 도 · 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은석초등학교 4, 5학년학생들이 이들 자매학교를 각각 방문하고 또 자매학교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나들이를 하는 행사다. 지난 8월 28일 은석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공주 부여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마곡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곡사, 부여박물관, 고란사, 낙화암 등 백제 문화를 답사하고 김매기, 고추 옥수수 따기 등 농장체험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5학년 학생들은 노령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임진왜란 격전지를 탐방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등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이같은 합동 체험학습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정 청소년수련관 만화축제 열어

25~28일 부산시청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25일부터 4일간 부산광역시청 야외무대에서 '2001년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만화동아리 부스전, 만화 포스터 전시회, 만화영화 상영회, 만화작품, 만화체험실, 만화작가와의 만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끝난뒤에는 부산시 교육감상을 비롯해 광역시장상 등 푸짐한 시상식도 마련된다. 또 청소년 댄스 페스티발과 에니메이션 상영회 등도 개최된다. www.power1318.org (051)868-0750

청소년 단신

선덕사 유치원 사진전

광주 선덕사 유치원은 25일까지 '숲속의 아이들, 선덕사 유치원 사진 전시회'를 마련한다. '숲속의 아이들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계림동 E마트 앞, 두산 타운 사거리, 두암 주공4단지 건너편 등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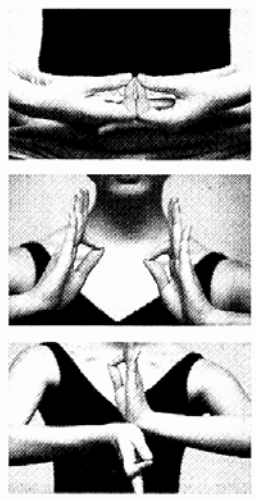
동아리 '혼' 댄스대회 대상

목동청소년수련관 댄스 동아리 '혼'은 7일 '양천구 유스 챔피언 댄스 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상을 차지했다.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 2년생들인 '혼'의 멤버들은 중학교 2년때부터 활동해 왔으며, 일부는 방송국 백댄서로 활약중이다. 목동청소년 관장 경륜 스님은 "댄스 동아리 '혼'은 목동 청소년 수련관의 동아리 활동이 정착화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⑲

• 수인법-상품 •



수인법을 수련할 때에는 손의 위치와 형태가 올바르게 되도록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손의 각도와 손가락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최대한 손과 손가락에 기를 모아 행한다. 수인법 하나하나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다른 형태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변형의 조화는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엄지와 검지 붙이고 남은 손가락 곧게 펴

먼저 상품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상품의 자세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곧게 뻗는 형태다.

1.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기를 모은다.

2. 상품의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검지손가락 등을 직각으로 서로 맞붙이고, 양손의 손등도 직각이 되게 한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포갠다. 상품상생의 자세다.

3. 상품의 기본 자세에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당겨 마주보게 한다. 상품중생의 자세다.

4. 마주보고 있는 두 손 가운데 한 손을 밖으로 돌려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목과 손목이 맞닿게 한다. 상품하생의 자세다.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무주상 보시여야 더 크게 받아

▲스님: 여러분은 질문하시고 또 나는 대답하면서 서로 서로가 이어가는 진리를 참구하자는 뜻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질문자1: 한국에서도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불법에서는 자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사람은 육신이 자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본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불성의 집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불성과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자기 마음씀씀이에 의해서 모든 걸 확대해서 굴러가는 뜻이고, 불성은 힘을 배출해 주는 겁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에 중심이 있어서 바퀴가 이탈을 안하고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뚱이 속에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몸뚱이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도, 그러니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관하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 이끌어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입력이 되는 대로 의식이, 의식 속에 차례로 입력이 된 자체가 그 시기가 되면 그냥 발사가 되는 거죠. '넌 죽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인과성 등 다섯 가지가 주둔을 하는 겁니다. 세균성 · 인과성 · 유전성 · 업보성 ·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요.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충동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죠. 상대성의 핑계가 돼 가지고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깐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딛고자 하는 것이 허탈할 때, 허망할 때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가를 제시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자2: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음악 공부를 박사과정에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직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수가 돼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병원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갈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 많은 청년들도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 길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그거는 빈약한 생각이죠. 사람은 물질로써 보시를 하는 거 보다도 마음으로, 일체제불이라는 노래가 있죠. 음파를 통해서 전 우주에 전해지도록 한다면 오히려 그 음파를 통해서 전부 마음들이 개선되고 지혜로워지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말을 했죠. 물질하나를 보시하는 것 보다도, 물질은 당장 쓰고 나면 그만이고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공심으로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그거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얻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이 보게 내가 얼마를 시주했다, 얼마를 줬다 이런 거를 모두 생각하시는데 함이 없이 해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무주상 보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갈 때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가지요?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값어치대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준 게 없지요. 그 사람은 돈을 더 받은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줬으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얼른 쉽게 말해서 무주상 보시를 했다면 그 값어치를 더 크게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 거를 받지 못해요. 한 게 없기 때문에, 입으로 구업을 지었기 때문예요. 지금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법우가 노래를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하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그렸다든가 한다면 살아있는 노래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그림도 그려야 하고 음성도 그렇게 낸다면 그 음성이 가사에 의해서, 그 가사의 용도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건질 수 있는 가사냐,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가사냐, 평화롭게 하는 가사냐, 가사에 따라서 음성이 음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말입니다. 지구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게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깐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돌이라 해도, 이거는 내가 공부한대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공부를 했다면 꽃나무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통해서 남이 아니고 서로가 조직적인 우주전체가 조직적인 진리로서 에누리 하나 없이 진행해 나간다, 이런 것이 틀림없죠. 질서정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질서정연치 못하니까 질서정연치 못하게 세상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득이 없고, 자기를 자기가 망치고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더래요. '내일이면 딱 부도가 나는데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전부 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하는 것 보다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텐데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극하게 이 마음공부를 그래도 웬만큼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겼으면 뺏었다가 줬다가 하지말고 저 나무들이 싹하고 뿌리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붙어 있다 이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 뿌리를 믿고서 싹은 편안하게 웃고 부지런히 뛰기만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빙그르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것을 다 살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럼 우연이냐, 우연이 절대 아니죠. 우연은 절대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 밖엔 얘기 못하고, 여러분이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우물 안에서만 있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무렇게도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크나 작으나,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차원이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생각 하기에 달린 거지. 그건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더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 이러거든.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삼살방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동 · 서 · 남 · 북이 다 터졌다 이거야.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우리가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은산 철벽도 뚫을 수가 있어요. 강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도 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관습이 있으니까 힘든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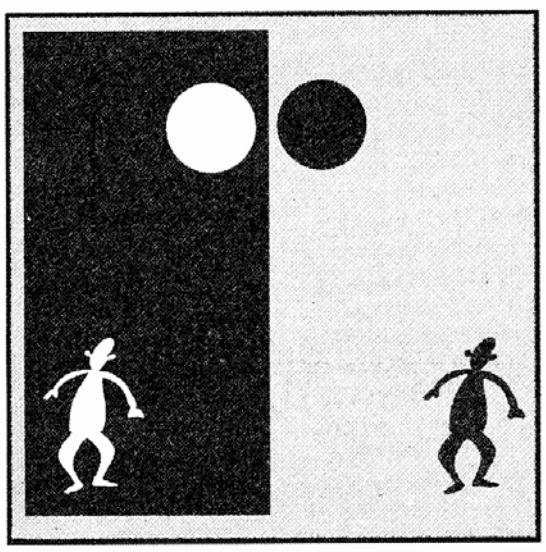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입력된 대로 현실에 반영

나의 '뿌리' 인 '주인공' 에 되돌려야

마음은 착오 안 생겨

▲질문자3: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사실은 물리학을 전공 하게된 동기가 물리학을 하게 되면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마음은 빛보다 밝아서 아니 가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이 빛보다 빠르다는 그 얘기보다도 무한하다는 거, 순간적으로 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요.

▲스님: 빛보다 빠르다는 것은,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겨요. 안 그럴까요?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무한해서 어디고 착오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아는 거, 또 남의 말을 듣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거, 모든 거를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실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신통을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대뇌를 통해서 누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천체 물리학도 되고 심성의학도 되고 또는 심성과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비유할 때 몸 하나에 수 백,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집합소밖엔 안돼요. 그 생명들의 집합소! 그러니까 한 개체지요. 지구로 비유할 수 있어요.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다. 지구 바깥을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내 몸 하나 가지고 지금 모두 연구하고 마음공부 해 나가면서 알아보면 내 몸이 지구와도 같고 우주와도 같은 거죠. 우주에 관한 건이 생명의 근본, 즉 별성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북두칠성 같은 것도 어떠한 관계로 생겼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모든 혹성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깐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통, 심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차원이 조금 더, 혜안으로 보는 사람 차원이 더 좀 높고, 법안으로 보는 사람 좀 차원이 좀 높고, 아주 높은 사람은 불안으로 보는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낮은 소리만 하게 돼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거는 생각도 안 나듯이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들어 둔다면 앞으로 마음공부를 해 가면서 '아, 이건 이거로구나' 하고 자꾸자꾸 알아지게 되는 거죠.

▲질문자3: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태초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스님 법문집을 보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아, 태초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티끌이 묻어 가지고 윤회의 고해를 겁는가?' 그래서 태초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다면 윤회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는 그게 바로 우리가 시비 분별하는 개념, 이 차원 속에서 일을 대하기 때문에 통 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개념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태초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그 묻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님: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믿을 때 타의의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서 기도하고 빌 때는 지났어요. 정말 지나야 되고요. 종교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은 '나 좀 잘 살게 해 주시요, 못 살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의 형상은 여러분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고 생명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믿는다고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래서 방편으로 모셔 놓고 '당신하고 둘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야 될텐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전부 이름과 형상을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살아나가는 각자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자재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만날 빌어야만 하니까, 얻어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람 · 흙 · 먼지 · 물이 한데 합쳐져 자꾸자꾸 모여 보세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나, 따뜻한 온기가 나오죠? 그게 불이에요. 생명! 태초에 생기는 생명이요. 그게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해졌다. 그러니깐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다 생기고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사람이에요. 왜냐? 미생물로 생겼으니까, 미생물이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나중에 등장한 거죠. 이게 괜한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자3: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또 한가지 배울 게 있는 게요. 미생물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일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내 아버지 아님이 없고, 내 어머니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제일 첫 째 살생하지 마라. 전자에 네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너의 아버지 일 수도 있고, 너의 어머니 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면 네 생명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광대하다고 하느냐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전자에 미련했을 때에 그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스스로 인정받고, 참 착하구나, 정말이지 착하구나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먹고 남한테 추앙 받게 되고 스스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가 어디냐? 지수화풍이에요. 사람만 지수화풍으로 된 게 아니죠. 미생물에서부터 쭉 인간까지 전부가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수화풍으로 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먹구요,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어때요? 에누리가 없어요. 지수화풍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보세요. '내가 죽을 때는 지수화풍이 딱 벌어져 내거는 내가 찾아간다. 바람은 바람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물은 물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불은 불대로 자기가 찾아가요. 어때요?

▲질문자3: 맞습니다.

▲스님: 허허허.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바로 불성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남기 때문에 그 불성의 뿌리가 바로 다시 환생해서 이 세상에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것이 저 은하계 별성이나 우리 마음의 별성이나 불성이나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별성 자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과 육신,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면 물질계 나와 정신계 나가 둘이 아니게끔 통신이 되고 안다면 바로 정신계의 불성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그 모두를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자유권을 얻을 때에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가 내 집안이 안 된다, 된다를 따지고 형상을 놓고 고행상을 걸어 놓고 빌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빌고 기도해서 나 좀 잘 살게 해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어느 집에서 부모가 80살이 넘어서 벽에다 똥을 바르고 망령을 부려서 식구들이 도저히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업이야.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부모도 당신한테 그 고통을 주고, 부모는 차라리 모르니깐 낫지만 아는 당신네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래 당신네들이 지어 놓고 당신네들이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는가 하고 각자 자기의 탓을 하고 마음을 돌린다면 당신네들 걱정근심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내 부모 형제

나는 '내가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이 해라 이겁니다. 당신네들도 나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네들이 못하느냐 이거야. 그래 그렇게 일러 줬더니 얼마 있다가 와서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일러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합니까? 조금도 귀찮게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귀찮게 안하고 돌아가신 거 뿐만이 아니지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인자하게 태어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지요. 그게 법이죠. 그래서 몸으로부터 가만히 보세요. 공생 · 공심…. 생명이 많으니깐 공생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또 생명체가 많고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공심이죠. 또 몸체가 다 각각 작용을 하니깐 바로 공용이지요. 또 공체지요. 같이 모두 있으니까. 그러니깐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어떻게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관하면 아픈 거는 '주인공! 당신밖엔 낫게 할 수 없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런다면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가 돼 줘요. 또 '나를 지켜 줘야지 않아.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하면 보디가드가 돼 주고요. '너만이 해결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는 해결사가 돼 주거든요. 이거를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관세음보살 · 지장보살 · 칠성 또는 문수보살 · 보현보살 등 각종의 이름은 그때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은 용어가 전부 바뀌어서 지켜주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하고. 하하하. 모두 그렇게 변경이 된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대로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다 관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공부를 못할 때는 공부를 하게 끔하는 것도 너 뿐이야,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키

☞ 20면으로 계속

부처라는 이름과 형상에 절하지 말라

☞ 19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자 · 난자를 빌어서 삼합을 한데 합쳐서 잉태가 되게 한 거니까 '네가 형성시켜서 지금도 이끌고 가잖아.' 이거예요.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거,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집을 사서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집을 산 주인이 집을 고칩니까, 딴 데서 고칩니까? 주인이 고치지요. 돈을 내서라도 그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고칠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몸에서 고장이 났다.' 한다면 바로 집주인이 고칠 거 아닙니까. 응당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에 '주인공은 내 자식과 둘이 아닌데 그렇게 안되게끔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거기다 관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일일이 스스로 알려면 나는 절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앞으로 돌에다 세워나도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지 무슨 종교를 믿어서 기도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생명 해치지 말도록

마음을 언제나, 절을 할 때는 내 마음을 항상 아만 · 아상을 다 내려놓고 자기한테 자기가 절하는 거예요. 제 3자한테 절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상을 제거해야 만이 일등 가는 진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고기 덩어리를 믿고 절하지 말라고 하죠. 나를 방편으로 세우고 당신과 나와 둘이 아닐 때 순간, 둘이 아닐 때에 당신한테 당신이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마음도 숙일 줄 알고 지혜로워지고 높고 낮은 것을 다 합해서 둥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말이 길어졌지요.

▲질문자3: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관하는 것과 비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관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러면 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혼잡스럽습니다.

▲스님: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진짜,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듯이 친근한 맛이 있죠. 비가 오거나 한다면 뿌리가 비에 패이지나 않나. 또는 친근한 마음으로 싹이 뿌리를 의지하고 방황하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죽든 살든 뿌리를 믿는다. 죽으나 사나, 안되든 되든 뿌리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돼 주고, 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벌써 관하면 진짜로 의지하고 굶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즉시 통신이 돼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바로 정수에 입력이 돼 버려요. 입력이 되면 입력 된 대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건 없어지고요.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요. 또 입력을 하면 앞서의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고 연구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미묘한 법이에요.

▲질문자3: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자4: 시카고에 있다가 플로리다로 이사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시카고에서 의과대학교 교수를 몇 년 정도 했어요. 전공이 노인 내과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서 개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개업을 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는 노인환자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천도재라는 것도 배웠고 예수재도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도 우리하고 인연이 맞아서 남편의 손을 거쳐서 돌아가시니 그분들도 다 부모와 조상이 되는데 천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구요.

▲스님: 환경에 따라서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옛 방식대로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마음공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생각에 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 째는 차려 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 째는 상대방에서 아무 것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언짢거든요. 좋지 않죠. 섭섭하고. 의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생각으로 하세요. 그것이 한생각으로 그냥 '주인공 너만이 좋은 데로, 요 다음 세상에는 고생 안하고 살게끔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대로 재깍 법이 되요. 그렇게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아상 등 四相 버려야 참된 사람
고개숙일 줄 알면 지혜도 생겨

▲질문자4: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오는데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보느냐하면 어떤 환자는 거의 100% 정상인처럼 보여요. 운전도 하고 돈 계산도 하고 다 멀쩡한데 눈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레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보기에는 보통 생활할 적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려 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항시 누가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새로 의사가 왔다하면은 다 찾아다니는데 고치질 못하거든요.

▲스님: 그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러주기를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깐 그 의식 속에서 그러는 거를 다 주인공에다 맡기라고만 일러주고 의사도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은 결부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은 넣어도 두드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거예요.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허공을 다 떴으려고 해도 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결부가 되면 결부된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또 결부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낫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든 살든 뿌리 믿자

▲질문자4: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남편이 귀동냥을 해 가지고 관하는 거며 선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필요하니깐 관하는 법을 저보고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환자한테 물어봐서 제가 가서 설명은 해주거든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사들만 한 서너 명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 관하는 법을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는 하고 가는데 그걸로 제가 그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주되 그것이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줘야죠. 즉 말하자면 나무로 비유를 하세요. 나무는 뿌리를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당신 주인공이 바로 뿌리다. 그러니깐 뿌리를 의지하고 거기에다가만이 하면은 그 뿌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면 그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일러 주세요.

▲질문자4: 보통 이해들을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다 하는데 이해를 행으로 옮기는 게 저부터도 힘들어서요.

▲스님: 이거보세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행하라 그러고 내버져 두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관하라고 한 사람도 그걸, 삼분지 이는 거기에 보충해 줘야 되요. 허허허.

▲질문자4: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야 그 사람이 경험을 자꾸자꾸 해보면 '아 이러니까 낫더라.' 하면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질문자4: 어떤 때는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스님도 아닌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하는 마음도 들어요.

▲스님: 아니 그건 스님이 아니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스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지들을 않으니까 방편으로 삭발하고 승복을 입는 거죠. 승복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니 중도다. 중도를 중심으로서 펼쳐나갈 수 있는 거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사들도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계성에서 온 건지, 또는 유전성에서 온 건지, 세균성에서 온 건지, 업보성에서 온 건지, 인과성에서 온 건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찝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성에서 오면 의식에서 나와서 미친 짓 하는 거를 다, 그러니깐 타의에서 영계성이 들렀어도 본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타의에서 온 게 아니다. 의식 속에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되 놔라, 주인공에다 되 맡겨놔라 하고 일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나아요.

▲질문자5: 저는 지금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활용편이었습니다. 활용편을 읽어보고 불교가 염세적이 아니구나, 바로 생활 속에서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상당히 인상 깊어서 제가 국제정치학 쪽에 지금 논문을 쓰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응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제정치학 쪽에서는 모든 걸 물질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합당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음공부는 정신세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점을 두고 보고 있는 거는 과연 인간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가느냐. 그렇게 보고 하나의 잣대를 뒀기 때문에 전쟁이나 불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지 않았느냐는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거를 내세우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남을 이롭게

▲스님: 이거 봐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꺼내 쓰죠? 끌어쓰지요. 근데 전력을 끌어쓰는데 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가는 것도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력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근데 불은 켜지고 꺼지거든요. 그런데 전력이 오는 것도 순간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로 내 놓으려니 내 놓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전도되는 문제, 내 의견을 전도되게 하고 또 에너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가령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난 아무 소리 못해요. 알았다고 그럴 수밖엔. 그런데 알았다고 하는 동시에 만약에 에너지가 전도가 된다면 내가 둘 아니게 그냥 전도가 된다면 하혈이 멈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력이 오고 가는 게 없이 오고 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깐 비밀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신계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주 허공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법회 할 때마다 이리로 와요. 법문 비디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보면 딴 거 보고 싶지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본 거라 해도 다음에 보면 또 달라져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구요. 자기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깐 빠지지 말고 항상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 바래요.

※위 법문은 1998년 6월 5일 워싱턴지원 청년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테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일급호텔(전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운젠(1박 운젠지옥,부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 / 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 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299-7700

절에서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제주도
064)713-3888
064)742-5128
011)699-484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052)211-100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본인은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는 선방수좌 입니다.
천도재 49재 각종 제사 기도회향, 법회의식, 기타등등 의식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011)883-1055
대우스님

대입시험 합격성취
◉특수비전 ➔ 신비한 위력의 힘
◉수십년간의 전통 80%이상 효험
※ 효험 없으면 100% 환불
천년사찰터 부 처 골 **지장선원** 혜봉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

기도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기도하며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관음도량
011)855-1116

출 퇴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서울
017)846-1314

부전스님
모십니다
▷ 연봉 1500만원
053)656-676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16

스님이 안계시는
사찰에서 스님을
모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단 부산지역에 한함
018)222-7127
054)373-6108

경북 봉화에 있는
천년고찰에서
기도하며 공양주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
054)672-7579
011)9359-4080

오덕악세와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청정도량에서 소정의 기간동안(습의,참선,불교교리,염불)을 이수 후 포교당이나 암자를 맡으실 분이나 청정수행(정진, 기도)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 인원 : 5분
- 자격 : 승속피,기혼남여불문 5분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문의 : 017)531-8582

묘 적 암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앞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총장연주(법회 · 산사 음악회 · 결혼식)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천도재는 3월 9월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황토흙벽돌기계
- 황토 흙 믹서기 중고가격으로 매매함 황토집 및 시공 기르켜 드림
- 기도하시면서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도 가능)

017)593-3387

절터 안내
-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울산과 경주 경계 양남 지역
- 연못과 산세가 좋고 시냇물이 흐르며 조견 완비, 국도에서 15분 거리, 토목공사 완료, 최고의 풍수지리
- 가액 : 평당 15만원

011)9527-088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조천리
- 평수 : 100평(실평수 88평)
- 가액 : 6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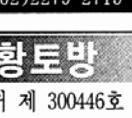
055)345-6129
016)554-7201

아미타불은 전리오 생명이요 광명이다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행법 논장을 일심고 욕망이 세속과 승기에 안연하니 불광명시로 신심을 고듭한다 오탁악세에 성불하겠다는 정심을 버리고 염불수행을 선택하면 영혼 운전, 정대신, 해탈왕으로 부터 해탈되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수 있다
① 업불신앙의 원리와 비결
②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③ 한국의 업불 수행
④ 도로 아미 타 불 (아미 타 정 소,요심 한적 도, 대승 속정 참회)
총 4권 27,000원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033) 254-5397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의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신우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쾌감이 없어져 몸이 가뿐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건물 : 4층 건물 4층 전관(옥상사용가, 남향)
- 건평 : 약 40평 법당, 큰방 2, 작은방 2, 주방, 욕실
- 가액 : 합 5500만원 전세 3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 : 삼존불,후불,신중,지장,탱화, 범종 기타 불교용품 및 광고물
- 특징 : 전철시 도보 3분거리, 6차선 코너 건물

051)317-0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네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고양시 중심 상가
- 규모 : 160.8평(빌딩 7층)
- 시설 : 법당 80평, 주방외 방 5칸, 명상실 1칸, 목욕실 1칸, 사무실, 가스냉난방 완비, 최고의 엠프시설, 시설비 2억 투자
- 특징 : 지하철역 근처, 법당 앞 공원, 아파트 숲 중심
- 가액 : 3억 5천만원(전세 1억 8천 포함됨) 답사 후 절충가능

011)306-0177
031)978-05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 근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임법당, 후불탱화, 신간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5000만원

051)331-9937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심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덮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 (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중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4억 8천

051)245-4012
011)617-4013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벌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해외이주관계로 8천 5백만원

※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6)207-5600
017)844-9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중동(부천역 중동역 사이) 교통 및 주변 여건 좋음
- 건물 : 5층 건물 5층 옥상 사용 함 시설은 A급
- 평수 : 70평 법당 40평 방 5개
- 법당 : 석가모니불탱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단탱화 산신단탱화 영가단, 인등
- 보증금 : 14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32)666-7463/017)289-7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5분, 문경 (점촌시 8분, 구미시 30분 거리
- 대웅전,기와15평,고사찰임. 요사채 30평, 방 5, 기름보일러,충왕단,산신각,미륵당,성황당,각별채있음 부지 1800평 각종고목,대나무울창,산세수려함 1년에 1번티자라는 신비의 돌부처는 문화재임 신신의 영험있는 도량. 중생들의 기도처이면서 스님, 법사, 보살님의 법회최적지임
- 보증금(3년) 300만원, 권비 : 1700만원

011)541-1331
054)534-3883, 534-3361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 2동
- 건 물 : 주택(1층) 법당, 방
- 내부시설 :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호신불, 에어콘, 보일러시설
- 가 액 : 전세 1300만원

053)653-4846

사찰인수 하실 분
- 위치 : 경북 칠곡군 양목면 소재지 대구 김천시 구미 왜관 중간 지점
- 신축, 요사체, 돌탑, 연못 완비
- 실평수 320평, 평당 30만원
- 야산 5천평 사용 가능
- 창건주 직접

017)813-9126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융자1천만원별도)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욱언이 좋은것 이닙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포교원개원 청담 1동
www.bulljichon.com 한글도메인 수산스님.com
무료 역학 상담 氣치료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원앙예식장 후문 맞은편 4F
문의처 02)3444-4376
02)3442-4194

행 자 모 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이 회주소임을 맡고 있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의 3대 지표아래 분원인 감포 연봉산 해왕사를 행자 특별교육장으로 열고 의식있는 예비스님(행자)을 모집합니다.
종단수계 후 모든 공부수행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조계종)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문의 011-9852-0075 (총무스님)
봉신과정, 인터넷과정 모집 중 TVbuddha.co.kr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평구청 지하철역 30m
- 평수 : 35평 방 2개 4층상가건물 3층
- 구조 : 본존불 본존탱화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중전 신중탱화 영가단
- 특징 : 주방살림 가능 집기일체 에어콘설치
- 보증금 : 2천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가격절충

032)506-2369
018)350-5807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일원
- 임야 : 5000평 대지 : 700평
- 기타부지 : 400평, 주차장 : 무한정
- 법당 : 20평, 칠성각 : 10평
- 산신각 : 1동, 요사채 : 2동(50평)
- 버스종점 보도로 5분
- 계곡 청정, 산세수려, 70년
- 가액 : 2억 3천

017)855-9551
055)637-1201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융자1천만원 별도)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욱언이 좋은것 이닙니까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 평수 : 55평(4층건물 중 3층) * 옥상 사용함
- 구조 : 청동본존 아미타불 청동 108원불 신장 지장탱화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2000만원/월 3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016)9889-8000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 치 : 서울시 강남 소재
- 법 당 : 108평
- 요 사 : 방 3개
- 보증금 : 6천만원 월 350만원 ※ 내부시설은 최고 A급이며,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포교당
- 위 치 : 서울시 강북 소재 (지하철역 200m)
- 법 당 : 50평
- 요 사 : 방 4개
- 보증금 : 6천 /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
- 대지 : 450평 전답 : 2100평
- 법당 : 30평, 요사체 : 30평 심야보일러, 신축 3년, 7층석탑, 미륵관세음 15자 종, 운판, 청정계곡전, 미시령터널 착공
- 가액 : 2억 7천(주인직접)

033)462-8073
011)699-6600

사찰 안내
- 경남 사천 사남면 와룡산 법성사
- 2층 법당, 삼존불
- 1층 요사체, 산신각 별도로 있음
- 경치 좋고 수려하고 조건 좋음
- 대지 : 158평 • 건평 : 65평
- 가액 : 8천만원
- 전세로 할경우 3000만원

011)834-9989
(비구니스님 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옆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0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절충가능

상 원 사 02)895-7512
011)230-7511/033)442-78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부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법당 22평, 산신각 5평
- 창고 8평 요사채 40평
- 특징 : 남향 임법당으로 단청 하였슴
- 가액 : 1억 3천

017)845-7090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전불탱 괘불탱 괄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종합탱(리중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31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경남(해안가)
- 법당 : 23평 산신각, 종각 옹왕당
- 요사 : 25평 외
- 부지 : 2,000평 (국유지 포함)
- 가액 : 4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 용자 2억 가능 외 일부금액 후불 가능
※ 도심에 접한 산속의 아늑한 1급 도량 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6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경주 감포 10분거리)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 인법당포함, 건물 2동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495-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40평(신축), 삼존불(석자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임법당, 방 3, 화장실 2, 창고 1, 마당 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 명당, 전망좋음,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을 운영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전세가능)
- 위치 : 충남 아산 온천 주변

011)701-0104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5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40평
- 가액 : 2억
- 특징 : 산속 기도터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3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단성초등학교 뒷산, 준농림지
- 답 : 1,055평
- 특징 : 약수물, 진주에서 15분 거리, 대전강 고속도로 단성 인터체인지 일반 국도 4차선 중심지

가액 : 평당 십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548-5980

전원황토집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 방 2칸, 목욕탕 1, 화장실 1, 아궁이 부엌
- 텃밭 조금
- 가액 : 900만원

018)306-6717

사찰 안내
- 위치 : 양평, 양수리, 서종 북한강(잠실30분거리)
- 평수 : 대지 650평, 남향
- 건물 : 60평, 인법당 20평 포함
- 전세 : 1억 5천, 매매 가능
- 특징 : 뒤산, 앞계곡, 연못

011)755-0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 2층 40평
- 법당 1개, 방 3개, 주방 샤워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3천 월 50만원
- 시설비 9백만원

032)887-0987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580평 법당 15평
- 삼성각 4평 요사채 35평(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잘어우러진 명당터 임, 교통편리
- 가액 : 1억 2천만원

043)832-4785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태고 원융사상 되살린다

탄신 7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태고학회·사나사 등 세미나·국사추대식 재현



◇원증국사 태고 보우스님 영정.

조계종에서 중흥조로, 태고종에서 종조로 모시고 있는 태고 보우스님(1301~1382)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 추모다례재, 국사추대식 재현, 영산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한국불교 태고학회(회장 무공스님)는 11월 4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태고종과 조계종, 일붕선교종 등이 공동주최하며 태고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동국대 권기종 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사상과 그 위상', 영산원불교대의 김방룡 교수가 '태고보우국사와 보조지눌국사의 사상과 수행교화법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허흥식 교수가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태고화상과 '편조'를 중심으로), 중국 남경대 홍수평 교수가 '원대 선종의 법맥에 대한 소고' 등 7명이 발표하고 서윤길 교수(동국대), 법산(동국대 교수),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태고종은 이번 세미나와 더불어 탄생일인 11월 6일, 스님의 부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추모다례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나사(주지 화암)도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기념세미나와 함께 11월 6일 추모다례재 봉행, 국사 추대식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국사 추대식은 6백여 년전에 보우스님이 국사로 추대됐던 당시 상황을 현실감있게 재현한다. 양평읍내에서 사나사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되며 공민왕에 의해 국사로 추대됐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사추대교지'와 예물을 소지한 어사가 사나사까지 도착하는 전통복장 가두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 어사가 보우스님에게 직접 교지와 예물을 올리는 봉헌의식, 보우스님이 국사로 추대됨에 따라 헌에서 양근군(현 양평군)으로 군승격이 됨을 선포하는 '군선포식' 등으로 진행되며 오후에는 산사음악회도 개최된다.

한편 사나사는 21일 사나사에서 '태고보우스님 추모다례재 및 만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영산재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23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태고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주제로 기념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호스님(동국대 교수)이 '태고보우 스님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가 '석옥, 보우 선사상비교(논문내용 16면 참조)' 등을 발표하고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장)씨가 새로 발견된 소설암지 출토 비편을 중심으로 태고보우국사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불교의 '뿌리'로 추앙되는 태고보우스님은 13세에 출가, 신라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에서 수행했다. 선교일체론을 주장하며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았다. 스님은 구산을 통합하면서 공개적으로 '조계종'으로 이름을 붙여 오늘날의 조계종을 명명한 스님으로, 말년에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로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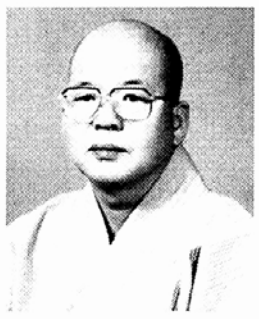
태고학회장 무공스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도는 수행상으로 보나 종파, 종책상으로 보나 모두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계승한 문손들이 대부분"이라며 "스님의 원융홍통사상과 수행가풍을 되살리는 일은 오늘날 한국불교계의 과제요, 전 인류가 실천해야 할 여망"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운동 이끌어

통영불교사암련 선곡스님



"통영불교는 호국불교의 맥을 이으며 민족적 정서와 지역민의 애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생활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불교가 되도록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선곡스님(용화사 주지)은 그동안 활동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통영사암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밝혔다.

통영에는 유독 사설 사암이 많고 사암련의 규모도 작아 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편. 그러나 18년전 창립된 통영사암련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영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펼쳐온 재소자 위문법회, 불우이웃 돕기, 봉축법회, 제등행렬 축제 등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왔기 때문이다.

재소자 위문법회 지속

불자학생 장학사업 추진

또한 현재 통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곡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승병들이 수행했던 청정 수행도량을 지키는 일에 사암연합회가 나서는 것은 불교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이라며 "호국성지인 동시에 시민들의 귀의처가 되어온 미륵산을 관광개발이라는 단순 논리로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스님은 회원사찰과 신도들과 함께 매월 1회 미륵산 정산에 올라 주변 환경 정화 운동,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홍보,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시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있다. 2년간 여성단체, 환경단체, 산악회 등과 연대해 성명서를 내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지속해온 선곡스님은 "케이블카 설치가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등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불교가 종단을 초월한 화합된 모습을 신도들과 지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선곡스님은 23개 회원사찰과 그밖의 비회원 사찰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대사회적 역량이 커지기 때문.

선곡스님은 "통영의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이 된다면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장학사업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천미희 기자

"월드컵 성공 발원"

갑사 11월 3~4일 개산재…괘불이운도

계룡산 갑사(주지 장공)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갑사 경내에서 '민족의 번영과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창건 1581주년 개산대제 및 영규대사 순국 409주년 추모재'를 봉행한다.

3일 오후 2시부터 중도불교문인협회, 중앙인문연구원, 백제불교사상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개산대제 기념 학술회의는 한국불교사상의 집대성인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즈명'을 주제로 열린다.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위상'(사재동, 중앙인문연구원), '국어사적 위상'(김영배 동국대 교수),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의 도상과 의의(김창균, 문화재청) 등이 발표된다.

4일 오전 8시부터는 가정의 안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갑사 괘불(국보 298호) 이운식, 태아영가 천도를 위한 영산재(영산재보존연구회), 기허당 영규대사와 800의승군 추모재가 잇달아 열린다. 특히 영규대사 추모재는 처음으로 육해공군군승단과 군불교총신도회 주관으로 열리며, 행사 기간동안 '자비의 쌀 모으기' 행사를 개최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갑사 주지 장곡스님은 "800여 의승군과 함께 산화한 영규대사는 기존의 승군 활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불교계의 의병활동을 일으켜 호국불교의 연원을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대승보살도를 이어받아 경제난 타개와 월드컵 성공개최를 발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041)857-8981 김재경 기자



"남북통일 기원" 중앙탑 탑돌이 시연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 충주시 가금면 소재 중앙탑(국보 제6호)에서 14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중앙탑돌이 시연대법회'가 봉행됐다. 우륵문화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서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는 중앙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불교수행과정인 육바라밀 정진도를 따라 도는 탑돌이를 시연해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충주= 고영배 기자

해남 미황사 동자상 도난

비지정문화재…벽송사 목조불상·탱화도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해남 미황사 응진당에 봉안돼 있던 폭 20cm, 키 60cm의 목 동자상 8구 가운데 7구가 15일 새벽 도난당했다. 처음 도난사실을 발견한 주지 금강 스님은 "이날 새벽 예불을 위해 나와 보니 응진당 어칸문의 자물쇠가 절단기로 잘려 있고 동자상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약 27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동자상은 1985년 봄에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새벽에는 경남 합양 벽송사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후불탱화를 도난당했다. 도난품은 모두 조선후기 때 목조품으로 이중 후불탱화에는 1897년이라는 제작연대가 표시돼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스님·신부·목사도 참여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와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울린 잔치가 벌어졌다.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는 12일 진안 금당사 주지 진혜스님, 익산 도덕사 주지 청림스님, 신부님, 목사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형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종교 성직자들은 재소자들과 같이 줄다리기, 씨름, 공굴리기 등 경기에 임하며, 재소자들이 과거 한순간의 실수를 참회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연꽃불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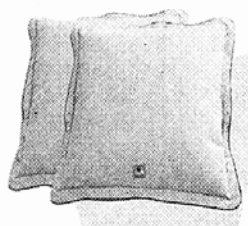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 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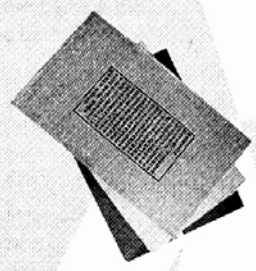
불자용 방석



· 재질 : 면
· 크기 : 약 50cm × 50cm
· 가격 : 20,000원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겹다포



· 재질 : 면
· 색상 :
황토색 (크기 : 41cm×68cm)
밤 색 (크기 : 43cm×58cm)
회 색 (크기 : 38.5cm×58cm)
· 가격 : 각 6,000원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한방속옷 세트

▽ 여성용
· 소 재 : 면 100% (60수)
· 사이즈 : FREE · 구 성 : 숯, 황토, 쑥
· 3종(숯, 황토, 쑥) 세트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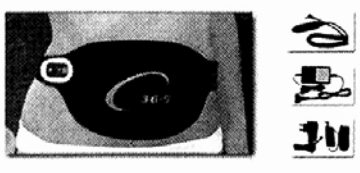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입니다』

△ 남성용
· 소 재 : 면 100% · 사이즈 : 95, 100, 105
· 특 징 :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5종(숯, 황토, 쑥, 도토리, 오배자) 세트 : 45,000원
· 3종(숯, 황토, 쑥) 세트 : 29,000원

옥(玉)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우리말 묘법연화경



눈과 귀가 경이롭게 열립니다 !!
7년 연고끝에 내놓는 영인스님의 대장정
법화경의 연꽃과 같은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가 : 270,000원 ⇨ 할인가 : 229,500원

자개모자佛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0호 기능 보유자이신 清溪 宋芳雄(청계 송방웅) 선생이나전칠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흥송에 5번에 걸쳐 나전칠을 한 후 최고급 자개로써 금자를 새긴것입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어 낮과 밤에따라 그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

· 크기 : 가로 235mm × 세로 560mm × 높이 25mm
· 색상 : 적색, 흑색
· 가격 : 660,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7-8881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철거 요구

기독교 2천명 가두시위 '빈축'

원주사암련 등 '비상대책위' 결성

원주 경찰서내 경승실에 봉안된 불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주지역 기독교계의 주장이 급기야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어져 사회적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 기독교 협의회는 14일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경찰서내 불상철거를 위한 기독교 연합예배 및 가두 시위행진' 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종인 불상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경찰서장과 경무과장의 비호아래 불상을 설치하는 등 법당화 되고 있다"며 "경찰규정상의 부착물(현상범 수배전단, 서장훈시 포스터) 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고 불상철거를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국 경승실 대부분에 불상이 건립돼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인 불상철거 운동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원주경찰서 윤영환 서장은 "경승실에 설치된 불상은 경승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강원지역에도 강릉, 고성, 속초 경찰서에 이미 불상이 봉안됐지만 문제된 곳은 한군데도 없으므로 기독교계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원주사암련과 원주불교 청년회 등 원주지역 불교 대표 20여명은 1군사령부 법당 법웅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종교화합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일휴(원주사암련 회장), 원행, 운봉(전 사암련 회장), 경혜(성문사 주지), 김문기(원주불교 신행단체연합회 상임 공동회장) 등 7명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종교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 경승실의 불상설치 철거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하지만 훼불 등 구체적인 불교 폄하의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번 불상 봉안 항의 시위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신문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불상 철거가 결정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장기적 투쟁을 조장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14일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열린 '원주경찰서 불상철거 기도 연합예배' 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광적인 기도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현장에서 만난 원주 시민 강만식씨(53 · 학성동)는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종교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강씨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무관심하다"고 말해 이번 시위가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함을 반증했다.

현재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 등 전국 280여 경찰기관내 불상이 봉안된 경승실은 54곳, 십자가가 설치된 경목실이 58곳, 성모마리아상이 설치된 경신실은 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김영환씨는 "경찰관들에게 신앙적인 전도사업과 포교사업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준 것이 경승실과 경목실 설치의 근본 목적"이라며 "이를 위한 의식을 할때 불상과 십자가, 성모마리아상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기독계의 불상철거 주장을 일축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통일돼지' 10억여원 모금

정토회 천일정진특위

600일 기념 워크숍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산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 는 13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24시간 정진 600일 기념 워크숍을 열고, 북한동포의 민족고(苦) 해결과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북한동포돕기의 현재 의미와 새로운 통일운동의 방향' 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은 "분단의 고통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간절히 느끼기 위해 24시간 기도 철야정진에 돌입하게 되었다"면서 "한주 한끼 굶기, 통일돼지 키우기 등을 통해 굶주리는 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모금활동에 동참해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통일운동"이라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의 식량 및 의약품 대량(연 5000억원) 지원, 기업차원의 설비투자 등 경협, 민간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적십자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정토회의 24시간 1000일 정진에는 하루 평균 27명, 13일 현재 1만5984명이 동참했다. 매일 기도자는 1명, 주1회 이상 기도자는 평균 80명, 월1회 이상 기도자는 160명에 달했다. 또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돼지' 로는 총 10억8403만원이 모금됐다.

김재경 기자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대구 관음사 납골당 구청 신고필증 교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납골당 설치를 중단했던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가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 관음사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이 16일 납골당 신고필증을 관음사에 교부했다. (본지 332호 23면 참조)

관음사는 지난 8월 경내에 1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면 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불투명했다. 당시 남구청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 는 태도를 보였다.

우학 스님은 "종교 시설 내 납골당 설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님비 현상을 극복한 남구청의 결정이 다른 시, 도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몸과 마음 변화 주목"

인드라망 5차 화엄광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3일 조계사에서 제5차 화엄광장을 개최했다. '몸 다루기, 마음 다루기' 를 주제로 열린 화엄광장은, 불자들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찰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정토회 정토법당원장 유수스님, 위빠사나 수행자 김열권 씨 등은 "몸과 마음은 무명과 집착으로 인해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이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도량"이라는 데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움직여 나가는 가에 따라 가장 절친한 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수스님은 "깨어있는 수행자는 몸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불자라면 일상에서 자신도 평화로우며 주변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 찾는 외국인

일본·미국인 많다

한달간 2천여명 방문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고, 또 나라별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으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까.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에 대해 국적별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일본인이 1,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705명, 말레이시아인이 97명, 중국인 79명 순이었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독일-홍콩-영국-캐나다-프랑스 순으로 집계됐다.

방문 유형은 개인별, 단체별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 방문객은 거의 단체 방문객이고,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권 방문객은 개인 방문이 많은 것이 특징. 또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법당과 단청이었으며, 사찰 구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고 외국인 안내소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더부분은 조계사가 사찰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사찰 안에 커다란 주차장이 왜 있는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관람객들 중 자국으로 돌아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는 한 달 평균 5~6건에 이르며,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와 조계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한 포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은평도서관 개관

인덕원, 수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은 15일 서울 은평구 구립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3시 개최된 개관식에는 성운스님, 고건 서울 시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도서관 야외무대에서는 식전행사로 풍장대 21의 사물놀이, 은평구립합창단 합장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성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책은 사람을 만들고, 책을 읽는 민족은 발전한다"며 "은평구립도서관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덕원이 은평구로부터 수탁 받은 구립도서관은 99년 1월 착공, 총 170여 억 원이 투자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세워졌다. 여기에는 900석의 열람실 비롯해 자료실, 문화교실, 정보검색코너, 향토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설치됐다. 오종욱 기자

안산시민 불교예술제

28일 사암련 행사로

안산사암연합회(회장 지허)가 주도하는 제5회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가 28일 오후 7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지난 94년 첫 공연을 시작한 불교예술제는 지난 97년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행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지역 30여 사찰 스님들의 원력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동국대 교수 법현스님이 이끄는 범패, 승무, 법고춤 등 전통 불교예술공연과 성악가 정률스님의 찬불가 독창, 혼성불자중창단 LMB싱어즈의 연주, 천수사 불교보컬그룹 도솔천의 불음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 사찰과 신도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에 불교를 알리는 방편으로 불교예술제를 열게 되었다"는 지허스님은 "이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티베트 난민 지원 선우회관 건립 '서원'

우리는 선우 창립 10주년 행사



◇우리는 선우의 10주년을 회향하고, 앞으로의 서원을 밝히기 위해 선우들이 꽃등을 밝히고 있다.

10년 전 불교를 바로 세우고 맑은 사회, 열린 사회, 따뜻한 사회를 완성시키겠다는 서원으로 결성된 재가불자들의 신행모임 (사)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가 1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종서 박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선우는 단체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한 불단이었다"면서 "그간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꾸준히 이끌어준 박광서, 남지심 대표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10년의 세월동안 불교계에 신선감을 줬다"면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선우야 말로 지성불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치하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선우가 되길 당부했다.

약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과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을 포함한 지도법사단, 김종서 박사를 포함한 고문단, 10여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우리는 선우' 는 그동안 남을 위한 등달기 운동을 비롯, 군포교와 청소년 포교를 담당하는 화랑선우회, 사회복지와 장례봉사 등을 담당하는 백련선우회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우리는 선우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승려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했고, 97년 몽골 정부와 협의해 울란바토르에 '한몽불교문화원' 을 설립하고 양국간의 불교 교류 및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박광서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보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 재가불교의 새로운 신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우는 우선 티베트 문화를 지키고,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한다. 또한 선우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자신의 시간 3% 이상을 수행과 봉사에 사용하는 선우결사도 전개한다.

오종욱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四柱命理(사주명리)와 일반 五行術(오행술)의 限界(한계)를 克服(극복)시킨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改訂增補版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아버리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영이상법 (귀신침범 · 신소탐 · 빙미부정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홈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우려인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항이상하게 휘面上부서 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품격 · 귀의 방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애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슥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이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기 수조로운지 더뭔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형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 · 신시(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 · 음양오행가 · 신명제자 · 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19호 임신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당성과 하든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환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심망이기 이래 지역에서 매주 신기작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찬석하시서서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천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복자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되돌려 주는 나무의 보살행

감성으로 보는 절

<18>죽어서도 고운 결/나무



◇개암사 대웅전 기둥의 나무결에 나타난 보살.

만날수록 따뜻하고
어려우면 생각나는
고향같은 사람처럼
여유있는 삶 살고파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나는 북한산에 있는 어느 절에 들른 적이 있다. 그 절을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나와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이들을 도우러 같이 가는 길에 들르게 된 곳이었다. 절이라 하지만 돌로 조각한 자그마한 미륵보살을 아주 낮고 작은 방 한 가운데 모신 굿당 같은 절이었다. 무척 더운 날씨여서 나는 빈집 같은 절의 툇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인기척이 없어 몹시 한적해 보였다. 산길 바로 옆에 비스듬하게 앉은 허름한 절이라 들르는 사람도 없고, 산행하는 사람들만 헉헉거리며 길을 재촉하는 것이 문도 없는 돌담 사이로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누추한 곳이었지만 산속에 있는 집은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고 마음의 화평을 주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마술적인 힘이었다. 바람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숲의 소리는 나의 영혼을 맑게 했다. 잠시 숨결을 고르며, 푸른 하늘의 하얀 뭉게구름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으로 와서 뭔가를 불쑥 내밀었다. "드시우." 웬 할머니가 내게 표주박을 내밀고 서 있었다. 유난히 거칠고 큰 손이었다. "물이 시원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의 얼굴엔 세상의 온갖 풍상이 가득 했다. 표주박은 하늘의 구름까지 가득 담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불쑥 내민 표주박의 물은 내 가슴을 메어지게 했다. 할머니는 끝내 담담했다. 나는 그날 그 할머니와 한 시간을 넘게 툇마루에 걸터앉아 노닥거렸다.

할머니는 열 여섯 살에 어느 산골 벽지로 노총각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다. 시집이라야 산 너머 물 건너 한나절을 걸어 다 헐어져 내린 초가 방 한칸 집으로 간 것이었다. 첫날밤을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산골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어둑해지자 신랑이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줄이서 방으로 들어가 도라도란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새댁은 마당과 부엌을 할 일 없이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두워지자 신랑은 왜 밥상을 차려 들여오지 않느냐며 호통을 쳤다. 새댁은 놀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허둥거리며 밥상을 올렸다. 둘이서는 겸상을 해서 먹고, 새댁은 부뚜막에서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날 밤 신랑은 원래 팔엔 젊은 여자를, 오른쪽 팔엔 새댁을 안고 잤다. 그러고 열흘 쯤 되는 날, 신랑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새댁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곳저곳 절을 떠돌아다니며 밥을 짓고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곳에 온진 너댓달쯤 됐다고 했다. "할머니, 그러고 할아버지 소식은 영 못 들으셨어요?" "바람결에 들리는 말로 죽었디야." 할머니는 소근대는 소나무 가지를 끌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주책없이 잔잔한 할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고 있었다. "불쌍허, 박 기도허구 살어, 극락가야지."

나는 이래서 '사랑'이란 말을 싫어한다. 이런 삶에 비해 우리가 침이 마르게 뇌이고 있는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이악스러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사는 이상 중생은 애별리고(愛別離苦)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원래 '외톨이' 되기를 즐기는 쪽이어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편인데, 사람을 만나 사귀면 꼭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 생각이 엄마나 자애적(自愛的)인 자폐(自閉) 의식이었나 후회하고 있다. 삶을 뛰어넘어, 삶 그 자체를 바로 보고, 삶의 뒤편을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이 아닐까? 나는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되는 일인가? 만날수록 따뜻한 사람,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어려울 때 늘 생각나는 사람, 추울 때 따뜻한 차 한잔 대접받고 싶은 사람, 정말 '고향 같은 사람' -,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일까?

어느 날 부안의 내소사를 들르는 길에 개암사를 들렀다. 대웅전 뒷산 바위가 우람한 절은 들어가는 길이 짧지만, 우람한 나무의 숲이 아름다웠다. 나는 사람을 좀 피하는 편이지만, 바위를 좋아하고, 바위보다는 나무를 더 좋아한다. 바위는 천년을 말없이 이끼를 걸어쓰면서 한곳을 지키고 있는 침묵이 좋고, 나무는 돌처럼 차지도,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만지면 내 체온을 나무의 체온에 섞어 은근히 되돌려 주는 나무의 체온이 좋다. 나무는 죽어서도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의 결을 드러내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 죽어서도 이처럼 곱고, 아름답고, 신비한 나무의 결과 그리고 따사로운 체온을 간직하는 나무! 나는 그냥 나무가 되고 싶어진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대승불자 생활의 나침반

한글대장경의 세계

십지경론



한글대장경의 간행일련번호 214번에 수록된 〈십지경론〉은 〈십지경〉에 대한 천친(天親)의 논서다. 천친은 세친(世親)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북인도의 대승론자다. 애초 그는 대승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의 형 무착(無着)에 의해 대승을 이해하고 철저한 연구자가 된다. 그래서 천친은 여러 대승경전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덧붙이는 외에도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소승에 대한 5백부, 대승에 대한 5백부의 논을 저술했다고 하여 그를 천부논사(千部論師)라 부르기도 한다.

천친의 〈십지경론〉이 한역된 것은 북위 선무제 당시 보리류지(菩提流支)와 늑나마제(勒那摩提)에 의해서다. 선무제는 북천축의 보리류지와 남천축의 늑나마제 복타선다 등 10여명에게 칙명을 내려 십지경론 10여권을 각각 번역하게 하였는데 그중 보리류지와 늑나마제, 복타선다 등의 번역본을 회통하여 현행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열가지 불지 공덕 설명
자리이타의 삶 이루게

이 론의 제목인 〈십지경론〉에서 지(地)의 의미는, '발생하다, 머무르다'는 말에서 파생한 여성명사로 대지가 사물을 발생시킬 능력을 가진 것처럼 불지공덕(佛智功德)을 생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십지경론〉의 원 경전인 〈십지경〉은 〈화엄경〉의 십지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화엄경〉이 먼저 성립한 후 십지의 한 품만을 따로 유통 시켰다는 설과 작은 경전들이 집성되어 〈화엄경〉을 집성시켰다는 설이다. 후자의 설에 무게 중심이 가고 있지만 , 〈십지경〉은 여시아문 등의 6성취와 끝의 환희봉행이라는 일반적인 경전의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십지경〉은 대승의 보살이 자리이타(自利利他)하여 불지(佛智)를 개현하려 할 때의 실천과정과 그 세부 내용을 열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그것으로써 대승 불교도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경전이다. 십지를 이해하는 데도 두 설이 있다. 초지에서부터 십지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혹은 작은 지혜로부터 큰 지혜로 나아가는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성취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전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즉 인(因)으로부터 과(果)로의 순서인가, 과로부터 인의 공덕을 전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유식학파는 전자의 입장을, 화엄이나 진언학은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 〈십지경론〉은 〈십지경〉의 내용에 곧바로 천친의 논이 따라 붙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 3권까지는 환희지(歡喜地)인데 1권에서는 경전이 설해진 상황을, 2권에서는 부처님께서 백호로부터 빛을 나투어 일체를 빛으로 감싸고 여러 대중이 초지의 법문을 듣길 원하여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설하는 대목이다. 부처님이 아닌 금강장 보살이 설하는 법문이 〈십지경〉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제3권에서는 초지의 10대원을 해명하고 행승(行乘)을 보임에 있어 십진구(十盡句)를 설한다. 이렇게 하여 십지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져 12권을 이루는 것이다.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법문을 다 마쳤을 때 부처님께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청중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설한 바의 뜻을 받들어 봉행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경전은 끝을 맺는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 선원합창제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마음선원 합창제
'님의 소식'을 마련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한마음선원 어린이, 청년, 거사, 어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이 참여합니다.
아름다운 선법가의 선율 속에 모두가 하나 된다면
그야말로 '님의 소식'은 시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꼭 오셔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병상에서 가쁜 숨을
토해내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 공연일시 : 2001년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출연 : 한마음선원 어머님 합창단
거 사 합창단
청 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 특별공연
한마음선원 비구니스님 합창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주관 : 한마음선원 신도회,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국비구니회,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BBS불교방송, btn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 HBTV, 한국복지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 화 031-470-3100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입장권은 한마음선원으로 문의바랍니다

